

第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 92. 9. 2. ~ 9. 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3.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47
4. 부 록	
가) 의사 일정(안).....	93
나) 주요업무추진현황.....	95
다) 각급학교 창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137
라) 결 의 문.....	143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2년 9월 2일 (수요일) 14시 3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회위원외 3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의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의사국장으로 부임한 이근수서기관을 소개하게 되겠는데,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계시던 민병수 의사국장은 우리 교육위원회 개원 이래 산과 요원으로서, 무던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민병수 의사국장께서 중앙도서관장으로 영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병수 의사국장님의 이임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민병수, 위원석 앞으로 나
와 인사후 들어감)

민병수 의사국장님의 후임으로 본청 총무
과장으로 계시던 이근수 국장께서 인사교류
가 되었습니다.

이근수 의사국장은 1963년 7월 충청북도
교육국 학교관리과를 시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7년 12월 사무관에 임관되
었고, 도교육청의 인사계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거쳐서 금번 9월 1일자로, 사무
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의사국장
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은 새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집
행기관 간부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9월 1일자로 서기
관의 승진하고, 또 본청 국·과장급의 자리
바꿈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분 한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
다.

먼저 의사국장 민병수 국장은 의장님께서

인사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
감도 서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 있다가 단재교육원 총무부
장으로 부임케 되었습니다.

(단재교육원 총무부장 엄갑도, 위원석 앞
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공보담당관 정금옥 사무관을 소
개해 올립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을 역임하시다가 이
번 9월 1일자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금옥,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사무관
을 소개해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 자리를 옮겼
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사무관
을 소개해 올립니다.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
을 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총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을 소개
해 드립니다.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
습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 행정과장 이상찬 사무관을 소개해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 재무과장 정현동 사무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무과장 정현동,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이상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1. 경과보고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이어서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공고 92-9호로 8월 25일 공고하였고, 오늘 집회되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12회에 의결된 의안의 처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판인규칙중개정규칙안을 8월 14일날 공포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회 처리안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2차, 3차 회의에서는 질문과 여기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 이재회 교육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으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할 내용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개원 1주년이 되며, 또 마침 '92학년도 2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방대한 양으로 지금 질문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부교육감 직속과와 관리국 과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이동된 과장들의 업무과약등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초·중등국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만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9월 하순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잔여 질문을 진행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이재희 교육위원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재희 위원 :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2년 9월 3일 10시 30분과 9월 4일 10시 30분으로 제1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 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당초 부교육감, 초·중등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였으나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듯이 간담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부교육감과 초·중등국장으로 변경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이재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희 교육위원외 3인
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은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
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근수, 권혁풍, 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근
수, 권혁풍,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9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중앙도서관장 민병수, 단재
교육원 총무부장 엄갑도.

○ 의사일정(안) : 별첨 1.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서를 9월2일인 어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금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행정

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보고내용은 별첨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교육행정
관련 질문과 겸해서 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14시 00분)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진행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후에 부
서별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입니다.

오전에 여러가지 상반기 중에 집행부서에
서 한 실적을 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학년도
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항에 ‘교육자치의 내실’이라는 그런 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신 여러가지 실적하고
8번에 그 ‘교육자치에 내실’이라는 그런 초
점을 한번 놓고서 볼 때, 과연 그동안 하신
일 여러가지 중에서 교육자치에 내실이 어
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즉, ‘교육자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제
‘첫 돌맞이’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뭔
가 초점이 일선 현장에 교육자치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종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며는 학년초
에 내걸은 여덟번째에 교육자치의 내실이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하게 되면 그 교육자치법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전문성·중립성·독자성·독특성, 이런 것들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그동안 상반기에 한 여러가지 실적과 연관이 되어서 구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보니까 연찬회계획, 연수회계획, 수련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셔서 하신 것 같은데, 기타 자율성이라든가 혹은 독자성이라든가, 독특성, 이런 것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을 했다, 학교 환경정화를 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느만큼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교장, 교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혹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를 그냥 따른 것뿐이나, 그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

(장중호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장중호 위원 : 저는 두가지만 좀 여쭙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려는 몇 개 고등학교에 기계과라든지, 전기과라든지, 전산과 이런 과를 신설한 데가 있고, 다시 추가해서 확충한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단양공고에서 '전기과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 하는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려는 단양공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빠졌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단에 '감사결과 처분 결과'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신분상 조치' 라는 것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복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김응복 위원.

○ 김응복 위원 : 19쪽 중등교원 연수중 기타연수에 '퇴직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연수장소가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단재교육원에서 퇴직할 사람을 위로검 해서 아마 하루정도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 교육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계획인지,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 집행기관의 계획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단재교육원에서 퇴직하는 분을 초청해서 위로검 해서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일선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년 퇴임할 사람은 몇일 남지 않았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하는 얘기가 더러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는지, 이런 것들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려는 '퇴직자를 재교육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이상일 위원

○ 이상일 위원 : 예.

먼저, 중등교육소관에 아까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미발령자가 두분 있다고 그랬는데 중등에서는 지난번에 26명인가 27명이 미발령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발령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까 소송수행 문제로 충주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했고, 충주공고 학생 폭행치사 건으로 8천600만원 배상 판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고 안하고 그냥 지방법원 판결대로 지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 폭행문제, 충주중학교 건도 '90년도에 일어나서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고충을 많이 받고, 학생부모한테 시달리기도 많이 했는데, 학생지도에 있어서 이 체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이재희위원.

○ 이재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은 집권당의 시녀도 아니고 또 엄연히 교육은 정치의 아주 중립성이 보장돼 있고, 특히나 교육공무원들은 65세까지 정년이 확고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찬조금품관리 개선에 따른 그 지시가 하달된 이후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직무 의욕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아니고, 소극적인 경향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국 소관은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교육감님 의지가 어떠한건지 여쭙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 이제 목전에 추계 운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품 관리 개선 방안 지시로 인해서 "일체의 찬조금을 불허한다" 이것이 교장회의에 두번, 세번씩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에 큰 학교가 종전마냥 학급당 얼마씩 학부형에게 걷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허락이 안되겠지만, 대개 이 시골에 분교같은 데는 추계 운동회가 그 마을의 축제로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제천 학전 분교가 있는데, 이곳은 부형들이 해마다 추계 운동회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자모들이 국밥 장사를 하고 경로 잔치도 겸하고 또 다소간 여분이 있으면 분교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 기증을 해왔는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배시된 운동회비가 기본 13만원, 학급당 만800원해서 한 1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처럼 촌노들이 운동회라고 다 와가지고 작년에 하던 식으로 국밥이나 국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 될텐데, 이것이 지시대로 '주는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묻혀 나

갈 것인지, 이것이 학교에서 권유하지 않는 자발적인 이런 학부형들의 행위라면, 징계 위원회가 우리 자체로 있으니까 혹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훈방이나 경고 조치를 하더라도 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기를 진작해 주시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실 수 없을런지, 그래서 운동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거론이 됐습시다마는 운동회가 지역의 축제가 되자면 대개 출향인들이 귀향하는 추석전후로 하면 좋을텐데, 금년에도 추석 이전에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추석 명절을 이용하는 걸로 권장해 주실 수 없을런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요즘 소풍을 가면 의례히 유치원서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동차 소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도 크고, 위험도도 높으니까, 앞으로 되도록 소풍은 가까운 경관이 좋은 곳으로 권장할 수 없을런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17쪽에 보면 조국 순례 대행진, 국립묘지 참배,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며는 학생회 간부나 국가유공자 자녀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공사 같은데는 개방이 돼 있지만

는 몇 몇 부분에는 조국순래단 국립묘지 참배는 학생회 간부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 국한돼 있는데, 이것을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는 극빈자, 또는 문제아, 이런 사람도 같이 섞어서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소년·소녀 가장하고 여행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더운 날 자연농원에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진천학생야영장의 샤워 시설이 좋은데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은 옷을 벗고 목욕을 안합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라고 해도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안합니다.

이런 것은 집에서는 시설도 없거니와 평상시 동료들하고 벗고 목욕하는 습성이 안돼서 그럴 것으로 느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학생들도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또 다른 위원님.....

(김사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장님.

○ 감사수 위원 : 34쪽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아주 부진한 것의 원인이 무엇이나’하는

것인데 책결상 대체비율이 27% 밖에는 지금 현재 안돼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실적이 나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실 난방 개선에 0.5% 밖에는 지금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부금 관계, 찬조금 금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 보겠는데, 우선 문제가 당장 학교에서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운동회가 문제가 되는데, 대개가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시내학교 교장이 수완이 좀 있고 한 데는 천만원 가까이까지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도 한 2백만원 정도 내외가 찬조금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운동회 경비로 다 쓰여지지 않지만, 현재 예산이 운동회 경비로 어느정도 본 예산에 책정돼 있는지, 그 예산 책정된 것만 가지고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지,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뭔가 예산조치 방법으로 예비비에서 지불을 하든지 뭐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재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조치를 안취하고 또 돈을 하나도 부형들한테 받지 않아도 계획대로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지, 운동회를 할 적에 학급수에 의해서 몇 학급에, 학생 몇 명에 대한 샘플의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때에는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14시 30분)

《초등교육국 소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관 부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정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권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자치 내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자치는 외형적인 자치도 중요하다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교육방법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 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학교 현장이 교장 지시 일변도의, 과거같은 학교운영 체제에서 학교 직원회라든가 교무회의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것을 학교 운영에 반영을 해서, 현재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 현장이 상당히 교육자치에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학지도 장학협의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장학지도’라고 해서 장학사들이 또는 장학관이 학교에 나가면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장학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여기서 나간 분들은 그 의견을 최대한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연찬회입니다.

연찬도 행정적 일면을 많이 계획하던 그런 연찬회에서 지금은 자기 연찬을 증시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계획된 연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강의일변도의 연찬을 참여식·토론식, 이런 연찬으로 바뀔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문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개행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은 첫째가 인사공개와 재정공개가 있습니다.

'인사공개'는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교장 승진서열을 공개했고, 교감 승진 서열을 공개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개 어느 지역으로 배치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하는 그런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의 교내 담임 배정이라든지, 사부분장 문제, 표창내신 문제, 해외 연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진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공개' 문제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 운영비등 여러가지를 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학교의 시설이나 학습자료 구입하는데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내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과거에는 교장 선생님이 시공자와 같이 상의해서 시설하고 하던 것을, 지금은 해당 선생님들과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시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료를 구입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자료구입비가 얼마인데 뭘 샀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종합하고 토론을 거쳐서 학습 자료를 구입하는 쪽으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급식학교 예를 들으셨습니다.

급식학교를 과거 같으면 도에서 '어느 군, 어느 시, 어느 학교를 금년도에 급식학교로 한다', 이렇게 한 사례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도 도에서 임의로 지정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구학교를 지정한다든가 또 급식학교를 지정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지역 교육청을 거쳐서 여기서 다시 심사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느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직자 연수를 도교육청에서 주관 해서 하는 것이냐, 교육부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모여서 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한 기에 2박3일동안을 연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하는가?' 대개 건강관리가 주입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사례를 들어서 이분이 퇴직후에도 안정된 건강한 몸으로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다가 '93년에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추계 운동회를 지역 축제로, 상당히 잘 해왔는데 요즘 금품 징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운동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찬조금을 받아야 운동회가 축제 분위기의 운동회가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차제에 찬조금을 일소시키고 선생님들이 순수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검소하고 절약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의 축제적인 운동회가 전개돼야 교육이 민주화 되고, 발전 했다고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로부터 우리 교육계가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개 교당 48만원 전후가 됩니다.

학교 큰 데는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책정된, 여기서 지급되는 예산가지고 운동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는 상품을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운동회는 그 나름으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의 축제 화합의 운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조금 절대 엄금에 따라서 어

제, 오늘 우리 도내 모든 학교가 가정통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통신을 각 가정에 전부 발송을 함으로써 "찬조금품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를 널리 홍보도 하고, 새로운 인식을 시켜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추석 이전 운동회 개최하는 학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추석 4일간 연휴입니다마는 추석 이튿날 운동회를 개최해야 하는 학교는 90개교 입니다.

90개교라고 하면 도내 국민학교 315개 학교에 28.6%에 해당됩니다.

작년도에는 26% 였습니다.

그런데 4일간 연휴가 되기 때문에 도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대개 추석전, 금년같은 8일부터 운동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풍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시달을 했고, 강력히 교육장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 소풍만은 걸어서 가는 도보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보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유적지를 좀 찾아 갔으면 좋겠다, 유적지도 또 뭇하며는 경관이 좋은 곳에 가서 하루라도 좀 바람도 쐬고, 마음도 깨끗하게 갖도록 정서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풍이 되도록,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나 유적지나 이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근교하마는 소풍을 갈만한 장소는 한정이 돼 있고, 학교는 많습니다.

이래서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의 소풍 날짜, 시기를 대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많은 학교가 일시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소풍이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시기, 날짜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사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회 추진 문제는 소요액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는 중복이 돼서 생략을 하고, 다만 "찬조금을 안받으니까 운동회가 호지부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걱정 하시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는 찬조금을 받은 안받은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확인도 하고,

결과 분석도 하고,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감사수 위원 : 제가 물론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일괄 답변하신
다음에 이렇게.....

○ 감사수 위원 : 지금 들어가실 것 같
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찬조금을 안받아도 운
동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
할게 아니라 현재 학교에 배시된 예산 가지
고 충분히 큰 학교도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에 조치를 해서 해줘야 될것 아니냐,
덮어놓고 막기만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대책을 강구 해줘야지 되지, 그러한 예산
조치가 완벽하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
본 것이예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침 : 예산 조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소규모 학교도 근
무해 보고, 대규모 학교도 근무 했습니다마
는 대개 도내 57% 해당 학교가 소규모 학교
입니다.

6학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걱
정이 없습니다.

대규모 학교도 예산을 절약하면 됩니다.

그 줄다리기 줄이라든지.....

○ 감사수 위원 : 그러니까 초등국장 말

씀대로 "찬조금을 안받아도 학교에 금년도
운동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침 : 예.

○ 감사수 위원 : 뭘, 그렇다면 더 염려
할 것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침 : 또, 저는 해
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보충질문을 좀.....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초등교육국에
요?

○ 권혁풍 위원 : 예, 지금 홍국장님께
여러가지 그 교육자치에 내실을 위한 구체
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 홍국장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몸
살을 앓고 있는 이 전교조와 관련된 이러한
사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경향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실상
현장에 가서 들려오는 소리, 혹은 저질로
알아지는 그런 사태를 보면 그렇게는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니냐, 물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마는,
교육자치 1년 동안에 뚜렷하게 보이는 가시
적인 변화를 너무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다마는 이해가 갑니다
마는 학교 현장의 인사문제, 표창이라든가
승진서열 같은 것,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것이 완전히 공개가 돼서 교사들 상호간에 아무런 불평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연 학교에 인사위원회라는게 정말로 조직이 돼서 활성화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는게 정말 조직이 돼 있으며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여쭙어 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학교에 어느만큼 참여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육성회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마는 육성회를 3월달에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육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형 중에 회원은 회원입니다마는 그 간부, 회장이라든가 혹은 총무라든가 하는 그 간부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회피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육성회를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이 좀 잘사는 집 아이의 부모를 한 5-6명 뽑아서 '너희 아버지가 꼭 오셔야 한다'는 강요 비슷한, 이러한 사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자치가 되면서 그런 일은 없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육성회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 학교를 사랑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민참여 의식이 어느정도 됐는가, 육성회를 한 실태로 들어서 '인사위원회' 하고 '육성회' 하고 두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철 : 학교 단위의 인사위원회 조직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있는 데는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6크라스의 학교에 직원이 교장, 교감 둘을 빼면 여섯명입니다.

여섯명이 이 자문위원회 만들고, 또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는가, 전 직원이 같이 오손도손 참여를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학교 단위로 봤을 때 사립학교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일반 공립·국립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승복을 어느정도 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욕구가 다 틀립니다.

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협의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대개 국민학교를 보면 어머니회가 있고, 남자분들 아버지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학년초에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계획 전부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정통신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대부분 학교들이 주민참여를 많이 유도는 하고 있으나 주민 자신이, 학부모님이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실제 학교의 회의에 참여하는 율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 소관 》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럼, 중등교

육국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교원의 미발령자 22명이 있었는데 9월1일자로 12명을 발령을 냈고, 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명은 3월1일자 발령이 될 것으로 알고 또 그 동안에 어떤 결원 보충이 생기게 되면 수시로 발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관계는 금년도에는 하나의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동안에.

그리고 또 김응복 위원님께서도 정식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자세한 것은 말씀 올리기로 하고, 현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공고의 전기과 2코라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양공고는 현재 화공과가 학년당 4코라스, 그 다음에 토목과가 2코라스 해서 6학급 그래서 18학급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기과 2클래스를 증과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8학급에 24학급 규모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단양군내의 수용 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그 안으로써 화공과 4클래스 중에서 2클래스를 줄이고, 전기과를 설치한다고 또 한다면, 이것은 또 국고낭비 문제가 게재됩니다.

화공과 10여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이미 전부 다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그 학급을 줄이고, 또 전기과 설치를 한다면 화공과의 시설은 낭비요인이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화공과 교사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수급상 문제도 있고, 전기과를 설치하는 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교장선생님께서 도저히 단양공고의 전기과 2클래스 증설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봐서, 현상태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소년·소녀가장이 저희들 도내에 지금 숫자는 통계상으로 대충 나온 것은 2백 몇세대가 됩니다.

청주·청원·진천·괴산, 거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백세대가 넘습

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연수 활동,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어린이 재단 측에서 상당수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도청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너무 베푸는 사항이 많아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해서 불평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듣고 했을 적에, 저희들 본청에서 또 전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수련을 시킨다든지 또는 선진지 시찰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적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려는 국민학교 일곱살하고 고등학교 열여덟살, 열아홉살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갓을 적에 거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 재단 이사장으로 부터 듣고해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자생적으로 하는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 이재희 위원 :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BBS라든지 사회복지
과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1박2일 진천야영장에서 1박을 하고 오
전 코스를 밟았는데 그 학생들 소감이 "다
른 데, 독립기념관 이런데는 다 귀찮은데
야영장에서의 생활은 참 즐거웠다" 이겁니
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저도 국민학
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학생
들이 그렇게 혼합이 돼 있었는데 진천야영
장에서 그 송치호 선생님이 한시간 반동안
레크레이션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주
하나가 났습니다.

그 이른날은 헤어지기가 섭섭할 정도이고
애들 여론이 '견학보다는 그런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좋은데 그 맘을 흘리
고 샤워를 하라해도 안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런 애들만 특별히 교육면에서 지도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이렇게 자
비 안들이고 돈을 다른데서 염출하는 것이
면 좀 참여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
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문화답사, 거기에는 학생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 하나의 홍보 자
료로써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주
시내에 대우 재단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한 아파트 98세대를 건축이 완료돼
서, 현재 35세대 8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9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2동을 건축을 해놓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
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모집하느라고 상당
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
· 진천·괴산 여기를 우선 하고 있는데, 거
기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시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98세대가 아직 못채워지
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국하고 시 보사과하고 또 저
희들 본청하고 또 어린이재단하고 그 다음
에 교수 두분들 하고 해서 여섯분이 운영위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
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 전부 갖
추고 있고, 또 거기에는 수시로 기관장님들
이 오후 8시에는 가서서 격려 말씀도 해주
시고, 기념품도 증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98세대를 못 채우고 있는 그
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
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 있으시기
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니까 입

주기간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입주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해서 또 거기에 대우재단 꽃동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신청을 해서 이것을 일단 심사를 받고난 다음 심사에 통과가 되면 입주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아니 입주를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어서 입주시키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동안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무료로.....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무료로 사용하는데 20세가 넘어서 대학까지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에 모든 학자금도 대우재단에서 지급하게 되면서 또 연령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알았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다음에 기획 감사담당관 말씀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입니다.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사관리, 예산집행, 계약업무, 시설공사, 물품관리, 교원연수, 재산관리, 급여관리, 사설학원운영,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공제된 보혐료 지연 납부가 1건 1명이 되었고, 시설 불량 시공이 1건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연수평가시 채점을 잘못된 것이 2건이 있어서 7명에 경고조치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또 학생성적 채점 잘못 1건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설강습소 등록 업무처리시 기준시설 실태 조사를 잘못된 1건에 대해서 1명 경고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는 6건에 대해 14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복무관리가 4건에 9명을 경고

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또 회계 관계에 있어서는 연가보상금을 초과지급해서 1건 1명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부당모금 해서 1건 2명, 그래서 6건에 12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 장중호 위원 :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신분상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상식적으로 제가 추측을 하겠는데,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신분상 조치는 직접 경고를 받음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장중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질문도 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부교육감님이 대략해서 말씀하실 것인가요?

관리국 소관은 관리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책결상 대체 실적과 교실 난방 시설 개선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국·과장님들께서, 또 사무를 취급하는 실무자가 현재 외지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수 위원 : 어려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 관리국장과 시설과장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시설과장이 있어야 답변이 정확히 될텐데.....

○ 행정과장 이상찬 : 이 부진한 사유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 감사수 위원 :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 질문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34쪽을 보면 여기에 엄연히 기록이 돼 있는 비율이라든지 부진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는게 나쁜 것은 아니죠?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 그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감사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이상찬 : 책결상 대체는 전반기에도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그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서 후반기 사업으로 예년에 보면 많은 양이 후반기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7%가 됐고, 후반기에 약 70%이상이 후반기에 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실난방 개선 사업은 이것이 유류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의 방침이, 유류 난방을 할 경우에 유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배시된 교실난방 개선 사업을 이중창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기 때문에 교실 난방 사업에서는 0.5%의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이중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이상찬 : 지금 당초 예산에는 교실난방 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일단 배시된대로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 변경을 해서 이중창 사업으로.....

○ 감사수 위원 : 그러니까 난로를 유류난로로 바꾸는 대신 이중창으로 한다, 이 얘기죠?

○ 행정과장 이상찬 : 예, 그렇습니다.

○ 감사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렵다고.....

○ 행정과장 이상찬 :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서.....

○ 감사수 위원 : 아까 보고할 때에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까먹는 아닌 다음에는 사업이 부진한 것 반듯이 지적 할 것입니다

그러면는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잡고 넘어갈 것 같다면 미리 이것에 대해서 부진이 이러 이러한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해 주셔야 옳지, 이렇게 해놓고서 0.5% 밖에 안됐는데 9월달에는 누가 우리 교육위원들중에서 아무리 거기에 대하여 모르더라도 0.5%밖에 안된데에 대한 의문은 누구든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설명을 하실 때에 실무

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러한 재차 질문이 안나갈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 죄송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 충주공고 학생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8월26일자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그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이 치사됐다 하는 내용으로 그 감독자인 교육감에게 청구금액 1억 2,871만3천원중에서 70%인 8,632만2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저희한테까지 정본이 송달은 안됐습니다.

대략 예정으로 9월8일까지 저희한테 정본이 올 것으로 알고, 그 9월8일에 정본이 온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할 경우하고, 안할 경우하고 저희들이 실익은 어떻고, 문제점은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정본이 오면 저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실익과 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익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에 실익은 우선 공무원으로서 그 가능한 노력과 책무를 다 강구함으로써 그 직무성에 책임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이 상급심으로 갈 경우에 일심보다는 경감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경감된 판결이 나올 경우에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구상권 문제나, 징계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단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만일 일심경우와 똑같이 판결이 나거나, 그보다 더 배상 판결이 높아질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소송 비용과 앞으로의 이자 계산까지 지금 비용보다 훨씬 더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항소를 저희가 하더라도 이 피해자 측에서는 우선 가집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판결금액인 8,632만2천원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천만원 가량은 우리가 우선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실이익은 앞으로 만약에 똑같이 판결이 되거나 항소해서 저희들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예산 지출이 되는데 그것을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추가부담 비율은 덜어지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배상 판결된 8,632만2천원을 가지고 그 피해자 측과 협의를 하면 이 금액보다 좀더 낮게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저희 현재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천만원밖에 없는데 그정도 선이 되었든 또 그 이하 선이 되었든 협의과정에서 절충이 된다면 꼭 이 금액이 아니고도 피해자 측과 협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그 판결문상 지적된

해당공무원, 예를 들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교사, 이분들에 대한 구상권이나 앞으로의 징계문제가 반드시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책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하나의 판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동형의 사건이 났을 경우에 소 제기의 문제가 빈발할 것으로 돼서, 앞으로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업무상 위축이 되고, 또 학교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해자 측과의 별도 구상권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가해측은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구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감독자인 교육감님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 저희들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본이 오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가

지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는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더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교육자치의 내실'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교육자치 바람이 안분다" 하는 이러한 제목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민선하고 하는 정력과 재정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껌데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과연 이 교육자치의 내실이 일선 현장에 골고루 침투 되어서 자치정신이 그대로 구현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현실감 있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집행부서에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교육자치는 학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학생들도 엄연히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학급에도 홈룸(Home room)이 있고, 또 각 학교의 대위원들이 모여서 학생 총회도 하

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룸은 교과 과정에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되느냐,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홈룸 시간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자습시간이 된다는가, 혹은 다른 것으로 변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대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제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마는, 학생 대위원회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결의된 것이 그야말로 얼마큼 실천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의 공개라든가, 재정의 공개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자체의 기구를 보다 철저히 구현을 해서 그야말로 뭔가 "지방자치시대, 교육자치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일선에서 정말 뭔가 뚜렷하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독려하셔서 이것이 완전히 교육자치가 구석구석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이름이 뭐가 됐던간에 물론 소규모 학교는 5-6명 교사가 있고 하지만 큰

학교가 있습니다.

50-60명, 70-80명 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이런데서 모든 불만의 요소중 인사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 갈 수도 있는 것 이지만 좀더 이런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정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불만의 요인들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독려하셔서 이런것들이 "정말 교육자치가 된다"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정의 공개라든가 혹은 수업 방법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서 교사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혹은 긍지를 느끼 가면서 뭔가 보람을 느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교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면 교육자치의 내실이 글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서를 내주신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는데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관리국 소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홍신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신희 위원 : 홍신희입니다.

제가 다섯가지 질문사항을 드렸는데, 하나는 관리국 소관이라서 나머지 내가지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이미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아서 그저 간결하게 유인물로 돼 있는 것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교육원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담당해서 가봐서 여러 가지 느낌도 있고, 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전국에 각 시

도에는 교원연수, 학생 수련을 대부분 별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이 그게 분리가 안되어서 아마 상당히 연수나 학생 수련에 효율을 높이는데 문제를 가져 오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실제 또 단제교육원의 관계관을 만나보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는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그 차원의 어떤 연수담당자하고 학생수련을 담당해야 될 분들하고는 조금 성질이나 다루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동일한 분들이 다 이것 하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세 많은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학생들 뒤 쫓아 다니다 보며는 체력도 모자르고 이런 고충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원연수는 대학등 어떤 특별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분리하고 단제교육원은 학생수련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대학등 그 다른 기관에 교원 연수를 위탁해서 맡겼을 적에 연수 효율을 높이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 하나의 걱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가서는 우리 충청북도도 이젠 학생수련원 하고 교원연수원을 분리해서 설치할 해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성안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서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만

나서 보며는 상당히 연수에 사기가 충천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데 근무하시는 것 보다 사기가 좀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하나의 저의 감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선 근무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처우상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연수기관으로써의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하라고만 독려를 한다고 해서 연수가 잘 되겠느냐, 뭐 제가 그런 감을 느껴서 서두에 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교과전담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잘 들었습니다.

뭐 설립 취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회의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닌데, 뭐 몇 항목 나열을 해놨습시다마는 그 문제점으로 실제 그런 취지에 만들어진 교과전담제가 우리가 탁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 교단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이것이 실시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성패로 갈음하는 그런 평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

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한한 해소를 해가면서 그 부작용을 없애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상당히, 금년 9월부터 과거에는 큰 학교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조그만 규모의 학교까지, 6학급까지로 되어 있는가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장을 할 적에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아까 관리국 업무보고에서도 자꾸 농촌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가 자연히 수반돼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학교가 영세화하고 학급이 영세화되다 보면 복식학급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복식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고, 뭐 그렇다보며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학급 운영 보다는 역시 거기에 임하는 선생님들 어렵고 학생들도 역시 학력에 충족된 학습을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경우 어려운 경지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학생들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세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수업량 증가입니다.

사실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이 큰 도시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주당 담당하는 수업시수하고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부담하는 수업시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과중한 수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충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려는 사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수업량이 과중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이 그 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간다고 하려는 결국 이것은 어떤 공평한 국·공립 학교와의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도적인 것은 결코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추후에 개선 방향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것을 네번째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김응복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대개 터치가 됐습

니다.

체벌문제하고 충주공고 학생 사건 문제는 터지됐는데, 제가 다만 여기에서 체벌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시책을 시달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역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천과정에서 바람직스럽게 교육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체벌 자체를 집행 당국에서 그 실정을 얼마만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만 좀 교육적으로 이 게 조심해 주고, 교육자들이 항상 내가 어느 순간이든 그런 순간마다 교육한다는 생각만 꼭 갖으면 그런 과오를 범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학교에서 청소활동을 봉사활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자체가 어떤 마지못해 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봉사하는 정신을 기른다 해서 그런 명칭으로 하는데, 비근한 예로 국민학교에서 청소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반장이나 누군가 회초리나 작대기를 가지고서 뽐니다 몰아요.

이게 생각해 보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

지만 봉사활동에서 우선 그 막대기 가지고 몰아대고 어찌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뭐가 잘못되고 그럴 것 같으며는 '남아서 청소해!' 하는 식의 청소가 측은한 것, 이것까지도 정신을 써서 해주고, 심지어 체육교사선생님들 체육담당하는 선생님이 여러가지죠, 마스게임 하라든가, 뭐 요즈음은 운동회 같은 것 그렇죠.

한 3개학년 맡아서 마스게임 지도하자면 참 힘들죠.

언제부터 그 연대 기압이 말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연대기압이라는 것 있죠.

그 얼마나 비능률적인 얘기요.

군대야 제 생명을 걸고 참말로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서 이것은 용서할 여지도 없는거예요.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잘못하면 그 놈에 한해서 교육적으로 따끔하게 하면 되지, 왜 하나 둘 때문에 그 반 전체가 운동장을 돌고, 골마루에 꿰어 앉고 하는, 그런 비능률적인 점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또 한가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더라도 처음에는 극히 감정을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입장에서 때리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귀여운 애들 때릴 때에는 처음에는 감정이입입니다.

일단은 미운감정, 여러가지가 괴씸한 감정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이들 잘못을 한다고 체육선생님들 볼 것 같으며는 발길로 그냥 걷어 찼단 말이예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벌 자체야, 자체도 사실 문제이죠.

이런 것 하고, 더군다나 중등에 가서는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고 참 주먹찌나 세고 한데 위험성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충주공고 사건이 더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연관돼 있어요.

아까 자율성 자율성 해서 규율반도 있고, 홈룸(Home room)도 있고 한데, 찬성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실 대화 문화라는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없고, 아이들끼리도 없고, 손님들도 두서너마디면 바로 얼굴 붉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려서 부터 이 체벌, 체벌 받으면 복수심 생기죠.

체벌중에 가장 심한 것, 왜 선생님이 따끔하게 이들을 한번 때리지, 아이들 맞세워 깃불 때리라는 거예요, 서로.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교육자라면 일단은 그것이 한번은 영향이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런 것을 그냥 용서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체벌도 선생님 자체가, 나 그런 사람 봤

어요, 한번.

하루는 6학년 담임선생이 아이들을 체벌하는데 제가 혼내줬어요.

아이들이 쫓아 와요, 저한테 전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체벌을 시키느냐.

아이들 결상을 선생님도 같이 아이들하고 들고서 끌어 앉아 있어요.

이러니 아이들이 감동 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보고 체벌을 주지 말라는 소릴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바라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은 6학년이 4년간을 계속 몸을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시험때에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선생님이 지금 청주에 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이 말았던 제자들이 하두 찾아와서 비좁을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중등학교 선생님들, 그 말이 됩니까?

예전에 우리 서당 다닐때, 종아리 걷고서 조금 따끔하게 또 때려도 괜찮은 일인데 이거 깃불서부터 '새끼'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발길서부터, 충주공고 같이 규율반이라고해서 상급생이 기합주는 것, 아주 요즘 보편화 되고 있어요.

상급생이 하급생을 규율부라고 해서 때리

는 것, 이것을 아마 선생님들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집행 당국에서 조금 그런 실정을 냉정히 아시고서 뭔가 근절 대책을 시군 교육청별로 라든가 혹은 생활지도 선생님 그룹을 만들어서든가 뭔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문화 민족으로, 참 요즘에 우리 아이들 떠돌고 전부 그렇죠 뭐, 타율적으로 전부 감독하고 제재하다가 풀어놓으면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라도 장래를 생각해서 체벌 문제만은 조금 집행부에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다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박병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업무 계획에 뭔가 잘못 됐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롭게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번에 컴퓨터 지도요원을 각 시·군 교육청에 배치하겠다고 요전번에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뒤로 현황은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각급 학교의 컴퓨터 활용도는 그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하나는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소위 주산에서 말하는 7급에서부터 몇단까지 있다 하는 식으로, 학교나 군이나 또는 도단위로 그런 제도도 혹은 마련이 돼 있는지 이런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속에 보면 생활지도에 대한 추진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

요새 사회가 향락주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현실 사회상이나 또는 도내 각급 학교에 학생 탈선 사항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이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 이것은 그동안에 일천합니다마는 그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는 것인가, 있다고 하려는 애로점이 뭔가, 또 예능, 체능, 외국어 과정 이런 과목별로 지도교사가 결원됨으로 해서 실기능력 결손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을 다 감안해 봤을때 이게 상당한 기대속에 개교가 됐고, 추진이 돼 오는데 또 앞으로도 이것이 충실하게 돼 가야 할 것만은 불림이 없는데, 그러나 도 당국

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제도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는 금년에 배치하는 계획을 보니까 2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8명인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금년에 배치되는 양호교사를 다 배치 완료가 된다면 몇 %나 배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내에 양호교사가 다 배치가 되려면, 이것은 어느해에 완료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전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이번 기회에 하라고 해서 미루고 못한 것이 수학능력 고사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에 벌써 네번째 한 것으로 압니다.

네번에 의해서 한 그 수학능력 고사의 결과가 비밀이라서 발표를 못하시는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 결과 처리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동안 해오면서 저희들로서는 과연 이것이 좋은 효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꼭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학능력 고사를 네번씩이나 봤다고 하면 도내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수학능력 고사 문제출제 정도는 어찌면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또 하나는 학생들도 수학능력 고사 출제

경향이나 그에 따른 학습관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 정착돼 가는 것인가.

이것을 해왔어도, 학생들도 무관심,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인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인가 꼭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이제는 돼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가지에 대하여 이것을 실시해온 또 당국에서 스스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미흡한 점은 발견이 됐는지, 미흡한 점이 발견 됐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것은 원 문안에는 3회 했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8월달에 하는 것은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썼는데, 아까 3회는 4회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란에 써여져 있는 것은 그 위에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박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한 10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관리국에 속하는 것

은 다음으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 교육의 현황입니다.

날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어느만큼 환경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 교재는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교과시간은 어느 교과시간을 이용하고 있고, 시간은 얼마나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첫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얼마전에 충청북도 교원단체연합회와 도당국과 교원지위법상의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효과라고 할까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까지 사립학교 교원 교사가 얼마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가, 타 시·도와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교육의 현황, 지금 우리나라에는 방송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 교육에 보탬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에도 소규모 학교가 한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 학교가 대개 정확히 얼마나 있으며, 그 현황과 그 소규모 학교의 특별 커리큘럼(Curriculum)이 개발이 돼 있는가, 즉 복식수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사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 거기에 맞는 어떤 특별 커리큘럼이(Curriculum) 개발이 돼 있을지도 한데 하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 결정을 도단위에서 52%, 교육부에서 42%, 학교에서 6%를 한다는 것을 충북교육 소식에서 들었고,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52%, 42%, 이렇게 정확하게, 6% 이것은 시간을 의미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이런 과제가 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전문직에 대한 연구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사라든가 박사의 논문에도 이런 선행 연구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 어떤 근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기에 과연 이렇게 갈라서 할 것이며, '95년도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월달에 질문을 하다가 못한 것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학생의 증감 현황과 교육공무원 증감 현황, 이것은 인력감사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의 증감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신축적으로 거기에 배정이 되고, 적시 적절한 인원을 갖다가 배치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감사의 답변 서류를 보니까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인력감사가 어느만큼 객관성이 있으며, 신뢰성이 있는가.

듣는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인력감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도 신뢰성이 없다, 자기 들끼리 어떤 기준도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대행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타당한 인력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드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11월달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교단선진화대책 추진도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도에서도 광주같은 데는 교단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아주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경제학자 식스라는 사람이 지적하기를, 우리 동양인들은 선천적으로 창조성이 부족하다, 서구랍파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벌써 타고나기를 동양인들은 창조성 혹은 상상력 연구성 이런 것들이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큼 교육해서는 도저히 서구랍파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항상 서구랍파를 뒤쫓아 가는 후발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에서 어떤 파격적인, 이때까지 있던 우리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를 해서 어떤 교단 선진화 대책이 서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마지막으로 8월달 먼저 회의할 때, 건의사항을 세가지

를 말씀 드렸습니다.

경시대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혹은 학력을 페이퍼테스트 가지고 할 수 없
는 것 아니냐, 눈에 보이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학력, 예를들어 사회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페이퍼테스트로 해서 마치 스포츠
하듯이, 공부도 어떤 게임식으로 해서 점수
를 매겨서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같은 것은 어느정도 실험을 통해서라든가,
혹은 순수한 형식 학문인 수학같은 것은 가
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회과목 같은
것, 혹은 국어과는 말하기·듣기·쓰기인데
이런것을 어떻게 페이퍼테스트로 하며, 국
어과 같은 것은 웅변대회를 시키면 될 텐데
말하기·듣기·쓰기, 또 짓기 대회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국어과, 사회과 까지도 과
연 학력경시대회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
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먼저번에도 이재희 위
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그런 검
토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 휴거, 요즘에 휴거가
가정을 떠나서 막 자살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학생들은 과연 우리 도에 있는가, 없
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수업시간에 수학능력 평
가에 맞는 보충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능력 평가의 본 취지가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을 키우고, 판단력
혹은 종합력 같은 이러한 종래의 암기력 위
주의 모든 학습태도를 버리고 고등정신을
키우자 하는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업을 또 해야되는
것이, 즉 평가와 수업내용, 목표,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
닌가, 즉 목표는 A인데, 내용은 B이고, 평
가는 C다.

그래 A, B, C가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방
법 가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
충수업 이것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제가 보
기에는 보충수업은 두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차원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그 사람만 따로 모아서, 기초학력을 자꾸
반복해서 지도한다든가 해서 완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충수업이 가장 아마
본 취지에 맞는 보충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충수업은

그런 차원이 아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보충수업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규수업시간에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그러한 교육활동을 한 시간을 더 보충을 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그러한 보충수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예를들면, 국어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광수에 대한 얘기를 그 작품이 엄청 많습시다.

그러면 이광수하면 이광수에 작품을 다 정규수업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때 이광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규수업시간에 얘기를 하고 특별히 보충수업을 해서 이광수의 작품을 '흙'이라든가, '돌벼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갖다 놓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명작을 실제 읽혀서 거기에 독후감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보충수업, 이것이 정말 수학능력 평가에 맞는 보충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신문을 이용한다든가, 잡지, 혹은 VTR, 여러가지 교육 자재를 이용해서 수학능력 평가에 맞는, 그런 일치된 보충수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종래와 똑같이 계속해서 교과서 열론 떼어 버리고, 그 다음에 보충교재 문제지를 세번 네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심지어는 수학문제까지도, 정답을 암기하는 이런식의 수업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단의 선진화가 되며, 서양화의 문화를 따

라 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세가지를 건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권혁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먼저, 제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월24일날 여러분이 다 저와같이 깜짝 놀라고 염려했던 단양공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런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단양에는 전교조 관계 선생님들이 도내에서 교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이 집결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교장, 교감들이 교육장을 위시해서, 미력하나마 저도 가세해서 이것을 백방으로 진압을 시키고, 막고 이렇게 오던 중 기어이 지난 8월24일날 그러한 것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단양의 앞날에 교사들의 근무 분위기를 이대로 뒀서는 안되겠다, 뭔가를 청해서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해줘야 하겠다는 염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서를 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사실은 저는 국가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관계를 불법단체로 인정한다면,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단속하고 취재해야 마땅할 것인데,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은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으로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학교장, 교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야말로 우유부단,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장·교감이 정말 고통이만 저만 고통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 교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신규교사가 많고, 경력이 낮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건전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확고한 교사상이라는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불완전한 학교 근무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건전한 의식과 확고한 교사상을 지닌 우

수 교사를 단양군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2번 다시 관련된 것입니다.

"금번 8월말 중순 교장 이동 발령을 보면 단양 관내 6개 중학교중 5개 중학교 교장이 전출하고 그 후임이 대부분 교감에서 교장 승진한 사람이 부임하였는데 진정으로 단양 교육을 위하고, 장래를 염려한 인사발령인가, 거기 단양관내 전교조 활동 양상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는 걸로 제가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 제가 중학교, 6개 중학교에서 한꺼번에 5개 중학교 교장을 이동시키는 그 불가피한 사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6개월 된 분, 2년 된 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서 1년6개월 있던 분은 좀더 한 6개월 더 있도록 하고, 2년 된 분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다면 한꺼번에 다섯사람이나 안움겨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제가 장래에 단양학교 교사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제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그

러한 공고 조교장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야만이 단양이 조용하지, 이번에 한번 선생님 께때기 때렸다는 것, 이것 신문 보도된 대토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입장되면 뺨대기 한차례 아니라 몇번 때려도 때렸을 것입니다.

실제 그 교사의 행동은 학부형들 지금 다 몰라서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중 국가와 사회 영향에 나쁜것은 전부 오려서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심지어는 학생들과 맥주들 같이 먹고, 또 소집일날 나오지도 않고, 이런 근무 자세로 있으니 그 신념있는 조교장선생이 참다 못해서 손을 댔 것입니다.

물론 손댄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라 할 것 같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 교직원들을 통솔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어른인데, 집안에 가솔들이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 뺨대기 때린 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그 분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럴것습니까, 이런 선생을 이대로 뒤서는 안되겠고, 뭔가 각성을 시켜서 이 단양공고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당국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사기를 죽인다든지, 혹은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저는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학생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한 적이 있어서 단양 공고 출신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또 고등학교 간부선생님, 중학교 간부선생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로 단양사회에서는 "단양공고" 하면 역사가 가장 깊고 지금 단양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인물들이 단양공고 출신인데 이 학교가 지금와서 이렇게 한 두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온 물이 더럽힐 수 있느냐, 이것 방지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의를 하고 해서 가카스로 그것은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교장은 장기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기간중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실 저 자신이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꺼번에 다섯명씩 했다는 이 불가피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했겠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고유 권한이 있는데 제가 관여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여론을 받

영시커야 한다는 것도 제 의무로 생각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장래에 단양 교육이 아무 탈 없이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장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서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꼭 하셔야 할 말씀이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장 없습니까?

○ 이상일 위원 : 저는 질문은 없고,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 지금 여러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청에서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집행청의 답변은 9월4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지금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 하시면 동의해 주시고,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이상일위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다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전부 답변을 듣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분야 소관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원래는 안한다는 것 때문에 이상일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개지만 말씀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 국민학교 가을운동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는 몇 %나 진행을 하는가 이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공휴일로 되어있는 추석 다음날 운동회를 한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대단히 참 미안하고 그렇습시다라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추석 다음날 운동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로 개최하는 학교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보다 더 이러한 사정을 알아서 더 많이 들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국교사의 노령화 방지 대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 교사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장기 근속된 선생님이 타군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먼저번의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너무 노령화 돼서 너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단양의 경우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말씀 갑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합하여 열 대여섯분 되는데 거의가 60세 이상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물색하려해도 썩 어려운 그런 학교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이런 것이 잘 인사 수급 조절이 되었으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평이 좀 나쁘고 품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군내에서만 이동시키고, 장기근속자를 타군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군간 교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를 신규 교사로 더 메꿔주고, 이렇게 하려는 더 젊어지고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조금 상반관계가 되는데, 장기 근속자 우대, 고령자 우대라고 해서 지금 일선에서 우대 조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자기의 담임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 선생인가, 할아버지 선생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선생이 걸렸을 적에는 학부모도 그렇고 그 담당 아동도 썩 좋아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아가야지만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교조와 전교추 관계가 전교조의 후신같은 전교추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내용적으로 서명만 되어 있어서 어느때 어떻게 이것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들이 있고,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들의 활동을 아주 강화한다는 그런 풍설이 일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감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시군 교육청에 일반직이 인사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담당 일반직이 계장급 급수라고 하면 당연히 계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답변 하실 때에는 "보조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급수가 문제가 됩니다.

계장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계장으로서의 대우가 되어야 겠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원이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마는 일선에 교감이라든가 일반 선생님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시도에도 우리 충북에서 도입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타시도에도 도입을 할 텐데 타시도에는 어저께 서울에서 의장, 부의장 모였을 적에 제가 이것을 타시도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봤을적에 타시도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의 인·허가 관계, 동업종에 거리 관계 또는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월1일부터 모든 학원 개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부교재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부교재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업자와의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한해서는 그 대입 수학능력 평가에 의해서 대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보조적인 학습 부교재 같은 재료는 뭐가 있는지, 학교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부교재가 나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2학년도 지금 3학년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종전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대학 입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2학년은 수학능력 평가제에 의해서 대학입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금년도 '92년도 대학시험을 보는 사람이, 거기도 많은 학생이 불합격이 돼서 또 재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수학능력 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 재수하는 학원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와 같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조정 발언이 있었고, 우리 전 위원들께서 오늘은 질문을 그치고 이 답변은 내일 듣는 방법으로 하자고 결의해주셔서 오늘은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제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 주요업무 추진 현황 : 별첨 2.

○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 별첨 3.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4일 (금요일) 10시 0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기타 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2. 정부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계획"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조정된 바대로 교육위

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이 기타 협의사항에 있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0시 01분)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답변을 다 듣고서 보충질문에 가서는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홍신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실태
와 문제점"입니다.

내용은 법정 정원수와 증치교사 배치기준,
효과; 문제점, 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법정 정원수와 현원문제는 전체 국민학교
312개 학교중 배치할 수 있는 학교는 131개
학교입니다.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내에 증치교사 수는 341명입니다.

현재 정원을 받은 것이 218명입니다.

그러면 법정 정원 341명의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6일자 교육법시행령 37
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국민학교 4, 5,
6학년에 4학급마다 한명씩 준다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정 정원 341명입니
다.

그다음에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있는 218명
은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원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받
은 것이 218명으로서 현재 법정 정원에 미

달된 인원은 123명입니다.

그러면 이 218명을 본도에서 배치한 기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년이상 4학급서 7학급 사이에 1명씩
배치한 학교가 61교 61명, 그 다음에 8학급
에 24학교까지 2명을 배치한 사람이 106명
, 24학급이상 3명 배치해서 51명, 도합 218
명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의 첫째는 교육과정 운영에 질의 향상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
로 보고, 둘째는 학급 담임교사 개개인의
시간수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다는데 효과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두가지입니다.

첫은 이동과 두번째는 기피 현상입니다.

먼저 첫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 교과전담을 한다고 해서 첫은 인사이
동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교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시작을 할때에 교사들의 능력과 희
망과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때는
다소 인사이동이 있었습시다마는 앞으로는
일반교사와 똑같이, 아직 교과전담 교사라
해서 자주 인사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대하는 측면과 하나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격려쪽,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명감을 고취하는 문제'는 학교장이나 주변 모든 선생님들이 학급을 담임하지 않고, 교과전담하는 선생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교과전담하는 교사들은 하나의 과정외에 일환으로써 자기가 특별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행정적으로 다소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는 포상, 또는 전문과정 연수, 해외 연수에 다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을 우대한 것은 60명을 표창하는데 13명을 해서 21.7%로, 그 다음에 해외 연수는 36명 일반교사가 가고 이 전담교사는 7명이 가서 19.4%, 그 다음에 전문과정 연수는 5명이 일반이고 교과전담자가 3명 해서 60%, 이래서 우선 행정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전보시 가산점을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복식학교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복식학급 총 수는 203개 학급이고, 2복식이 191, 3복식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3복식 12개 학교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력결손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와 복식학급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학력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집학력고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고, 어느 측면에서는 다소 나은 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담임선생님들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수업을 합니다.

대개는 아이들이 집에 가도 할일도 없고 선생님도 그렇고 하니깐, 대개 하루종일 퇴근까지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

또 학습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중 측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작은 학교에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행정적으로는 최소한 12학급이 있는 3복식만은 해소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감소추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법, 또 고학년은 본교로 다니는 방법 등등을 강구해서 이 3복식만은 최소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33학급이었던 것이 현재 12학급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지위법상의 단체교섭 내용과 결과", 이것은 교총과 저희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첫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 개선, 두번째는 중등교원 숙직부담 면제, 세번째는 교원휴게실·강의실 설치 문제, 네번째는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차량

유지비 지원, 그러니까 업무용 교통비입니다, 다섯번째는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후 과원시에 공립으로 복채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 개선에서 아까도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과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중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등교원 숙직부담 문제는 차기 교총과 협의시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교원휴게실 문제입니다.

'여교원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것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가끔적 여건이 되면, 여선생님들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나, 이것은 학교형편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연장될 경우, 이때는 18학급이하 규모 학교에 휴게실을 완성한 후에 남, 여별 휴게실및 강의실을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 바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교장 업무용 교통비 지급문제는 '94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사립학교의 폐교·폐과시 과

원 교원들의 국·공립 특채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왔고, 국민학교 경우 운호 국민학교가 폐교됐을 때, 전원을 공립으로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중등도 계속 특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방송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T.V 보유 학급이 7천302개 학급으로서 99.8%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R 카메라 입니다, 386대가 되어서 학교당 비율로 보면 77.9%입니다.

그 다음에 VTR을 보유한 비율은 2천276학급에 설치가 되어서 89.9%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방송실 설치는 학교수 대비입니다, 175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35.4%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중·고를 통합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첫째는 방송시간과 교과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교육방송을 하는 그 시간 교재 내용이 국민학교의 4학년의 어떤 단원을 다룰 때에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육방송이 대개는 일과후에야 됩니다.

다섯시 이후에 방송이 많이 되고 해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이 하나 불편하고.

두번째는 난시청 지역이, 뭐 난시청이라고 해도 전혀 안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볼때는 난시청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은, 영동, 단양 이쪽 지역에 169개 교가 난시청 학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충북과학교육원에서 방송 전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치된 테이프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복사·재활용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 교육청에도 소프트웨어 센터가 있어서, 방송을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내 학교에서 필요시에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려우면 지역별로 지역중심 학교에서 대개 학교단위로 전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다 써도 좋고, 또 여력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방송

시간과 교육과정 매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을 보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번째는 "소규모학교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대책"입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의 개념입니다.

‘어떤 학교를 소규모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6학급이하를 우선 소규모 학교로 봤습니다.

본도 국민학교 312개 학교중에 6학급이 138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5학급이 30, 4학급이 9, 3개 학급을 가진 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6학급이하가 우리 도내 국민학교 312학교중에 179개 학교로서 57%가 소규모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과전담제하고도 관련됩니다마는 이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에 의해서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 받는데 저희 본도는 이 179개 교는 혜택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지도라고 하는 특별시책을 강구, 소규모학교에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소규모학교, 특히 복식수업에 대한 특별 커리큘럼(Curriculum)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식학급이라고 해서 특별 커리큘럼

(Curriculum)은 없습니다.

일반 교육과정 운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교육과정 한시간을 보면, 노작하는 학년이 있으면, 한쪽에는 토의하는 것을 시킵니다.

‘노작과 토의’, 그러면 2학년 아이들이 노작을 하면, 3학년 아이들은 토의하는 학습을 동시에 실시를 해서 복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지도는 예를 들면 미술에 그림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면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다같이 크레파스화를 그리게 하고, 선생님이 여기도 지도하고 저기도 지도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합시다만, 어쨌든 복식학급에 임하는 선생님의 고충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대책" 문제인데, 이 ‘문제점’으로서는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거지요, 6학급 이런데는 담임선생님 밖에 없고, 일반지도 없고, 양호교사도 없고 교과전담제 실시한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더 주는 법적근거도 없고 하는, 인력부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비는 교단경비와 학급당 경비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학급수가 적으니까 자연히 학교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소규모학교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해결방법' 이것은 아까 복식학급 여기서 해결방안을 말씀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교단지원, 교단 선진화를 위한 대책과 그 추진도는?" 하고 권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첫째 저는 '교단 선진화'라고 하는 개념 정의입니다.

선진화라고 하려는 대단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현장의 개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을 전환 시키고자 저희들은 여러번 세미나도 개최했고, 그 세미나의 주는 지식일변도, 강의일변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토의학습을 할 것을 수차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도 개발을 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학습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익혀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아직 그리 크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노작학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방법의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교육방송 문제 말씀을 드려서 교육방송 문제는 생략을 하고, 컴퓨터 보조학습 문제입니다.

CAI라고 해서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민학교는 180개교 57.1%가 활용을 하고, 중학교는 49개교 44.5%, 고등학교는 26개교 36.1%가 이 컴퓨터 CAI 학습을 하고 있어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잘 하려면 선생님들의 의식전환과 선생님들의 자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연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연수 내용은 중복이 되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세번째는 2000년대를 향한 저희들 교육에 방향입니다.

'현재 교실구조와 현재 수업방법으로써 과연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명년도에 충주시내에서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국민학교를 비롯해서 6개교가 소규모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더 심화연구하고 온 도내 국민학교에 확산, 실천함으로써 2000년대에 우리 교실구조, 또 학습방법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교육현장에 더욱 이용을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보통 흔히 아시는 교육 컴퓨터 전산망 설치, 저희는 '컴퓨터 전산망 설치'하면 보통 일상업무 사무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교육자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명년도에 진천교육청을 교육정보센터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해서 교육청에다가 주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선을 이용하고 학교와 연결을 해서 교육청 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킨 내용을 학교에서 키보드만 누르면 자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은 불림없고, 성공이 되고 효과가 좋다, 또 예산도 그리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전 도내 지역 교육청으로도 확산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됨에 따라서 정신이 해이해 집니다, 이 정신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 정신교육 차원에서 두가지를 구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문화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중원문화, 충청문화에 대한 일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하나는, 충북 정신문화에 기둥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구상에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상이 되고 하려는 바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좋은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의 의지로서 21세기를 향한 장기 본도 발전계획입니다.

이미 이것은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충북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참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충북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구상하에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님께서 "단양지역에 경력이 풍부하고 건전한 의식과 확고한 교

사상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좀 많이 보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조치에 따라서 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국민학교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적인 교육청의 시책측면에서는 '단양지역에 교사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두번째는 '신규교사 배치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관리 규정에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단양·제천지역에서 교사가 6년간을 근무하면 그 선생님이 어느 지역을 희망하던지 희망지로 보내주겠다, 다만 희망지로 가서 10년동안 있도록 하겠다, 또 단양·제천에서 7년간 장기근무를 희망했다 하면 그 분이 7년후에 어디를 간다, 청주를 가든 충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8년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14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시책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국민학교 경우 단양지역에 어떻게 교사를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양지역에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에 발령된 총 수는 40명입니다.

40명의 교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중에 경력교사가 33명이고, 신규는 교대 졸업생과 집에 사표내고 놀다가 시험을 봐서 은다소 경력있는 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40명이 간중에 경력자가 33명이므로 82.5%고, 신규라고 하는 분은 7명이니까 9.7%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2학기에 배치 시에는, 특히 단양지역을 고려해서 두사람 밖에 안보냈습니다, 28명 배치하는데 교사 두사람을 단양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7%에 해당이 됩니다.

단양으로 배치한 두사람은 집이 어디인가 하면, 경북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때 중앙선을 타고 다니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해서 두교사를 단양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튿날 운동회하는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 금년에 추석 이튿날, 4일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이튿날 운동회를 개최하는 학교는 90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학교수에 28.6%가 추석 이튿날 합니다.

대개는 농촌지역 학교입니다.

다음에는 '91년도에는 어떤가 봤더니, '91년도에는 86개교로서 26.4%로 다소 증가했습니다마는 미미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옥천지역에 교사의 노령화 방지책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교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 안타까운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왜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옥천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거나, 옥천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어서 타군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타시·군으로 가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두번째는 타도 진출 희망이

전원이 대전입니다.

대전시로 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즘 타도 진출은 동수 교류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진출자가 있어야 교류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오고자 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타도 진출은 막히고, 타시·군 지방자는 없으니까, 자연이 결원이 없게 되어 신규배치를 못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노령화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침체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도 엄색하고 웃도 잘 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좀 외적이나 정신적이나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자신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자기혁신하려고 하는, 자기 연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측면에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 못지 않게 활동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풍토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체육이나 이런 것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체능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3년차 계획으로 청주교육대학에서 연수를 장기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때 육전의 선생님들을 다수 참가하도록 해서, 좀 육전교육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문제와는 또 대조적으로 "장기근속자, 고령자를 우대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우대책은 수차 나가 있습니다.

그 우대책으로는 호칭을 '원로교사'라고 불러주고, 근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당직을 면제해 주고, 수업시간을 줄여준다, 수업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급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은 오전수업하고 단축수업하고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고학년을 맡지 않고 저학년을 맡는 방법 등등해서 어떤 업무경감을 시켜줘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을 좌석배치를 우대해 준다든지, 각종 회의 행사시에 그 선생님을 우대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우대책으로서는 월 3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인사상 우대로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명예퇴직을 예산관계로 해서 희망자 전원 명예퇴직 시키지 못하고 57%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시·군교육청에 일반직 인사담당자 개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수차 질문이 개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감사를 추진중에 있고, 인력감사 후에는 그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일괄답변 듣기전에 초등교육국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들 지금 1문1답을 해주시죠.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아까 그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로는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자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할거냐 이게 사실 과감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그

런 요인입니다.

입시위주 교육의 그 피해, 지식위주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화를 견지 못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라고 볼때 과감한 어떤 그 시책,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봤는데 광주교육청은 우리보다도 조금 규모가 작다고 볼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에서는 '91년도 예산에 3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시범학급을 60개를 만들어서 한 학급에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특별히 아주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니다.

시범학교를 또 4개 학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2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래서 시청각 기계를 시설하고 도서를 확충을 해서 완전한 시범학급과 학교를 만들어서 교단선진화를 견고 있다는 좋은 실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럴때 우리 충청북도에도 좀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해서 어떤 그 기폭제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 조치가 따르지 않는, 그냥 말로만의 개혁은 아무리 해봐야 백년하청 아니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좀 더 과감한 시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초등교육국장 홍영정 :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과감한 시책,

제가 중복이 자꾸되고 해서 생략을 하고 말씀을 안올렸습시다라는 수학능력평가를 해서 고입제도를 개선했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그 정상화를 통해서 전인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문제, 현재 입시위주 교육, 그 지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시책으로 볼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는 여기 언급을 안했습시다라는 저희도 시·군별로 초·중·고 해서 한, 두학교이상이고, 또 학급은 대개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시범학급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지정만하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과가 적다고 하는 참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93년도에는 연구학교에 지원금을 배로 책정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 침묵)

예, 다음은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전교조의 대선을 앞두고 쉰대의 활동을 한다는 풍설에 대하여 전교조와 전교추의 관계, 대선을 계기로 한 투쟁방향,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교조’라 하는 것은 ‘89년 참교육을 내세워 가지고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불법성이 개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불법단체로 인정이 돼서 거기에서 퇴임이 된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천465명이요, 본도는 2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추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교조의 비공개된 현직 조합원, 또 여기에 동조하는 현직교사들, 이분들을 ‘전교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전교추’; 거기에 형식적으로나마 바깥으로 노출된 사람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74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명운동에 가담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74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선을 계기로 한 투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정치적 전환기를 자기들의 투쟁 성과 거양의 적기로 판단해서 총력 투쟁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 하고, 9월 중 국회에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냐, 또는 국회에 청원을 내서 복직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투쟁을,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현직교사의 서명 저지를 설득해 나간다, 그 다음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전교추에 참여를 억제해 나간다, 이런 두가지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4명 서명자중에서 철회 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44명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부교재에 관해서 학교 교육과의 상관관계와 어떻게 학생들이 취급하나, 대입 수학능력평가제와 부교재의 관계는 어

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수업이라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1종도서, 2종도서, 그 다음에 인정도서,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져 있는데, 그것은 교과담당 선생님이 협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도하는 것이 일반교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참고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적에 필요로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절 이 참고서나 이런 것은 학교에는 지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 참고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94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 영역으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는 이것도 검토를 해봤을 적에 이것은 기초학력을 양성 하지 않고서는 그 분야의 해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학능력테스트 평가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의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설학원 인·허가 관계하고, 동 업종의 거리와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지역에는 200m 거리가 되어 있고, 읍지역에는 100m로 거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타도하고 전부다 조사·분석해본 결과 앞으로 본도에서도 이것을 폐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문리계입니다, 문리계는 입시,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은 330㎡입니다, 즉 100평입니다.

100평이상에서 600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학원은 강의실 면적이 198㎡이상 1,320㎡이하로 되어 있고, 기술계는 전자학원, 라디오나 VTR이나 TV나 이런 것은 실습실이 49.5㎡이상, 기자재는 16.5㎡이상, 컴퓨터는 66㎡이상, 컴퓨터는 1인당 1대 꼴로 되어있습니다.

예능계는 미술학원은 실습실이 49.5㎡이상, 가정계는 66㎡이상, 사무계는 66㎡이상, 또 독서실은 열람실 연면적이 132㎡이상 660㎡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하신 각 계열별 시설기준은 종류가 무척 많아서 이것을 제가 답변 말씀 드리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

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김광수 부의장 양해의사 표시)

그러면 각 계열별 시설기준의 모든 자세
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흥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
다.

첫째가 단재교육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입니다.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현황
은 원장을 포함해서 전문직 18명입니다, 거
기에는 장학관 1명, 연구관 3명, 장학사 2
명, 연구사 12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서기관이 1명, 일반직이 6명,
그 다음에 기능직, 별정직 해서 25명, 계
5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연수실적, 즉 계획을 말
씀드리면 학생연수는 2천520명, 교원연수는
천200명, 그래서 총 3천805명을 연수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교원연수와 학생수
련을 병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
눠서 개조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 다음에는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된다, 그 다음에 전문

직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교원및 학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설이 좀 부족하
다,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실, 음악실, 어
학실, 컴퓨터실, 가사실, 실험실 등등 입니
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교원연수를 대학등 전
문기관에 이관하는 계획과 연수효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교원전문 연수기관인 시·도 교원연수원
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앞으로 이 학생
수련원과 교원연수원은 별도로 건립할 것을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에는 이 교양이나 교직분야에는 대
학 교수를 초빙을 해야하고, 현장문제 해결
은 현장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부설 교원연수원에서 현재도 교원대
학이나 충북대학에서 종목에 따라서 단재교
육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은 양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타대학의 유능한 교수 초빙
이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학생수련원과 교원연수원 분리 설치 계획은 아까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번째, "교육원 연수담당자 사기 양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우선 연수담당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저희들 인사규정에 입각해서 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연구수당을 월 6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문직 증원요청을 지금 교육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증원이 된다고 하면, 더 증원을 해서 업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현황과 주당 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전체가 천699명, 사립학교는 천48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번째, 주당 시수는 국·공립은 17.8시간, 사립학교는 20.3시간 이렇게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야간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려는 17.4시간, 그러니까 약 17시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7시간, 16시간이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립학교가 3, 4시간 정도가 조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본도에서도 금년도에 각 사립학교에 한분씩을 증원을 해서 39명을 증원해 올렸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수준에 가면 공립과 사립과의 균형은 유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공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89년도에 국립사대 출신들에 대한 적체를 막기 위해서 일시에 본도에도 530명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공립은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에 발생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체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하달하였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1학기 동안에는 본도에는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한 사안은 한건도 보고받은 일도 없고, 사안이 하나도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요 일전에 보도된, 텔레비전에 나온 그러한 사항은 즉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근거가 없는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학교에 누가, 이렇게 밝혀주십사 하는 것까지도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해서 체벌에 관해서는 어제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초·중·고를 막론하고 여하한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문도 계속적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91년도 2월 13일서부터 생활지도 계획, 그 다음에 교장 회의자료 '91년 4월 13일 교내 폭력근절, 교장 간담회 '91년 5월 10일 체벌엄금, 그 다음에 청주시 교장 회의 '91년 8월 27일 교육애를 통한 교육, 선도강화 중심의 학생지도, 이러한 공문을 시달했고,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92년도 들어와서는 2월 24일날 생활지도 계획을 하달했고, 또 6월 29일날은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또는 2학기를 대비한 그러한 생활지도로서 간부학생과 면담, 불만사항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해서 2차 생활지도 계획서를 발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한 사안이라도 발생되지 않고, 참말로 학생들을 사랑과 친절로서, 교육애로써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을 더 심층분석을 하고 해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뿌리를 뽑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컴퓨터 지도요원을 각 시·군교육청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컴퓨터 활용도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컴퓨터 지도요원 배치현황은 각 시·군교육청에 한분씩 파견교사라고 할까 증치교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분씩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보산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감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컴퓨터 지도교사에 대한 인력을 증강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를 증강시켜서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 정보산업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으리라고 이렇게 내다 봅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컴퓨터 활용도는 국민학교는 4학년은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5학년은 4시간, 그 다음에 6학년은 8시간입니다.

이것은 1년동안에 이렇게 지도하라고 그 교육과정 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 5, 6학년을 2시간, 4시간, 8시간 지도해 가지고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

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으로는.....

그 다음에 중학교는 1, 2학년은 기술이나 가정교과에서 1개단원 12시간으로 교육과정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운영되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농고나 공고도 역시 정보처리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보처리를 선택한 그러한 학교, 또는 직업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에 한해서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배당된 시간만 가지고서는 컴퓨터 교육이 충족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그 분야에 선견지명이 있는 학생이나 가정은 지금 가정에도 설치를 해준 그러한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청주시에 청운중학교는 불과 학생들 천명 가까운 그러한 학생들 입니다마는 컴퓨터를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학생은 40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에 1의 이상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참 바람직한 그러한 좋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은 스스로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컴퓨터 학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생활지도에 대한 추진현황이 없는 이유와 그간의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생활지도 상황의 업무는 보통 이것이 장학의 한 분야로서 평상업무로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업무로 보지 않고 해서 거기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생활지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도에서 '92학년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2월 24일날 시달했고, 또 6월 29일날 또 시달을 했습니다.

또 생활지도 업무추진 내용은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및 고등학교 학생주임회의를 3월 25일날, 3월 27일날 북부·중부·남부로 해서 각각 이렇게 실시를 했고, 또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및 고등

학교 교감 회의를 7월 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생활지도계획 수립추진 내용 확인 점검을 1학기동안에 장학협의시에 고등학교를 4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10개교를 지역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건전한 가치관 정립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또 학교 자체교육에서도 학교장 훈화, 지역인사 초청 교육,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 야영및 학생 수련, 국기훈련, 애절관 운영, 생활관 교육, 행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 고교생 가치관 정립 교육이라고 그래서 6월 25일서부터 3일간 28일까지 충주, 청주, 제천지역 고교생 2천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학생 수련을 통한 가치관 교육은 천440명, 학생회장 직선제 운영및 회의진행법 지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착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는 110개 학교중에서 52개교가 교복을 착용해서 본도는 58.2%입니다.

고등학교는 72개 학교중 45개교가 교복을 착용해서 62.5%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교육 추진, 그 다음에 유해 교육환경과 불량배로부터 학생보호및 학생 비행 예방지도, 간단 간단히 제복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학생 선도 학부모교실 개설 운영, 불량 만화 및 불량 비디오 수거 폐기, 범죄예방 교실 운영, 캠핑 전개, 해외여행 억제 지도, 교통 사고 없애기 운동 적극추진, 교통안전 교육 담당자 임명으로 질서의식 생활화 교육, 등하교 지도, 교육과정및 시간특설 지도, 생활지도 사례집 발간,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생수도 많고, 또 사회에서 보는 눈, 사회에서의 질서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성세대도 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에 대하여 운영의 애로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애로점은 무엇이며, 애능·체육·외국어 등 지도교사 결원으로 인한 실기능력 결손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만한 제도인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수차 보고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념은 말

숨을 생략하고, 중앙고 예술계열입니다.

예술계열에 있어서는 우선 전공별 교원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나 시설이나 교구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 초빙이 좀 곤란합니다.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우수학생 확보가 좀 곤란하다, 무용과는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재교육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앞으로 그 체육고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선수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봤을 적에 역시 체육분야에 대한 영재교육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하는 교사를 초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러시아학과는 러시아학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으나, 그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해서 아마 어느정도 지금 각 대

학에서도 러시아학과를 신설하는 경향이 높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리라 보고, 다국어 외국어에 대한 영재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원어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어학과가 가장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는 수차 말씀을 드려서 현재 우리도나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적에 성공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양호교사 배치는 92년도 증원계획 24명이 차질없이 배치가 가능하며, 도내 100%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는",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 1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6명 해서 24명을 '92년도에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원관계로 인해서 국민학교 초등부만 18명을 증원 확보했고, 중등부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월 30일 현재로는 공립학교 452개교중에서 186개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4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7년도까지 12학급 이상교에 배치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는 100% 배치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임시회의때 미질문 내용
이 있죠?

지금 질문사항 5항까지 왔습니다.

그러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장 김영세 : 그 밑으로는 박병해위원의
임시회 미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시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장 김영세 : 거기서부터는 잠깐 정
회를 하고서, 정회후에 좀 지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속이 돼서 용변시간
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 정회
할테니까, 미질문분 답변 여기서부터 다음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10분간 정회선포
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11시 25분)

○ 의장 김영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날씨 관계로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고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다음 답변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이어서 계속
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학능력고사
관계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
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3
회에 걸쳐서 문제지를 각 학교에 보내서 실
시한 고사결과를 통계적으로 알수 없는지
요?" 배부된 문제지는 학교자체에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은 봤지만
은 통계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
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것
로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처리가 안돼 있어
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교사들 자신이
수학능력고사 문제 출제를 하는데 적응되었
다고 보는지요?" 현재 그 개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
지마는 선생님들의 꾸준한 연수와 연구와

또 수학능력테스트에 대한 계속적인 수련이 있으므로써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트리라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다만 과거에 실시했던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 또는 무답형, 또는 다답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학생들도 수학능력고사 출제경향과 그에 따른 학습관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학부모들도 이해가 되는지?" 현재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서, 또 실험평가를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결과,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이 수학능력테스트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요령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1항, 2항, 3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사의 통합교과적이고, 탈교과서적인 출제기술은 상당기간의 개인이나, 또는 집단연수와 스스로 이 출제기술 연마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관계로 차차 학습관, 학력관의 변화도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일치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강조 말씀드리고, 학부모의 의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연수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8월 25일 중 3학년, 8월 31일 실시했던, 고교 표집고사 결과분석의 방법" 8월 25일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평가는 전체를 한게 아니고, 유층별 그러니까 농촌지역, 오지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2학급씩을 표집을 해서 문항별, 정답율, 평균점, 표준편차, 공인타당도 이런 것을 산출해서 앞으로의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 실시한 수학능력 고교 표집고사는 주립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문항별, 정답율, 개인별 평균점, 표준편차, 공인타당도를 산출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학입시에 평가의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박병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신명중학교 3명, 신흥고등학교 3명으로 과원에 대한 신분보장, 즉 그것이 '92년까지의 사립학교 과원교사 현황과 그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명중학교에 3명, 신흥고등학교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분보장을 한다는 뜻에서 과원

을 현원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기 '95학년도부터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9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교육과정 결정이 도는 52%, 교육부 42%, 학교 6%의 이론적 근거와 그 대비책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을 드릴수 있는 단계는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9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은 공고도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동 필수과목만 교육부에서 편제를 하고 기타는 시·도교육청, 또 학교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앞으로 기간도 있고, 또 정식으로 공포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공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저희들 전문기능을 담당할 교원이나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준

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40만원을 지금 행정과에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를 학력경기대회로 바꿀 수 없는지, 수학경시대회는 모르나 국어, 과학, 사회 등을 읽기, 쓰기, 만들기 등 경기대회로 전환할 필요는?", 그 다음에 세번째가 "영재발굴 취지인데, 교사들의 경쟁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기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적측면, 즉 데이퍼 테스트를 통하는 것은 경시대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또는 기능이나 기술 그런 분야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을 경기 또는 경진대회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현재 본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시대회 종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학력경시대회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지필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대회와 예선대회로서 수학, 과학 경시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경시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경진대회로서는 각종 체육 경기대회, 각종 예능발표대회, 농·공·상 계열의 각종 경기대회, 그 다음에 외국어 구화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응변대회, 백일장, 또는 음악경진대회 등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필검사는 경시대회, 기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은 경기대회라고, 또는 경진대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답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영재발굴 취지인데, 교사들의 경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 폐단을 극소화하도록 해서 각종 경기·경진대회는 발표의 기회를 더욱 확대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었던 그 국·영·수·과학 거기에 대한 경시대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경시대회반을 앞으로는 일절 편성하지 않고, 보충수업시에 능력별 반 편성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도 선생님의 수당은 보충지도 지침에 따른 수당으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으로서 "환경교육의 현황은?", 첫째 교재, 그 다음에 교과, 시간, 내용,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등 실천경험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환경보존 교육의 효과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파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재는 국민학교는 '사람과 환경', 중학교는 '인간과 환경', 고등학교는 '생존과 환경'등 환경처에서 발행되는 교재를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해서 그것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는 중심 지도교과인 과학, 국민학교는 자연입니다.

사회, 기술, 가정 교과 등에서 이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혼화시간, 교장선생님

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증점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또 교과시간을 통해서 그 관련된 교과와 결부를 시켜서 실시 하고 있고,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토론이나, 협의나, 발표나, 현장견학, 애향단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활동으로서는 각종 발표회, 캠페인 참여, 가정과 사회 연계교육, 그러니까 부모교육, 교육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의식 제고, 또 환경문제의 원인 이해, 우리나라 환경오염 문제, 이러한 등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보충수업 운영의 정상화" 해서 신문, 잡지, 명작 등을 읽고 발표, 토론, 비판 등의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보충수업 실시 지침에 따라 희망 학생, 희망 교과만 실시한다, 신문, 잡지, 명작 이런 것은 정상적인 수업시간에서도 그 수업을 다루는 교사의 수업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문제고, 그 정과시간에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수업 시간에 지리라든가, 또는 역사라든가, 또는 국어시간에 국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사실을 읽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토론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한마디로 수

업 방법의 전환에 일종이라고 봐서 다같이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에 대한 지침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희망 학생에 한해서, 희망 교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또 능력별 편성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희망했을 적에, 전교생이 국어, 영어, 수학만 희망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국어, 영어,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각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에 의해서 그 과목에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선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책정을, 배당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과학도 들어가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경제도 들어가고, 이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거 관련 학생에 대한 대책 강구, 시한부 종말론 학생 참여 억제지도 대책" 현재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휴거관련 분야에 접촉하고 있는 학생은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일선학교를 통해서 조

사한 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석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이 나기 때문에 결석생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훈화나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인근 학교간에 정보교환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에 본도 학생들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권혁풍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단양군내 초·중등 학교의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중등분야에 대한 것만 약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등에 있어서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단양군내 오지의 교육열을 높이고, 안정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 제 6조 제3항, 11조 2항 여기를 붙 것 같으면 6조 3항은 승진임용자인 교장, 교감이 벽지 학교, 즉 단산중고, 영춘중학교, 한수중학

교에 4년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배수 범위내에서 승진발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는 단양지역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6년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초등교육국과 마찬가지로 6년 근무시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청주에서 10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대 조치를 했습니다, 제한은 8년으로 되어 있는 데요.

7년이상을 근무할 적에는 청주에서 12년을 근무할 수 있고, 또 8년이상을 근무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14년을 청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적용된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중학교는 30명이 이미 발령이 나 있습니다, 18%에 해당이 됩니다.

단양중학교에 14명, 단성중학교에 4명, 매포중학교에 3명, 단산중학교에 4명, 영춘중학교에 5명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20명으로서 21%, 단양공고에 14명, 단양고등학교에 8명, 이렇게 그 적용을 받아가지고서 희망해서 발령을 낸 선생님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고, 둘째 항목에 대해서 우선 이 답변말씀을 올리기 전에 좀 단양에 중·고등학교 해서 8개 학교인데 금

년 9월 1일자로 8명 승진중에서 다섯분이 단양군으로 배치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8명중에 다섯분이 단양으로 갔다." 하면 우선 '너무 단양을 멸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으실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내에서 1년반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이 두분이 계시고, 2년을 근무하신 교장선생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1년반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좀 근무토록 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1년반 근무를 하신 선생님이, 즉 중원군에 신니중학교로 발령을 받으신 이상희 선생님은 노모 한분이 계시는데, 아주 병환이 극히 심해서 도저히 그 분을 더이상 영춘에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0세이상된 노모에 대한 병간호도 하고, 또 효자 노릇도 한번 돌아갈실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저희들이 1년반이지만 발령을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중학교에 계시는 김현규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건강이 아주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조금 집가까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두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효과와 또 본인의 건강과 이것을 참작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분에 대해서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개가 단양군내에서는 2년 이상을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2년정도면 자기 교향 가까이로 모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섯분이 이동이 됐지만, 그러나 고령자들도 또 현재 그 다섯분 후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가 50대 전후 젊은층으로서 다섯분 전부가 다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단양군내에 가서 또 학교운영에 헌신적으로 땀 그러한 선생님들만 차출해서 단양에 발령을 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보시면 1학기만, 금년도만 지나시면 다섯분이 오신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교조및 교추위 활동양상에 대해서 단양군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해임된 사람이 적성국교

에서 해임된 사람이 최정숙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윤계화 현 전교조 도지부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폐중학교에 김수열, 단양군지회장입니다, 이 해임자 22명중에서 3명이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회 사무실은 단양읍 도전리 시장상가 1동 61호에 있습니다, 전화는 0444에 423국에 1970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추는 어떠냐, 지금 서명자는 53명이고, 각서 제출자는 36명입니다.

미제출자, 현재까지도 미제출한 선생님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가 4교, 중학교가 3교, 고등학교가 2교 해서 9개교에 17명이 분포돼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등교육국에 소관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장충호위원.

○ 장충호 위원 : 지금 나국장님이 말씀하신 두사람, 한분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한분은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고, "전교조 관계 내용을 아시냐" 하는 것을 지금 나국장님이 겉으로 뭐 몇 명이다, 우선 그 몇 명이라는 숫자도 정확하냐, 안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74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중에 43명이 지금 철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숫자가 정확하냐, 안하느냐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명 철회를 했다 해도 안심을 해선 안된다 이거예요.

철회를 하면 정신마저도 전부가 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마치 태양이 아주 뜨겁게 비칠때에는 조금 응달에 피했다가, 구름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식의 철회지 그게 근본적으로 철회가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적에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망심하지 마시고,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교육장,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지만, 현실이

우리들이 앞서서 해야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망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해 나가는 그런 부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 숫자도 사실상은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선에서 조사해서 받은 숫자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교추위', 현직 교사에 대해서는 제 의지를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도내에서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또 교육 동지애로서 가급적이면 품안에 안고 해서, 희생자를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별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그 교추위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11개 지역교육청의 보고, 또 80개 고등학교의 보고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무관심 상태에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 분 보충질문

.....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시대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경시대회는 경기대회나 경진대회와 달라서 지식을 테스트한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능이라든가 이런걸 테스트한다기 보다 지식만 테스트한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과연 국어와 영어를 떼이되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느냐, 국어적인 차원, 혹은 영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재적인 차원에서 경시대회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은 이해가 갑니다.

영재하면 보통사람보다 좀 다른 일종의 비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아주 공부 못하고 I.Q가 낮은 아이도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도 역시 보통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 그런 학생을 찾아낸다, 영재를 찾아낸다 라는 의미에서 지식만 편중해서 한다, 할때 수학이나 과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국어, 영어가 될까, 국어는 웅변대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하기’ 국어의 목적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어를 과연 떼이되 테스트를 해서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가, 국어는 웅변대회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지요, 혹은 짓기대회 잘해서 거기서 영재가 나와야지 떼이되 테스트에서 과연 국어과목에 영재가 나올 수 있는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화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이 영어에 영재지요, 어떻게 시험 몇 번 봐가지고서 그걸 영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재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수학이나 과학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어나 영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일선교사들한테 담당하시는 직접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지방교육자치정신을 정말 내실화 하신다면 현장을 수렴하셔서 ‘교사들의 의견이 정말 어떤가’ 이걸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민주행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첫번째 보충질문이 되겠고, 두번째 질문은 보충수업 관계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보충수업이 오히려 시간을 배가시켜 가지고 한다.”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강력히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즉 학생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자유선택에서 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청 지침,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지역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력이 전혀 마비가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장단 회의에선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하는 건가,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업이 된건가,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가, 물론 일일이 모든 걸 학생과 교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건 힘들다마는 이 보충수업 같은 참으로 참예한 이런 문제는 좀 정밀하게 이런 지방자치 내실화의 정신에 의해서 학생과 교사와 혹은 그 부형의 의견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아마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그렇게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학교에선 되고, 어떤 학교에선 안되는 경향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의 행

정력이 마비되는 상태다." 하는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자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가정이 부유한 학생은 학원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돈이 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부 확일적으로 해서 돈을 오히려 배씩 걷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무리가 되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걷은 보충수업비에 25%가 관리비로 나간다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과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수차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건 제가 우선 경시대회 문제와 경기대회 문제, "국어, 영어는 경기대회에 해당되지 경시대회에서 영재를 발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봤을 적에는, 즉 경시대회 국·영·수에 대한 경시대회는 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하나의 페이퍼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 구화대회, 또는 웅변대회,

또는 미술 그리기대회, 발표대회, 나의 자랑 발표대회, 이런 등등을 다각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국어면 국어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웅변대회에 가서 1등한 사람이 국어에 대해서 수재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기와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분야에 독특한 인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채택하고, 저 방법도 채택하는 것이지, 꼭 웅변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국어에 1등이다, 이렇게 평가는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이것은 도구과목입니다.

모든 교과목의 도구로써 기초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도 그렇고, 대학에 4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기초과목이라 하기 때문에 그 기초과목을 중시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성장시켜서,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세계 인구가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노벨문학상이 나오면 한 사람때문에

우주 40억이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필검사는 명명하기를 그냥 경시대회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과 또는 지적측면 양쪽면을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경진대회, 기능대회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충지도를 하지말아라, 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보충수업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편,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편, 이렇게 양론이 대두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이미 허락한 사항을 저희들 도만이 '하지마시오', '하시오' 이렇게는 지금 단안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보충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것이 민주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모든 것을 집합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청주시내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내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엇그저께 회의를 개최해서 3학년은 지금까지 두시간, 1,2학년은 한시간씩 하던 것을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지금 9월 1일서부터 잡부금, 찬조금 일절 징수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양성시킨다고 하는 것, 또 저 밑에 처져있는 학생들을 보충지도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수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3개년의 교육과정을 능히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시간씩을 더 연장을 해서 한걸로 지금 보도에 나와있습니다.

또 거기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1,2,3학년을 공히 두시간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시교육청에다가 자세히 진상을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자하니, 참 기본정신은 역시 입시위주 교육입니다.

두가지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경시대회도 국어나 영어의 지식을 테스트 해서 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해서, 참 '이름을 날리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런 기본정신이 입시위주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본정신은 그것이고 지금 보충수업 관계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 국어를 잘해가지고 시험점수를 많이 땀다, 이 사람이 훌륭한 시인이 된다, 앞으로 점수를 중학교때 많이따야 나중에 가서 노벨상을 탈수 있다, 또는 소설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소설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노벨작가, 이런 사람을 과연 꼭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 되서 그러는 것이고,

보충수업에 관해서도 그 지침이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하지말라"가 아닙니다, "하지말라, 하라"가 아니라 과연 학생들에게 정말 자유 선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따져 보라는 얘기지요, "하라,말라"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죠,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보충수업 아니라 보다 더한 것도 주민이 원한다면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주민이 원하고, 교사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걸

하는거냐, 아니면 25%를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걸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교육청에서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문제는 앞으로 찬조금, 징수사항 규정에 입각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보충지도를 시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경리부분을 감사할 적에는 저절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수에 의해서 보충지도비가 징수액이 각각 개인별로 전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하는 교과를 실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경리분야를 조사해 보면 저절로 나타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로써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압니다마는, 또 일선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희망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전부 희망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어찌 희망 안받은 학생을 했느냐, 그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서류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확인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더 이상 질문해야 다른 답변이 안나올텐데.....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위원.....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컴퓨터 지도에 관한 문제, 어저께 도내에서는 이 컴퓨터 기능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상도 많이 주고, 이렇게 연내에 한 두번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별로도 컴퓨터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러면 뭔가 제도적인 대회를, 예를 들면 '주산이 7급서부터 몇 단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학교마다 기능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건가, 이런걸 말씀을 드려봤고, 또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는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성 교육이나, 학력제고, 체육이나, 기능 이 세가지가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생활지도에 인간성 교육이 지금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학자나 학부모나 누구나 다 중요시 하게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상 각 학교를 이렇게 보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 아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

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범 학생 표창을 했다는지, 연수교육을 통해서 했다는지, 예방지도를 했다는지, 사례집을 통해서 애들한테 계몽을 했다는지, 다 간접적인 어떤 지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지도에 직접적인 교내나 교외 생활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들한테 그 요령까지 설명을 해줘도 교장이 가서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의 첫째 하나중 큰것이 그 지방에 자기가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 중에는 보충지도를 한다, 자율학습을 한다고, 밤늦게까지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만 한 두분있고 교장이나 교감은 한번도 들여다보지도 안하는데 그런 교장은 있으나마나지 뭐 하는거냐, 극단적으로 이러한 평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 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력제고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직접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데 주력을 두어서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며

는 을 여름방학에도 저희들끼리 본드를 마
시다가 한 방에서 한 너댓명씩, 아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다 죽는건데, 그런데도 몇
군데 나와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 하나 데리고서
그저 몇 일을 돌아 다니고 별짓 다했는데,
그 학부모들은 자기가 자기 집 자식을 잘못
뒤가지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는 안하고 교
장들이 그 동안에 뭐 했길래 우리애들이 이
렇게 됐느냐, 이것 참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마는, 학교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하
려면 생활지도 안되고는 절대로 이게 실력
향상, 보충지도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박병해위원님
께서 두가지 사항 보충질문 하셨는데, 컴퓨
터 교육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예선대회를 하고, 도예선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에 대한 컴퓨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기 때문
에,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열성에 따라서
또 그 학교, 즉 말씀드리면 상업계고등학교
의 정보과를 담당하는 학생들은 정보처리요
원 2급 기능사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서 실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고등학교의 정보처
리과에 학생들은 실기만 패스하면 정보처리

요원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
문에 각자가 혼란을 하고, 또 공부해서 2급
기능사가 대개 도내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속출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
음에 생활지도 문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
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인간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또 학교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각 교장사택이 없는 그러한 학교에
는 지금 관리파트 분야에서 교장사택 건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사택에서, 그
소재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
가 완료되면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아마 사
택에 거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생활지도 잘하라
고 지침을 내보내고, 또 확인을 해서 1년
에 학교 몇 번 방문한다고 해서 일이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
한 교육관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애정이
없이는 참신한 그러한 교육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수
회도 개최하고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
적인 분야와 또 인간교육 분야, 인간관계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툼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위원.

○ 부의장 김광수 :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그 생활지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등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기 보다는, 하나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들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 자율화라고 해가지고서 그 학생들에게 또는 학교단위로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요 근자에 와서 생활지도상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 학생은 무엇인가 자기 학교 특성에 맞게 유니폼을 입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요즘에 와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에 "중학교는 60% 정도, 고등학교는 50% 정도가 지금 현재 도내에 교복을 통일해서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로 볼적에는 그냥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방면이라든가, 학생의 품성이라든가, 교육적인 가치로 봐서 이게 자율적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추세

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적에는 이 교육당국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데는 더 권장해서 보다 더 빨리, 교복으로 전부 통일할 수 있게 할 용의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가 다 자기 학교에 특성에 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는 교모도, 학교의 모자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자까지 쓰고 있는 학교는 혹시 없는지, 이것을 좀 교육당국의 방향을 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교장사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교장은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택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택을 전부 짓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를 "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적에 그 군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리감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택은 있고 해도, 청주에서 통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 생활지도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학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역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또는 그 방학때는 이런 청소년 선도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또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공부를 착실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부모 눈을 피하고, 선생님 눈을 피하고 해서 자기네끼리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셔서,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외생활지도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감사합니다.

교복에 관해서는 저희들 분청이나,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복을 착용하도록 적극

적으로 지금 권장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이라고 하는 것, 또 일종의 제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교복이라고 안하고 제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교육행정마냥, '어느 달까지 교복을 다 입혀라' 이렇게를 못하고 권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적으로 이 제복이라는 것이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학교에 전통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심각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과에서나 지도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교장선생님 모임, 또는 교육자 간담회시마다 생활지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그러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새로운 방향에 입각한 생활지도, 방향을 모색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가지 홍신회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립과 사립의 교원수 천899명, 그것은 학급당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중, 본인이 듣기에 부실한 답변이 되었다는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충수업 문제이고, 사립학교 교원 증원에 관한 문제를 진술할 적에 부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충수업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본문제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충북 교육이 인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충북 교육 목표에 제1항이에요.

그런데 과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시책을 얼마만큼 세웠느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일선에서 과연 사회나 학부모나 사회여론이 우리 충북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교육시책을 얼마 세웠느냐,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하는 학교활동의 내용하고 우리 교육목표하고는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

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꾸 중등교육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소신을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겁니다.

증지를 모아서, 또는 의견을 수렴할 줄 알고, 학부모가 요구하는게 뭐고, 학생들이 원하는게 뭐고, 일선학교 선생님이 원하는게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곧 교육시책으로 반영이 돼야 민주적 교육방법이지,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얘기한게 보충수업 방법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 "자율화를 주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맡겼다.", 보충수업 실시여부에 대한 것은 물론 각 학교에 책임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보충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을 적에는 당연히 교육청은 감독책임이 있지, 어찌하여 책임이 없고 방편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지만 지난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파행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다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충북교육 행정에 책임자인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파행적인 문제가 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파행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청주시내 교장선생님들이 전체 모여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 늘려서 보충수업을 강행하면, 이게 민주화이고, 이게 자율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보충수업은 학생의 욕구와 학부모의 의견이 뭐냐, 또 선생님들의 의견이 뭐냐, 이것을 수렴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방침을 세우고, 또 학교간에 균형을 이루려 한다면 그 다음에 교장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끼꾸로 댔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장회의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각 학교에다가 밀어 넣었고, 또 전부 각 학교에 학생들의 희망서를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실시했다, 그 희망서가 공정하게 됐다고 장담합니까?

그 희망서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장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것이 공정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방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이 그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생활지도 문제만 하더라도 생활지도의 적극적 방법이 왜 채택이 안되느냐 이것을 좀 감안을 하고 교육적인 견해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학교가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나가서 생활지도 할 시간이 없고, 학생들도 학교에 붙잡혀 있는데 무슨 생활지도냐 이렇게 돼요.

또 심지어는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부모나 일부 의견이 뭐라고 그러느냐, 학생들을 자율화시켜서 일찍내보내면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 좀 붙잡아줘야 학생문제가 해결이 된다,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 자기에게 자기 능력을 부여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앞날을 가늠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부여했을 적에 참다운 교육방법이지, 그렇게 붙잡아 놓고 개목살이 채우듯이 붙잡아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자율적인 신장력이며, 이것이 참다운 생활지도 방법이며,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이나, 내 되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자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은 우리 ~~교장~~ 씨는 납득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를 짚어 드리고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수학능력평가라는 그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학교의 대비책이 아니라 일선 ~~학교~~ 교에 보충수

업은 그와는 정반대적인 입시위주의 방법으로 문제지 갖다 답 가르쳐 주는 교육이고, 또는 정과교과서 갖다가 그냥 다뤄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수학능력평가의 방법하고 보충 수업의 실상이 괴리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요, 사회여론이 그렇고 사회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또 소위 주민의 대표라는 교육위원들의 견해도 그런 의견을 안들은 바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또 그런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의 질문이 있으면, 그건 일방적으로 수학능력평가의 의의만 강조하지 거기에서 오는 괴리현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서 한 답변이 있었느냐, 이것을 내 되묻고 싶은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립학교 증원을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그 증원이 공립학교와의 차이점을 내렸는데 내가 중등교육국장님 발언을 듣고서 바로 교직과에 가서 지금 내가 통계조사를 해왔어요.

통계조사를 해온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들어 보세요.

24학급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39명이고,

공립학교는 45명입니다, 24학급 기준을 했을 적에, 그러면 6명이 차이가 나고, 30학급 기준이 되었을 때는 사립학교는 57명이고, 공립학교 65명입니다.

34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립학교는 64명이고, 공립학교는 73명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인원차가 얼마나 하면 11.2%가 차이나요, 11.2%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평균시수가 1시간반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그리고 야간학교가 있는 교원수까지 여기다 갖다 넣었는데, 사립학교에 야간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2개 학교뿐입니다.

일신여고에 또 하나있어서 3개 학교가 야간부가 있는데, 그 야간부에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주간부로 전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만 사립학교에 그 인원이 평균치에 들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건데 야간학급에 선생 수까지도 평균치에 넣어가지고 그 평균치를 줄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다고 할것 같으면 공·사립에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은 아마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더 짚어 드리겠는데,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희망했습니까?

아마도 임의적인 배정에 의해서 간 사람들이지, 사립학교를 희망에 의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러면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서 사립학교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면지, 그 자체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까?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업료 징수방식에 의해서 징수해서 부족분은 인건비만이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덜 냅니까, 교육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두고 세금을 냅니까, 국민으로서 공평한 세금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납세자의 자녀를 희망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강압에 의해서 배정된 그 학교에다가 이러한 불균등한 교육시책을 강요했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건 마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도 나름대로 강구가 돼야하는데, 물론 교육부 핑계를 댈지도 모르지만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비는 소위 교부금으로 해서 일괄총괄 예산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통계숫자까지도 줄여서 답변하고 그 통계숫자가 틀린 이유가 뭐냐, 이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수업을 제가 답변말씀 드렸을 적에 현재의 보충수업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허락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라, 하지마라"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드린 사항이라고 저는 현재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학년도 고교입시에 수학능력테스트를 도입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차차로 자연적으로 보충지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어질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 먼저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킨다, 여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진에도 수학능력테스트를 도입한 것은 보충지도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또 입시위주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보충지도에 대해서는 참말로 이 고등학교의 수학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학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학력을 올

려주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도 희망 교과에 한해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수차 거기에 대한 내용에 지시를 했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는 또 일선대로 애로가 있고 해서, 이번 교육부에서도 단호하게 한 조금이나, 또는 기타 잡부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온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 의장 김영세 : 가만있어요, 거기서 그 문제 다시 짚고 잡시다.

감독책임을 안진단 말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말을 안했는지는 모릅시다마는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짚었는데,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교장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소위 희망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게 꼭 공정했었느냐, 그것을 파악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것을 딱 두마디로 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9월 1일, 2학기에 대한 보충지도는 엇그저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연 각 학교마다 보충지도에 관계되는 학생 희망에 의해서, 희망 교과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건가, 거기에 따르는 징수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도의 방침으로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학교만은 학원을 개방했기 때문에 보충지도를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리고 홍신희위원님께서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의 직원 수하고, 그 다음에 주당시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교직원 수는 학급당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당시수는 우리가 엄밀히 말씀 드리면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학과마다 시수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교과는 20시간을 초과하는 교과도 있고, 어느 교과는 불과 주당 10시간 미만 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현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

도에 국립사대 출신들 적체를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 도에도 530명을 일시에 발령을 낸 관계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 현상을 가져왔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 주당시수는 그런 과목마다 공·사립이 다르지마는 이것을 전체 시간을 선생님들 수로 나뉘었을 적에 이러한 주당시수의 차이가 나왔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학교에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당 한 사람이 3시간내지 4시간 정도에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부가 있는 그러한 학교는, 또 계산을 해보려는 17.3인가 4시간이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사학과 공립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도 사립학교의 시설문제, 내부시설, 외곽시설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마저도 부족액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립학교에 우선 1명씩, 한 학교에 1명씩 39개 사립학교에 39명을 배정한 것도 증원조치를 해준 것도

서서히 연차적으로 공·사립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 한 것 우리가 더 지켜 봅니다.

특히 우리 교육본질에 속하는 수학능력평가 방법, 보충수업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회의가 있을적마다 발언을 하였고, 또 검토를 해보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검토해보라는 건의가 구속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는 반응이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교육적인 소신에 의해서, 교육적인 양심에 의해서 해결할 방법은 좀 더 과감히 개혁을 해주셔야지, 지금 불과 8년 앞에 다음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안이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되겠는가 한번 교육자다운 이러한 양심에 맡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풍위원 위원석에서)

○ 권혁풍 위원 :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마는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경시대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영재 발굴을 위한 경시대회냐, 아니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경시대회냐, 어느 편이냐 볼 때 저는 후자 같습니다. 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이 즉 하신 말씀의 기본에 깔린 것이 입시경쟁입니다.

에디슨이 어려서 어떻게 해서 계란이 깨어져가지고 닭이 되는가를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호기심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 저게 계란이 깨져서 닭이 되는가, 자기 몸속에 계란을 품어가면서 까지도 그 것을 했을 때, 이게 보충수업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시대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애입니다만 에디슨도 학교에서 1등은 커녕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드리게 되면 학교 무용론, 교육 무용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고, 제가 이런 일이 있음에 애를 드는 것은 경시대회건 보충수업이건 학생이 원하느냐 안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에디슨이 그 계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호기심에 가득차 있는 에디슨을 잡다가, 지금처럼 잡다 잡아놓고서 경시대회를

한다든가,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켰다든가, 보충수업을 시켰다고 볼 때 에디슨이 과연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걸 국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노벨상에 어떻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명문대를 나와야 노벨상을 탈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이고, 참 경시대회도 필요한건 해야죠, 학생이 원하는건 해야 됩니다.

학생이 호기심이 가득차서 "이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도 싫어하고 학생도 싫어하는 것을 과연 누구를 위한 경시대회며, 누구를 위한 보충수업입니까, 경시대회 효과가 물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 효과가 더 크냐, 잡음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의 열등감이라든가, 위화감 같은 부작용이 더 크냐, 이걸 저울질을 할줄 알아야지요, 어떤게 더 크냐 그 효과가 더 크냐, 부작용이 더 크냐 이걸 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본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가지 과학문명 기기들 첨단기기라든가, 정보기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참 과학문명이

과연 이런 보충수업 같은걸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학생들에 창의력,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거냐, 길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뒤떨어진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일부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경쟁의식, 일류대학을 가고자 하는 경쟁의식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교육자도 거기에 부채질을 한다든가, 혹은 같이 춤을 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교육위원이라든가, 여기 교육청 단위에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국어하고 영어, 여기까지 다시 경시대회를 재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2. 기타 인건 처리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기타인건 처리 순서입니다.

협의할 내용이나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그러면 본인이 먼저 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 간담회 때에도 거론되었습니 다라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증액이 되어도 미흡한 교육재정이 우리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목적세로 전환되면 130억원이 감액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합의된 입장 표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우리 교육위원 모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모두 찬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의문 내용은 김사수위원장님이 낭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박수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사수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지요.

(김사수위원 사회대로 나옴)

○ 김사수 위원 : 김사수위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의장 김영세 : 모두 찬성의 뜻으로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결의문은 우리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지방교육제정
에 관한 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한 우리 모든
교육위원들의 의견으로 널리 표명코자 합니
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가 개원된지 한돌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1년동안 배우고, 경
험하고, 터득한 충북교육에 대하여 앞으로
도 더욱 내실있는 뒷받침과 발전적인 조언
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
짐하며,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결의문 : 별첨 4.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1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2. 9. 2. - 9. 4.(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 2.(수) 11:00 14:30	※ 개원 1주년 기념식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9. 2. - 9. 4. (3일간)
9. 3.(토)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9. 4.(금) 10:3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기타 안건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1992. 9.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주요업무추진현황

충청북도교육청

목 차

(초 등 교 육 국 소 관) ----- 100

1. '92. 전반기 장학협의
2. 교육전문직 연찬회
3.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연찬회
4.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
5. 여름방학중 충정문화 순회 답사
6. 스승의 날 교원 표창
7. 교원 재교육
8. '92 유·국 교사 공개전형
9. 교원 명예퇴직

(중 등 교 육 국 소 관) ----- 105

1. 교수·학습 방향 모색을 위한 연찬회
2. 장학협의 추진
3. '93 고교 입시제도 개선
4.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
5. 학기중·학원수강 허용
6. 고등학교 제2외국어 특별교실 운영

7. 고교생 수련
8. 검정고시 업무
9. 중등교원 연수
10. 컴퓨터 지원
11. 고교 교육체제 개혁 추진
12. 기능경기 대회
13. 실고 내부시설비 지원
14. 충청북도학생회관 개관
15. 청소년단체 가입 활동 상황
1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17. 제2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개최
18.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19. 양호교사 확보
20. 학교급식
21. 환경정화
22. 양호검직교사 및 학교 보건담당자 연수

(관 리 국 소 관) ----- 121

1.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2. 학교신설
3. 소규모학교 통·폐합
4. 중·고 병설
5. '93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배정
6. '9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 편성
7. 학교 부지 매입
8. 일반시설사업
9.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소 관) ----- 128

1.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2. 교육행정감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 130

1. 지방기능직공무원 등급 조정
2. 교육자치법규 정비
3. 소송수행
4.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총무과 소관) ----- 134

1. 지방공무원 공채

초 등 교 육 국 소 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사 업 명	주진실적	비고
1. '92. 전반기 장학 협의	○ 대 상 : 11개 지역교육청 - 관련학교 : 국 36 개교, 중 32 개교 ○ 시 기 : '92. 4. 22 - 5. 29. ○ 협의반 편성 : 6개반 - 반장 : 초·중등 교육국 각과 과장 - 반원 : 3-4명 (장학관 및 장학사 각과 1명) ○ 주안점 : 자주적·창의적 교육활동 추진사항 - 교수·학습방법 전환 - 교육여건 개선 ○ 기대효과 : -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 학교경영의 민주화 기여 - 현장 교사들의 사기 진작	
2. 교육전문직 연찬회	○ 일 시 : '92. 2. 28(금) 10:00 - 15:00 ○ 장 소 : 본청 강당 ○ 대 상 : 초·중등 교육전문직 207명 ○ 주 제 : 수업 방법전환을 위한 장학활동 - 토의 학습 정착을 위한 장학활동 방안 ○ 기대효과 : -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장학력 제고 - 교육전문직의 역할기대와 사명감 제고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3.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연전회	○ 일 시 : '92. 4. 28 - 5. 11. ○ 장 소 : 청주, 충주, 증평, 영동 ○ 대 상 :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594명 ○ 방 법 : 4개 지역본산 개최, 세미나 형식 ○ 주 제 : 충북교육발전 과제와 추진방향 - 인회중심의 민주 행정 운영 - 학생들의 학력 정착 - 지속적인 교육 개혁 ○ 기대효과 - 학교(원)장의 역할기대와 사명감 고취 - 교육행정 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력 제고	
4.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	○ 기 간 : '92. 3. 1 - ○ 대상학년 : 국민학교 3 - 6학년 ○ 대상교과 : 체육, 음악, 미술, 자연, 실과 ○ 운영방법 및 인원 - 시범학교 1교(괴산동인) : 3명 - 순회지도 및 학교내 전담운영 : 212명 ○ 기대효과 - 학생 : 기능교과 학습의 질 향상 - 교사 : 수업부담의 경감 및 사기 앙양	
5. 여름방학중 중정 문화 순회 답사	○ 기 간 : '92. 7. 20 - 7. 22 (2박3일) ○ 대상 및 인원 : 도내 국민학교 어린이회 임원중 희망하는 어린이 283 명 ○ 방 법 : 3개지역 (북부, 중부, 남부) 순회 답사 코스를 순환 실시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6. 스승의 날 교원 표창	○ 결과처리 : - 답사 감상문쓰기: 우수학생 교육감표창 - 모범대원 교육감 표창 ○ 기대효과 : - 애 형심 및 애국애족의 정신 고취 - 호연지기 및 민주시민 자질 함양 ○ 제1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포상 - 일 시: '92. 5. 15 - 대 상 : 모범교원 및 경로효친 교원 - 인 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문 장</th><th>포 장</th><th>대통령 표 창</th><th>총 리 표 창</th><th>장 관 표 창</th><th>교육감 표 창</th><th>계</th></tr> </thead> <tbody> <tr> <td>초 등</td><td>1</td><td></td><td></td><td>1</td><td>24</td><td>36</td><td>62</td></tr> <tr> <td>중 등</td><td></td><td>1</td><td>1</td><td>1</td><td>27</td><td>44</td><td>74</td></tr> <tr> <td>계</td><td>1</td><td>1</td><td>1</td><td>2</td><td>51</td><td>80</td><td>136</td></tr> </tbody> </table>	구 분	문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교육감 표 창	계	초 등	1			1	24	36	62	중 등		1	1	1	27	44	74	계	1	1	1	2	51	80	136	
	구 분	문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교육감 표 창	계																										
초 등	1			1	24	36	62																											
중 등		1	1	1	27	44	74																											
계	1	1	1	2	51	80	136																											
○ 연공 표창 - 일 시 : '92. 5. 15 - 대 상 : - 장 관 : 교육계근속 초등36년, 중등35년이상 - 교육감 : 교육계근속 30년이상 - 인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장관 표창</th><th>교육감표창</th><th>계</th></tr> </thead> <tbody> <tr> <td>초 등</td><td>163</td><td>129</td><td>292</td></tr> <tr> <td>중 등</td><td>19</td><td>129</td><td>148</td></tr> <tr> <td>계</td><td>182</td><td>258</td><td>440</td></tr> </tbody> </table>	구 분	장관 표창	교육감표창	계	초 등	163	129	292	중 등	19	129	148	계	182	258	440																	
구 분	장관 표창	교육감표창	계																															
초 등	163	129	292																															
중 등	19	129	148																															
계	182	258	440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7. 교원 재교육	○ 유치원 및 국교사 각종연수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특 별 연 수	1	1	5	5	6	6
	자 격 연 수	66	66	152	103	218	169
	- 교 장			33	20	33	20
	-교(원)감	5	5	36		41	5
	-1급 정교사	60	60	80	80	140	140
	-2급 정교사	1	1	3	3	4	4
	일 반 연 수	25	15	1670	1603	1695	1618
	신규교사임용 전 교육	35	35	77	77	112	112
	기 타 연 수	456	317	728	303	1184	620
	해 외 연 수	2	2	52	45	54	47
-시찰연수	2	2	40	33	42	35	
-어학연수			12	12	12	12	
계 (비율%)	585 (76)	436 (75)	2684 (45)	2136 (80)	3269	2572 (79)	
8. '92. 유,국교사 공개전형	○ '92. 유,국교사 공개전형 결과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1부	2부	계	1부	2부	계
	공개채용인원	3	32	35	65	12	77
	6월말임용자	33			43		
	임용대기자수	2			34		
9. 교원 명예퇴직	*.임용대기자는 하반기 전원 임용예정						
	○ 초등교원 명예퇴직 현황						
	구 분	신청자	결정자	수당지급액			
	2월말	17	13	367,727			
	8월말	11	3	84,816			
계 (비율%)	28	16 (57)	452,543				

중 등 교 육 국 소 관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 교수·학습 방향 모색을 위한 연찬회	○ 연찬회 목적 - 교수·학습 방향 전환을 통한 기초 학력 제고 ○ 연찬회 주진 내용 - 일 시 : '92. 6. 19 (금) 09:30 ~ 15:20 -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 참석자 : · 중 학 교 3년 담임 196명 · 고등학교 2년 담임 184명 · 도내 전문직 51명 계 431명 - 주제발표자 : 한국교원대 김정환, 우증욱 교수 ○ 기대효과 - '93 고교 입시 개선 방향의 이해 확산 - '94 대입 수학능력시험 대비 -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2. 장학협의 주진	○ 목 적 -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원 사기 진작 - 학교 운영 쇄신 및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 본도 교육시책의 구현 촉진 ○ '92 전반기 장학협의 주진 내용 - 기 간 : '92. 3. 26 ~ '92. 6. 30 - 실시학교 : · 합동장학 23교 · 확인장학 17교 - 협의중점 : · 합동장학 - 임상적 수업장학 중심 · 확인장학 - 교육계획 추진상황 중심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3. '93 고교 입시 제도개선	○ '92 전반기 장학협의 결과 분석 배부 - 배부시기 : '92. 8. 3 - 배 부 처 : 본청각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도내 국립중·고 ○ 기대효과 -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 학교 경영의 민주화 기여 - 현장 교사들의 사기 진작 - 학교 건의사항 수렴 처리 ○ 목 적 - 문제 해결력, 사고력 중심의 고등정신 능력 평가 - 중학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 정상화 기여 ○ 개선내용 - 연합선발고사에서 수험능력시험으로 개선 - 평가영역 : 언어능력, 수리·탐구능력, 외국어(영어) 능력 평가 - 출제방향 : 가급적 통합 교과적이고, 탐고과 서적 소재 중심으로 5지 선다형 중심의 객관식이며 다답형 또는 무답형 가미 - 작문고사 : 자료제시형	

목

차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3.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47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	93
나) 주요업무추진현황.....	95
다) 각급학교 창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137
라) 결 의 문.....	143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2년 9월 2일 (수요일) 14시 3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회위원외 3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의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의사국장으로 부임한 이근수서기관을 소개하게 되겠는데,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계시던 민병수 의사국장은 우리 교육위원회 개원 이래 산과 요원으로서, 무던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민병수 의사국장께서 중앙도서관장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병수 의사국장님의 이임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민병수,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민병수 의사국장님의 후임으로 본청 총무과장으로 계시던 이근수 국장께서 인사교류가 되었습니다.

이근수 의사국장은 1963년 7월 충청북도 교육국 학교관리과를 시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7년 12월 사무관에 임관되었고, 도교육청의 인사계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거쳐서 금번 9월 1일자로,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의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은 새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집행기관 간부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9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하고, 또 본청 국·과장급의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분 한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민병수 국장은 의장님께서

인사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엄갑도 서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 있다가 단재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부임케 되었습니다.

(단재교육원 총무부장 엄갑도,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공보담당관 정금옥 사무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을 역임하시다가 이번 9월 1일자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금옥,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사무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선택희,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사무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총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 행정과장 이상찬 사무관을 소개해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 재무과장 정현동 사무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있다가 이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무과장 정현동,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이상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판인규칙중개정규칙안을 8월 14일날 공포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회 처리안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2차, 3차 회의에서는 질문과 여기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1. 경과보고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공고 92-9호로 8월 25일 공고하였고, 오늘 집회되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12회에 의결된 의안의 처리	(14시 36분) 2.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 이재회 교육위원의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으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할 내용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개원 1주년이 되며, 또 마침 '92학년도 2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방대한 양으로 지금 질문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부교육감 직속과와 관리국 과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이동된 과장들의 업무과약등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초·중등국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만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9월 하순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잔여 질문을 진행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이재희 교육위원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재희 위원 : 이재희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2년 9월 3일 10시 30분과 9월 4일 10시 30분으로 제1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때 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당초 부교육감, 초·중등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였으나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듯이 간담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부교육감과 초·중등국장으로 변경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이재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희 교육위원외 3인 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은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수, 권혁풍, 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근 수, 권혁풍,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14시 41분)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 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9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중앙도서관장 민병수, 단재 교육원 총무부장 엄갑도. ○ 의사일정(안) : 별첨 1.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9월2일인 어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금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행정

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보고내용은 별첨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각급학교 창조제품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겹쳐서 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14시 00분)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진행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후에 부서별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입니다.

오전에 여러가지 상반기 중에 집행부에서 한 실적을 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학년도 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항에 ‘교육자치의 내실’이라는 그런 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신 여러가지 실적하고 8번에 그 ‘교육자치에 내실’이라는 그런 초점을 한번 놓고서 볼 때, 과연 그동안 하신 일 여러가지 중에서 교육자치에 내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즉, ‘교육자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제 ‘첫 돌맞이’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뭔가 초점이 일선 현장에 교육자치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종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며는 학년초에 내걸은 여덟번째에 교육자치의 내실이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하게 되면 그 교육자
치법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자율성과 전문성·중립성·독자성·
독특성, 이런 것들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그동안 상반기에
한 여러가지 실적과 연관이 되어서 구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보니까 연찬회 계획, 연수회 계획, 수련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역점
을 두셔서 하신 것 같은데, 기타 자율성이
라든가 혹은 독자성이라든가, 독특성, 이런
것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을 했다, 학교 환경
정화를 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느만큼 학
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교장, 교감
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혹은 교사가 자율
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를 그냥 따른 것
뿐이나, 그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문이 나서 묻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

(장충호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장충호 위원 : 저는 두가지만 좀 여
췌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려는 몇 개 고등학교에 기
계과라든지, 전기과라든지, 전산과 이런 과
를 신설한 데가 있고, 다시 추가해서 확충
한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단양공고에
서 '전기과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 하는
건의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
려는 단양공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빠져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단에 '감사결과 처
분 결과'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신분상 조치'
라는 것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복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김응복
위원.

○ 김응복 위원 : 19쪽 중등교원 연수증
기타연수에 '퇴직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
요.

이것이 연수장소가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단재교육원에서 퇴직할 사람을 위로검 해서 아마 하루정도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 교육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계획인지,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 집행기관의 계획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단재교육원에서 퇴직하는 분을 초청해서 위로검 해서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일선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년 퇴임할 사람은 몇일 남지 않았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하는 얘기가 더러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는지, 이런 것들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려는 '퇴직자를 재교육 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이상일 위원

○ 이상일 위원 : 예.

먼저, 중등교육소관에 아까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미발령자가 두분 있다고 그랬는데 중등에서는 지난번에 26명인가 27명이 미발령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발령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까 소송수행 문제로 충주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했고, 충주공고 학생 폭행치사 건으로 8천600만원 배상 판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고 안하고 그냥 지방법원 판결대로 지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 폭행문제, 충주중학교 건도 '90년도에 일어나서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고충을 많이 받고, 학생부모한테 시달리기도 많이 했는데, 학생지도에 있어서 이 체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이재희 위원.

○ 이재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은 집권당의 시녀도 아니고 또 엄연히 교육은 정치의 아주 중립성이 보장돼 있고, 특히나 교육공무원들은 65세까지 정년이 확고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창조제품관리 개선에 따른 그 지시가 하달된 이후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직무 의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니고, 소극적인 경향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국 소관은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교육감님 의지가 어떠한건지 여쭙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 이제 목전에 추계 운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품 관리 개선 방안 지시로 인해서 "일체의 찬조금을 불허한다" 이것이 교장회의에 두번, 세번씩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에 큰 학교가 종전마냥 학급당 얼마씩 학부형에게 걷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허락이 안되겠지만, 대개 이 시골에 분교같은 데는 추계 운동회가 그 마을의 축제로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제천 학전 분교가 있는데, 이곳은 부형들이 해마다 추계 운동회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자모들이 국밥 장사를 하고 경로 잔치도 겸하고 또 다소간 여분이 있으면 분교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에 기증을 해왔는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배시된 운동회비가 기본 13만원, 학급당 만800원해서 한 1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처럼 촌노들이 운동회라고 다 와가지고 작년에 하던 식으로 국밥이나 국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 될텐데, 이것이 지시대로 '주는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묻혀 나

갈 것인지, 이것이 학교에서 권유하지 않는 자발적인 이런 학부형들의 행위라면, 징계 위원회가 우리 자체로 있으니까 혹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훈방이나 경고 조치를 하더라도 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기를 진작해 주시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실 수 없을런지, 그래서 운동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거론이 됐습시다마는 운동회가 지역의 축제가 되자면 대개 출향인들이 귀향하는 추석전후로 하면 좋을텐데, 금년에도 추석 이전에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추석 명절을 이용하는 걸로 권장해 주실 수 없을런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요즘 소풍을 가면 의례히 유치원서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동차 소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도 크고, 위험도도 높으니까, 앞으로 되도록 소풍은 가까운 경관이 좋은 곳으로 권장할 수 없을런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17쪽에 보면 조국 순례 대행진, 국립묘지 참배,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며는 학생회 간부나 국가유공자 자녀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공사 같은데는 개방이 돼 있지만

는 몇 몇 부분에는 조국순래단 국립묘지 참배는 학생회 간부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 국한돼 있는데, 이것을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는 극빈자, 또는 문제아, 이런 사람도 같이 섞어서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소년·소녀 가장하고 여행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더운 날 자연농원에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진천학생야영장의 샤워 시설이 좋은데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은 옷을 벗고 목욕을 안합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라고 해도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안합니다.

이런 것은 집에서 시설도 없거니와 평상시 동료들하고 벗고 목욕하는 습성이 안돼서 그럴 것으로 느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학생들도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또 다른 위원님.....

(김사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장님.

○ 감사수 위원 : 34쪽에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아주 부진한 것의 원인이 무엇이나’하는

것인데 책결상 대체비율이 27% 밖에는 지금 현재 안돼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간 실적이 나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실 난방 개선에 0.5% 밖에는 지금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부금 관계, 찬조금 금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 보겠는데, 우선 문제가 당장 학교에서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운동회가 문제가 되는데, 대개가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시내학교 교장이 수완이 좀 있고 한 데는 천만원 가까이까지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도 한 2백만원 정도 내외가 찬조금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운동회 경비로 다 쓰여지지 않지만, 현재 예산이 운동회 경비로 어느정도 본 예산에 책정돼 있는지, 그 예산 책정된 것만 가지고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지, 만약에 없을 것 같으면 뭔가 예산조치 방법으로 예비비에서 지불을 하든지 뭐 예산 절감을 해서 그 재원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조치를 안취하고 또 돈을 하나도 부형들한테 받지 않아도 계획대로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지, 운동회를 할 적에 학급수에 의해서 몇 학급에, 학생 몇 명에 대한 샘플의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때에는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운동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14시 30분)

《초등교육국 소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관 부서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정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권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자치 내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자치는 외형적인 자치도 중요하다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교육방법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 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학교 현장이 교장 지시 일변도의, 과거같은 학교운영 체제에서 학교 직원회라든가 교무회의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것을 학교 운영에 반영을 해서, 현재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 현장이 상당히 교육자치에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학지도 장학협의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장학지도’라고 해서 장학사들이 또는 장학관이 학교에 나가면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장학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여기서 나간 분들은 그 의견을 최대한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연찬회입니다.

연찬도 행정적 일면을 많이 계획하던 그런 연찬회에서 지금은 자기 연찬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계획된 연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강의일변도의 연찬을 참여식·토론식, 이런 연찬으로 바꿨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문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개행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은 첫째가 인사공개와 재정공개가 있습니다.

'인사공개'는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교장 승진서열을 공개했고, 교감 승진 서열을 공개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개 어느 지역으로 배치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준비하는 그런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의 교내 담임 배정이라든지, 사무분장 문제, 표창내신 문제, 해외 연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공개' 문제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 운영비등 여러가지를 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학교의 시설이나 학습자료 구입하는데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내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과거에는 교장 선생님이 시공자와 같이 상의해서 시설하고 하던 것을, 지금은 해당 선생님들과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시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료를 구입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자료구입비가 얼마인데 뭘 샀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종합하고 토론을 거쳐서 학습 자료를 구입하는 쪽으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급식학교 예를 들으셨습니다.

급식학교를 과거 같으면 도에서 '어느 군, 어느 시, 어느 학교를 금년도에 급식학교로 한다', 이렇게 한 사례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도 도에서 임의로 지정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구학교를
지정한다든가 또 급식학교를 지정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지역 교육청을 거쳐서 여
기서 다시 심사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느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김응복위원님께서 질
문하신 '퇴직자 연수를 도교육청에서 주관
해서 하는 것이냐, 교육부에서 하느냐' 하
는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합
니다.

그래서 인원이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모여서
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한 기에 2박3일동안을 연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하는가?' 대개 건강관
리가 주입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쓸 것인
가?'

그 사례를 들어서 이분이 퇴직후에도 안정
된 건강한 몸으로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다가 '93년에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희 위원님께서 추계 운동
회를 지역 축제로, 상당히 잘 해왔는데 요
즘 금품 징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운동회
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찬조금을 받아야 운동회가 축제 분
위기의 운동회가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차제에 찬조금을 일소시키고 선생님
들이 순수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검소하고
절약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의 축제적인 운동회가 전개돼야 교
육이 민주화 되고, 발전 했다고 지역 주민
들이나 사회로부터 우리 교육계가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제가 알
고 있는 것은 대개 교당 48만원 전후가 됩
니다.

학교 큰 데는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책정된, 여기서 지급되는 예산가지고 운동
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는 상품을 주기도 상
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운
동회는 그 나름으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의 축제 화합의 운동
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조금 절대 엄금에 따라서 어

제, 오늘 우리 도내 모든 학교가 가정통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통신을 각 가정에 전부 발송을 함으로써 "찬조금품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를 널리 홍보도 하고, 새로운 인식을 시켜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추석 이전 운동회 개최하는 학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추석 4일간 연휴입니다마는 추석 이튿날 운동회를 개최해야 하는 학교는 90개교 입니다.

90개교라고 하면 도내 국민학교 315개 학교에 28.6%에 해당됩니다.

작년도에는 26% 였습니다.

그런데 4일간 연휴가 되기 때문에 도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대개 추석전, 금년같으면 8일부터 운동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풍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시달을 했고, 강력히 교육장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 소풍만은 걸어서 가는 도보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보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유적지를 좀 찾아 갔으면 좋겠다, 유적지도 또 뭇하며는 경관이 좋은 곳에 가서 하루라도 좀 바람도 쐬고, 마음도 깨끗하게 갖도록 정서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풍이 되도록,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나 유적지나 이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근교하마는 소풍을 갈만한 장소는 한정이 돼 있고, 학교는 많 습니다.

이래서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의 소풍 날짜, 시기를 대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많은 학교가 일시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소풍이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시기, 날짜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사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회 추진 문제는 소요액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는 중복이 돼서 생략을 하고, 다만 "찬조금을 안받으니까 운동회가 호지부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걱정 하시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는 찬조금을 받은 안받은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확인도 하고,

결과 분석도 하고,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김사수 위원 : 제가 물론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일괄 답변하신
다음에 이렇게.....

○ 김사수 위원 : 지금 들어가실 것 같
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찬조금을 안받아도 운
동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
할게 아니라 현재 학교에 배시된 예산 가지
고 충분히 큰 학교도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에 조치를 해서 해줘야 될것 아니냐,
덜어놓고 막기만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대책을 강구 해줘야지 되지, 그러한 예산
조치가 완벽하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
본 것이예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예산 조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소규모 학교도 근
무해 보고, 대규모 학교도 근무 했습니다마
는 대개 도내 57% 해당 학교가 소규모 학교
입니다.

6학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걱
정이 없습니다.

대규모 학교도 예산을 절약하면 됩니다.

그 줄다리기 줄이라든지.....

○ 김사수 위원 : 그러니까 초등국장 말

씀대로 "찬조금을 안받아도 학교에 금년도
운동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예.

○ 김사수 위원 : 뭐, 그렇다면 더 염려
할 것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또, 저는 해
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혁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보충질문을 좀.....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초등교육국에
요?

○ 권혁풍 위원 : 예, 지금 홍국장님께
여러가지 그 교육자치에 내실을 위한 구체
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 홍국장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몸
살을 앓고 있는 이 전교조와 관련된 이러한
사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경향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실상
현장에 가서 들려오는 소리, 혹은 저절로
알아지는 그런 사태를 보면 그렇게는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니냐, 물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마는,
교육자치 1년 동안에 뚜렷하게 보이는 가시
적인 변화를 너무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다며는 이해가 갑니다
마는 학교 현장의 인사문제, 표창이라든가
승진서열 같은 것,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것이 완전히 공개가 돼서 교사들 상호간에 아무런 불평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과연 학교에 인사위원회라는게 정말로 조직이 돼서 활성화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는게 정말 조직이 돼 있으며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여쭙어 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학교에 어느만큼 참여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육성회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마는 육성회를 3월달에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육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형 중에 회원은 회원입니다마는 그 간부, 회장이라든가 혹은 총무라든가 하는 그 간부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회피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육성회를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이 좀 잘사는 집 아이의 부모를 한 5-6명 뽑아서 '너희 아버지가 꼭 오셔야 한다'는 강요 비슷한, 이러한 사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자치가 되면서 그런 일은 없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육성회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 학교를 사랑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민참여 의식이 어느정도 됐는가, 육성회를 한 실례로 들어서 '인사위원회' 하고 '육성회' 하고 두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학교 단위의 인사위원회 조직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있는 데는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6크라스의 학교에 직원이 교장, 교감 둘을 빼면 여섯 명입니다.

여섯명이 이 자문위원회 만들고, 또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는가, 전 직원이 같이 오손도손 참여를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학교 단위로 봤을 때
사립학교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일반 공립
· 국립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
해서 승복을 어느정도 하느냐, 이것은 개인
의 욕구가 다 틀립니다.

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
은 아무리 협의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될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대개 국민학교를 보면 어머니회가 있고,
남자분들 아버지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
습니다.

이래서 학년초에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
계획 전부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정통신
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
고, 또 실제 대부분 학교들이 주민참여를
많이 유도는 하고 있으나 주민 자신이, 학
부모님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
계를 대서 실제 학교의 회의에 참여하는 율
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 소관 》

○ 의장 직무대행 김광수 : 그럼, 중등교

육국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
교원의 미발령자 22명이 있었는데 9월1일자
로 12명을 발령을 냈고, 현재는 10명이 남
아 있습니다.

그 10명은 3월1일자 발령이 될 것으로 알
고 또 그 동안에 어떤 결원 보충이 생기게
되면 수시로 발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한가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
벌관계는 금년도에는 하나의 사건도 발생되
지 않았습니니다, 일하기 동안에.

그리고 또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정식 질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자세한
것은 말씀 올리기로 하고, 현재 어떠한 명
목으로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공고의 전기과 2코라스를 요청을 했는
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양공고는 현재 화공과가 학년당 4코라
스, 그 다음에 토목과가 2코라스 해서 6학
급 그래서 18학급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거기에도 전기과 2클래스를 증과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8학급에 24학급 규모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단양군내의 수용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그 안으로써 화공과 4클래스 중에서 2클래스를 줄이고, 전기과를 설치한다고 또 한다면, 이것은 또 국고낭비 문제가 게재됩니다.

화공과 10여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이미 전부 다 갖춰놨습니다.

그것을 그 학급을 줄이고, 또 전기과 설치를 한다면 화공과의 시설은 낭비요인이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화공과 교사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수급상 문제도 있고, 전기과를 설치하는 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교장선생님께서 도저히 단양공고의 전기과 2클래스 증설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봐서, 현상태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소년·소녀가장이 저희들 도내에 지금 숫자는 통계상으로 대충 나온 것은 2백 몇세대가 됩니다.

청주·청원·진천·괴산, 거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백세대가 넘습

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연수 활동,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어린이 재단 측에서 상당수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도청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너무 베푸는 사항이 많아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해서 불평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듣고 했을 적에, 저희들 본청에서 또 전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수련을 시킨다든지 또는 선진지 시찰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적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려는 국민학교 일곱살하고 고등학교 열여덟살, 열아홉살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갔을 적에 거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 재단 이사장으로 부터 듣고 해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 이재희 위원 :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BBS라든지 사회복지
과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1박2일 진천야영장에서 1박을 하고 오
전 코스를 밟았는데 그 학생들 소감이 "다
른 데, 독립기념관 이런데는 다 귀찮은데
야영장에서의 생활은 참 즐거웠다" 이겁니
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저도 국민학
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학생
들이 그렇게 혼합이 돼 있었는데 진천야영
장에서 그 송치호 선생님이 한시간 반동안
레크레이션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주
하나가 났습니다.

그 이튿날은 헤어지기가 섭섭할 정도이고
애들 여론이 '견학보다는 그런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좋은데 그 맘을 흘리
고 샤워를 하라해도 안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런 애들만 특별히 교육면에서 지도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이렇게 자
비 안들이고 돈을 다른데서 엄출하는 것이
면 좀 참여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
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충청문화답사, 거기에는 학생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 하나의 홍보 자
료로써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주
시내에 대우 재단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한 아파트 98세대를 건축이 완료돼
서, 현재 35세대 8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9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2동을 건축을 해놓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
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모집하느라고 상당
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
· 진천·괴산 여기를 우선 하고 있는데, 거
기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시 운영위원회
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98세대가 아직 못채워지
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국하고 시 보사과하고 또 저
희들 본청하고 또 어린이재단하고 그 다음
에 교수 두분들 하고 해서 여섯분이 운영위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
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 전부 갖
추고 있고, 또 거기에는 수시로 기관장님들
이 오후 8시에는 가서서 격려 말씀도 해주
시고, 기념품도 증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98세대를 못 채우고 있는 그
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
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 있으시기
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니까 입

주기간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입주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해서 또 거기에 대우재단 꽃동산이라고 하
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신청을 해서 이것을 일단 심사
를 받고난 다음 심사에 통과가 되면 입주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아니 입주를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어서 입
주시키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거
기에 얼마동안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에 입주
할 수 있는 것은 만 20세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무료로.....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무료로 사용
하는 것이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무료로
사용하는데 20세가 넘어서 대학까지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에 모든 학자금도 대우재단에
서 지급하게 되면서 또 연령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알았습니
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다음에 기획
감사담당관 말씀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기획감사담
당관 신태희입니다.

장충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사관
리, 예산집행, 계약업무, 시설공사, 물품관
리, 교원연수, 재산관리, 급여관리, 사설학
원운영,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를 보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공제된 보
험료 지연 납부가 1건 1명이 되었고, 시설
불량 시공이 1건 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연수평가시 채점을 잘못된 것이 2건이 있
어서 7명에 경고조치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
다.

또 학생성적 채점 잘못 1건에 대해서 3명
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설강습소 등록 업무처리시 기준시설 실
태 조사를 잘못된 1건에 대해서 1명 경고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는 6건에 대해 14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복무관리가 4건에 9명을 경고

조치 했습니다.

내용은 근무지 이탈입니다.

또 회계 관계에 있어서는 연가보상금을 초과지급해서 1건 1명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부당모금 해서 1건 2명, 그래서 6건에 12명을 경고조치 했습니다.

○ 장중호 위원 :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신분상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상식적으로 제가 추측을 하겠는데,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 예, 신분상 조치는 직접 경고를 받음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장중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질문도 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부교육감님이 대략해서 말씀하실 것인가요?

관리국 소관은 관리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결상 대체 실적과 교실 난방 시설 개선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국·과장님들께서, 또 사무를 취급하는 실무자가 현재 외지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수 위원 : 어려운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박동기 : 관리국장과 시설과장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시설과장이 있어야 답변이 정확히 될텐데.....

○ 행정과장 이상찬 : 이 부진한 사유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 감사수 위원 :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 질문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34쪽을 보면 여기에 엄연히 기록이 돼 있는 비율이라든지 부진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는게 나쁜 것은 아니죠?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 그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감사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 행정과장 이상찬 : 책결상 대체는 전반기에도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그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서 후반기 사업으로 예년에 보면 많은 양이 후반기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7%가 됐고, 후반기에 약 70%이상이 후반기에 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실난방 개선 사업은 이것이 유류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의 방침이, 유류 난방을 할 경우에 유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배시된 교실난방 개선 사업을 이중창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기 때문에 교실 난방 사업에서는 0.5%의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이중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이상찬 : 지금 당초 예산에는 교실난방 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일단 배시된대로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 변경을 해서 이중창 사업으로.....

○ 감사수 위원 : 그러니까 난로를 유류난로로 바꾸는 대신 이중창으로 한다, 이 얘기죠?

○ 행정과장 이상찬 : 예, 그렇습니다.

○ 감사수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렵다고.....

○ 행정과장 이상찬 :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서.....

○ 감사수 위원 : 아까 보고할 때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까막눈 아닌 다음에는 사업이 부진한 것 반듯이 지적 할 것입니다

그러면는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집고 넘어갈 것 같다하면 미리 이것에 대해서 부진이 이러 이러 한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해 주셔야 옳지, 이렇게 해놓고서 0.5% 밖에 안됐는데 9월달에는 누가 우리 교육위원들중에서 아무리 거기에 대하여 모르더라도 0.5%밖에 안된데에 대한 의문은 누구든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은 설명을 하실 때에 실무

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러한 제차 질문이 안나갈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 죄송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 충주공고 학생 폭행 치사 사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하여,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8월26일자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그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이 치사됐다 하는 내용으로 그 감독자인 교육감에게 청구금액 1억 2,871만3천원중에서 70%인 8,632만2천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저희한테까지 정본이 송달은 안됐습니다.

대략 예정으로 9월8일까지 저희한테 정본이 올 것으로 알고, 그 9월8일에 정본이 온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할 경우하고, 안할 경우하고 저희들이 실익은 어떻고, 문제점은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정본이 오면 저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실익과 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익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에 실익은 우선 공무원으로서 그 가능한 노력과 책무를 다 강구함으로써 그 직무성에 책임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이 상급심으로 갈 경우에 일심보다는 경감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경감된 판결이 나올 경우에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구상권 문제나, 징계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단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만일 일심경우와 똑같이 판결이 나거나, 그보다 더 배상 판결이 높아질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소송 비용과 앞으로의 이자 계산까지 지금 비용보다 훨씬 더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한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항소를 저희가 하더라도 이 피해자 측에서는 우선 가집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판결금액인 8,632만2천원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천만원 가량은 우리가 우선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실이익은 앞으로 만약에 똑같이 판결이 되거나 항소해서 저희들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예산 지출이 되는데 그것을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추가부담 비율은 덜어지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배상 판결된 8,632만2천원을 가지고 그 피해자 측과 협의를 하면 이 금액보다 좀더 낮게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저희 현재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천만원밖에 없는데 그정도 선이 되었든 또 그 이하 선이 되었든 협의과정에서 절충이 된다면 꼭 이 금액이 아니고도 피해자 측과 협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그 판결문상 지적된

해당공무원, 예를 들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교사, 이분들에 대한 구상권이나 앞으로의 징계문제가 반드시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책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하나의 판례를 남김으로해서 앞으로 동형의 사건이 났을 경우에 소 제기의 문제가 빈발할 것으로 돼서, 앞으로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업무상 위축이 되고, 또 학교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해자 측과의 별도 구상권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가해측은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구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감독자인 교육감님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 저희들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본이 오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가

지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는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더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교육자치의 내실'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교육자치 바람이 안분다" 하는 이러한 제목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을 민선하고 하는 정력과 재정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접데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과연 이 교육자치의 내실이 일선 현장에 골고루 침투되어서 자치정신이 그대로 구현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현실감 있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서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교육자치는 학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학생들도 엄연히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학급에도 홈룸(Home room)이 있고, 또 각 학교의 대위원들이 모여서 학생 총회도 하

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룸은 교과 과정에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말 활성화 되느냐,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홈룸 시간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자습시간이 된단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변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대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제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마는, 학생 대위원회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결의된 것이 그야말로 얼마큼 실천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의 공개라든가, 재정 공개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자체의 기구를 보다 철저히 구현을 해서 그야말로 뭔가 "지방자치시대, 교육자치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일선에서 정말 뭔가 뚜렷하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독려하셔서 이것이 완전히 교육자치가 구석구석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이름이 뭐가 됐던간에 물론 소규모 학교는 5-6명 교사가 있고 하지만 큰

학교가 있습니다.

50-60명, 70-80명 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이런데서 모든 불만의 요소중 인사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좀더 이런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정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불만의 요인들이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독려하셔서 이런것들이 "정말 교육자치가 된다"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정의 공개라든가 혹은 수업 방법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서 교사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혹은 긍지를 느끼가면서 뭔가 보람을 느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교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면 교육자치의 내실이 글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서를 내주신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는데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관리국 소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홍신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신희 위원 : 홍신희입니다.

제가 다섯가지 질문사항을 드렸는데, 하나는 관리국 소관이라서 나머지 내가지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로 이미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아서 그저 간결하게 유인물로 돼 있는 것을 요약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담당해서 가봐서 여러가지 느낌도 있고, 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전국에 각 시

도에는 교원연수, 학생 수련을 대부분 별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이 그게 분리가 안되어서 아마 상당히 연수나 학생 수련에 효율을 높이는 데 문제를 가져 오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실제 또 단재교육원의 관계관을 만나보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는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그 차원의 어떤 연수담당자하고 학생수련을 담당해야 될 분들하고는 조금 성질이나 다루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동일한 분들이 다 이것 하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세 많은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학생들 뒤 쫓아 다니다 보며는 체력도 모자르고 이런 고충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원연수는 대학등 어떤 특별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분리하고 단재교육원은 학생수련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대학등 그 다른 기관에 교원 연수를 위탁해서 맡겼을 적에 연수 효율을 높이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 하나의 걱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가서는 우리 충청북도도 이젠 학생수련원 하고 교원연수원을 분리해서 설치할 해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성안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서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만

나서 보며는 상당히 연수에 사기가 충천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데 근무하시는 것 보다 사기가 좀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하나의 저의 감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선 근무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처우상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연수기관으로써의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하라고만 독려를 한다고 해서 연수가 잘 되겠느냐, 뭐 제가 그런 감을 느껴서 서두에 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교과전담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잘 들었습니다.

뭐 설립 취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회의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닌데, 뭐 몇 항목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으로 실제 그런 취지에 만들어진 교과전담제가 우리가 탁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 교단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이것이 실시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성패로 같음하는 그런 평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

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한한 해소를 해가면서 그 부작용을 없애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상당히, 금년 9월부터 과거에는 큰 학교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조그만 규모의 학교까지, 6학급까지로 되어 있는가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장을 할 적에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아까 관리국 업무보고에서도 자주 농촌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가 자연히 수반돼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학교가 영세화하고 학급이 영세화되다 보면 복식학급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복식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고, 뭐 그렇다보며는 정상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학급 운영 보다는 역시 거기에 임하는 선생님들 어렵고 학생들도 역시 학력에 충족된 학습을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경우 어려운 경지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학생들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세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수업량 증가입니다.

사실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이 큰 도시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주당 담당하는 수업시수하고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부담하는 수업시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과중한 수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충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려는 사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수업량이 과중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그 학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간다고 하려는 결국 이것은 어떤 공평한 국·공립 학교와의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학생들이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도적인 것은 결코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추후에 개선 방향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것을 네번째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김응복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대개 터치가 됐습

니다.

체벌문제하고 충주공고 학생 사건 문제는 터치됐는데, 제가 다만 여기에서 체벌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시책을 시달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역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천과정에서 바람직스럽게 교육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체벌 자체를 집행 당국에서 그 실정을 얼마만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만 좀 교육적으로 이 계 조심해 주고, 교육자들이 항상 내가 어느 순간이든 그런 순간마다 교육한다는 생각만 꼭 갖으면 그런 과오를 범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학교에서 청소활동을 봉사활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 자체가 어떤 마지못해 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봉사하는 정신을 기르다 해서 그런 명칭으로 하는데, 비근한 예로 국민학교에서 청소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반장이나 누군가 희초리나 작대기를 가지고서 몸니다 몰아요.

이게 생각해 보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

지만 봉사활동에서 우선 그 막대기 가지고 몰아대고 어찌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뭐가 잘못되고 그럴 것 같으려는 '남아서 청소해!' 하는 식의 청소가 축은한 것, 이것까지도 정신을 써서 해주고, 심지어 체육교사선생님들 체육담당하는 선생님이 여러가지죠, 마스게임 하라든가, 뭐 요즘은 운동회 같은 것 그렇죠.

한 3개학년 맡아서 마스게임 지도하자면 참 힘들죠.

언제부터 그 연대 기압이 말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연대기압이라는 것 있죠.

그 얼마나 비능률적인 얘기요.

군대야 제 생명을 걸고 참말로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서 이것은 용서할 여지도 없는거예요.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잘못하면 그 늪에 한해서 교육적으로 따끔하게 하면 되지, 왜 하나 둘 때문에 그 반 전체가 운동장을 돌고, 골마루에 꿰어 앉고 하는, 그런 비능률적인 점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또 한가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더라도 처음에는 극히 감정을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입장에서 때리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귀여운 애들 때릴 때에는 처음에는 감정이입입니다.

일단은 미운감정, 여러가지가 괴씸한 감정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이들 잘못을 한다고 체육선생님들 볼 것 같으며는 발길로 그냥 걷어 찼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벌 자체야, 자체도 사실 문제이죠.

이런 것 하고, 더군다나 증등에 가서는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고 참 주먹찌나 세고 한데 위험성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충주공고 사건이 더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연관돼 있어요.

아까 자율성 자율성 해서 규율반도 있고, 홈룸(Home room)도 있고 한데, 찬성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실 대화 문화라는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없고, 아이들끼리도 없고, 손님들도 두서너마디면 바로 얼굴 붉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어려서 부터 이 체벌, 체벌 받으면 복수심 생기죠.

체벌중에 가장 심한 것, 왜 선생님이 따끔하게 이들을 한번 때리지, 아이들 맞세워 깃볼 때리라는 거예요, 서로.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교육자라면 일단은 그것이 한번은 영향이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런 것을 그냥 용서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체벌도 선생님 자체가, 나 그런 사람 봤

어요, 한번.

하루는 6학년 담임선생이 아이들을 체벌하는데 제가 혼내줬어요.

아이들이 쫓아 와요, 저한테 전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체벌을 시키느냐.

아이들 걸상을 선생님도 같이 아이들하고 들고서 꿇어 앉아 있어요.

이러니 아이들이 감동 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보고 체벌을 주지 마라는 소릴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바라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은 6학년이 4년간을 계속 몸을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시험때에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선생님이 지금 청주에 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이 말았던 제자들이 하두 찾아와서 비좁을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중등학교 선생님들, 그 말이 됩니까?

예전에 우리 서당 다닐때, 종아리 걷고서 조금 따끔하게 또 때려도 괜찮은 일인데 이거 깃볼서부터 '새끼'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발길서부터, 충주공고 같이 규율반이라고해서 상급생이 기합주는 것, 아주 요즘 보편화 되고 있어요.

상급생이 하급생을 규율부라고 해서 때리

는 것, 이것을 아마 선생님들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집행 당국에서 조금 그런 실정을 냉정히 아시고서 뭔가 근절 대책을 시군 교육청별로 라든가 혹은 생활지도선생님 그룹을 만들어서든가 뭔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문화 민족으로, 참 요즘에 우리 아이들 떠돌고 전부 그렇죠 뭐, 타율적으로 전부 감독하고 제재하다가 풀어놓으면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라도 장래를 생각해서 체벌 문제만은 조금 집행부에서 심각히 생각하셔서 다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박병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업무 계획에 뭔가 잘못 됐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롭게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번에 컴퓨터 지도요원을 각 시·군 교육청에 배치하겠다고 요전번에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뒤로 현황은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각급 학교의 컴퓨터 활용도는 그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 하나는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소위 주산에서 말하는 7급에서부터 몇단까지 있다 하는 식으로, 학교나 군이나 또는 도단위로 그런 제도도 혹은 마련이 돼 있는지 이런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속에 보면 생활지도에 대한 추진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

요새 사회가 향락주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현실 사회상이나 또는 도내 각급 학교에 학생 탈선 사항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이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 이것은 그동안에 일천합니다마는 그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는 것인가, 있다고 하거나 애로점이 뭔가, 또 예능, 체능, 외국어 과정 이런 과목별로 지도교사가 결원됨으로 해서 실기능력 결손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을 다 감안해 봤을때 이게 상당한 기대속에 개교가 됐고, 추진이 돼 있는데 또 앞으로 이 것이 충실하게 돼 가야 할 것만은 불림이 없는데, 그러나 도 당국

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제도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는 금년에 배치하는 계획을 보니까 24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8명인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금년에 배치되는 양호교사를 다 배치 완료가 된다면 몇 %나 배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내에 양호교사가 다 배치가 되려면, 이것은 어느해에 완료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요전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이번 기회에 하라고 해서 미루고 못한 것이 수학능력 고사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에 벌써 네번째 한 것으로 압니다.

네번에 의해서 한 그 수학능력 고사의 결과가 비밀이라서 발표를 못하시는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 결과 처리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동안 해오면서 저희들로서는 과연 이것이 좋은 효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꼭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학능력 고사를 네번씩이나 봤다고 하면 도내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수학능력 고사 문제출제 정도는 어찌면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응이 돼 가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또 하나는 학생들도 수학능력 고사 출제

경향이나 그에 따른 학습관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 정착돼 가는 것인가.

이것을 해왔어도, 학생들도 무관심,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인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인가 꼭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이제는 돼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가지에 대하여 이것을 실시해온 또 당국에서 스스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미흡한 점은 발견이 됐는지, 미흡한 점이 발견 됐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것은 원 문안에는 3회 했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8월달에 하는 것은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썼는데, 아까 3회는 4회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란에 식여져 있는 것은 그 위에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예, 박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한 10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관리국에 속하는 것

은 다음으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 교육의 현황입니다.

날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어느만큼 환경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 교재는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교과시간은 어느 교과시간을 이용하고 있고, 시간은 얼마나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첫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얼마전에 충청북도 교원단체연합회와 도당국과 교원지위법상의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효과라고 할까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남니다.

그 다음에는 '82년도까지 사립학교 과원 교사가 얼마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가, 타 시·도와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교육의 현황, 지금 우리나라에는 방송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 교육에 보탬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에도 소규모 학교가 한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 학교가 대개 정확히 얼마나 있으며, 그 현황과 그 소규모 학교의 특별 커리큘럼(Curriculum)이 개발이 돼 있는가, 즉 복식수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사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 거기에 맞는 어떤 특별 커리큘럼이(Curriculum) 개발이 돼 있을듯도 한데 하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 결정을 도단위에서 52%, 교육부에서 42%, 학교에서 6%를 한다는 것을 충북교육소식에서 들었고,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52%, 42%, 이렇게 정확하게, 6% 이것은 시간을 의미한 것이겠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이런 과제가 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전문직에 대한 연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사라든가 박사의 논문에도 이런 선행 연구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 어떤 근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기에 과연 이렇게 갈라서 할 것이며, '95년도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월달에 질문을 하다가 못한 것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학생의 증감 현황과 교육공무원 증감 현황, 이것은 인력감사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의 증감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신축적으로 거기에 배정이 되고, 적시 적절한 인원을 갖다가 배치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감사의 답변 서류를 보니까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인력감사가 어느만큼 객관성이 있으며, 신뢰성이 있는가.

듣는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인력감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도 신뢰성이 없다, 자기 들끼리 어떤 기준도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대행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타당한 인력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드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11월달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을 드리봅니다.

그 다음에는 교단선진화대책 추진도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도에서도 광주같은 데는 교단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아주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경제학자 식스라는 사람이 지적하기를, 우리 동양인들은 선천적으로 창조성이 부족하다, 서구랍파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벌써 타고나기를 동양인들은 창조성 혹은 상상력 연구성 이런 것들이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큼 교육해서는 도저히 서구랍파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항상 서구랍파를 뒤쫓아 가는 후발국가들 면치 못할 것이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에서 어떤 파격적인, 이때까지 있던 우리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를 해서 어떤 교단 선진화 대책이 서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마지막으로 8월달 먼저 회의할 때, 건의사항을 세가지

를 말씀 드렸습니다.

경시대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혹은 학력을 페이퍼테스트 가지고 할 수 없
는 것 아니냐, 눈에 보이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학력, 예를들어 사회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페이퍼테스트로 해서 마치 스포츠
하듯이, 공부도 어떤 게임식으로 해서 점수
를 매겨서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같은 것은 어느정도 실험을 통해서라든가,
혹은 순수한 형식 학문인 수학같은 것은 가
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회과목 같은
것, 혹은 국어과는 말하기·듣기·쓰기인데
이런것을 어떻게 페이퍼테스트로 하며, 국
어과 같은 것은 웅변대회를 시키면 될 텐데
말하기·듣기·쓰기, 또 짓기 대회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국어과, 사회과 까지도 과
연 학력경시대회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
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먼저번에도 이재희위
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그런 검
토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 휴거, 요즘에 휴거가
가정을 떠나서 막 자살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학생들은 과연 우리 도에 있는가, 없
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충수업시간에 수학능력 평
가에 맞는 보충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능력 평가의 본 취지가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을 키우고, 판단력
혹은 종합력 같은 이러한 종래의 암기력 위
주의 모든 학습태도를 버리고 고등정신을
키우자 하는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업을 또 해야되는
것이, 즉 평가와 수업내용, 목표,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
닌가, 즉 목표는 A인데, 내용은 B이고, 평
가는 C다.

그래 A, B, C가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방
법 가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
충수업 이것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제가 보
기에는 보충수업은 두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차원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그 사람만 따로 모아서, 기초학력을 자꾸
반복해서 지도한다든가 해서 완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충수업이 가장 아마
본 취지에 맞는 보충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충수업은

그런 차원이 아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보충수업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규수업시간에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그러한 교육활동을 한 시간을 더 보충을 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그러한 보충수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예를들면, 국어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광수에 대한 얘기를 그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광수하면 이광수에 작품을 다 정규수업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때 이광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규수업시간에 얘기를 하고 특별히 보충수업을 해서 이광수의 작품을 '흙'이라든가, '돌벼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갖다 놓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명작을 실제 읽혀서 거기에 독후감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보충수업, 이것이 정말 수학능력 평가에 맞는 보충수업이 아닌가.

그래서 신문을 이용한다든가, 잡지, 혹은 VTR, 여러가지 교육 자재를 이용해서 수학능력 평가에 맞는, 그런 일치된 보충수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종래와 똑같이 계속해서 교과서 열론 떼어 버리고, 그 다음에 보충교재 문제지를 세번 네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심지어는 수학문제까지도 정답을 암기하는 이런식의 수업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단의 선진화가 되며, 서양화의 문화를 따

라 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서 세가지를 건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권혁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먼저, 제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월24일날 여러분이 다 저와같이 깜짝 놀라고 염려했던 단양공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런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단양에는 전교조 관계 선생님들이 도내에서 교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이 집결돼 있는 곳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현재 교장, 교감들이 교육장을 위시해서, 미력하나마 저도 가세해서 이것을 백방으로 진압을 시키고, 막고 이렇게 오던 중 기어이 지난 8월24일날 그러한 것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단양의 앞날에 교사들의 근무 분위기를 이대로 뒹구는 안되겠다, 뭔가를 청해서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해줘야 하겠다는 염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서를 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사실은 저는 국가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관계를 불법단체로 인정한다면,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단속하고 취
제해야 마땅할 것인데,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은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으로다 끝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학교장, 교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야말로 우유부단, 이러
게 함으로 해서 학교장·교감이 정말 고통
이만 저만 고통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 교감의 고통을 조금이
라도 더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
서를 낸 것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새롭게 하
기 위해서 일단 제가 낭독을 하고, 그 다음
에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신
규교사가 많고, 경력이 낮은 교사로 구성돼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건전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확고한 교사상이라는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발생되고 있
는 문제가 있고, 또 불완전한 학교 근무 분
위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풍부하
고 건전한 의식과 확고한 교사상을 지닌 우

수 교사를 단양군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요?"

그 다음에 2번 다시 관련된 것입니다.

"금번 8월말 중순 교장 이동 발령을 보면
단양 관내 6개 중학교중 5개 중학교 교장이
전출하고 그 후임이 대부분 교감에서 교장
승진한 사람이 부임하였는데 진정으로 단양
교육을 위하고, 장래를 염려한 인사발령인
가, 거기 단양관내 전교조 활동 양상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는 걸로 제가 질문요지
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 제가 중학교, 6개 중학교에
서 한꺼번에 5개 중학교 교장을 이동시키는
그 불가피한 사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
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6개월 된 분, 2년 된
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서 1년6개월
있던 분은 좀더 한 6개월 더 있도록 하고,
2년 된 분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다면 한
꺼번에 다섯사람이나 안옮겨도 되지 않았을
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제가 장래에 단양학교 교
사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좀더 심
도있게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제
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그

러한 공고 조교장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야만이 단양이 조용하지, 이번에 한번 선생님 꺾때기 때렸다는 것, 이것 신문 보도된 대토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입장되면 뺨대기 한차례 아니라 몇번 때려도 때렸을 것입니다.

실제 그 교사의 행동은 학부형들 지금 다 몰라서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중 국가와 사회 영향에 나쁜것은 전부 오려서 학생들한테 주시시키고 심지어는 학생들과 맥주를 같이 먹고, 또 소집일날 나오지도 않고, 이런 근무 자세로 있으니 그 신념있는 조교장선생이 참다 못해서 손을 댔 것입니다.

물론 손댄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라 할 것 같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 교직원들을 통솔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어른인데, 집안에 가솔들이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 뺨대기 때린 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그 분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이런 선생을 이대로 뒀서는 안되겠고, 뭔가 각성을 시켜서 이 단양공고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당국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사기를 죽인다는지, 혹은 인사조치를 한다는지 하면 절대로 저는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 학생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한 적이 있어서 단양 공고 출신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또 고등학교 간부선생님, 중학교 간부선생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로 단양사회에서는 "단양공고" 하면 역사가 가장 깊고 지금 단양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인물들이 단양공고 출신인데 이 학교가 지금와서 이렇게 한 두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온 물이 더럽힐 수 있느냐, 이것 방치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의를 하고 해서 가카스로 그것은 무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교장은 장기 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연수기간중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실 저 자신이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꺼번에 다섯명씩 했다는 이 불가피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했겠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고유 권한이 있는데 제가 관여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여론을 받

영시켜야 한다는 것도 제 의무로 생각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장래에 단양 교육이 아무 탈 없이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장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서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꼭 하셔야 할 말씀이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장님 없습니까 ?

○ 이상일 위원 : 저는 질문은 없고,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예,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 지금 여러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청에서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집행청의 답변은 9월4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지금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 하시면 동의해 주시고,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이상일위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다들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전부 답변을 듣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분야 소관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원래는 안한다는 것 때문에 이상일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양해해 주시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 국민학교 가을운동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는 몇 %나 진행을 하는가 이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공휴일로 되어있는 추석 다음날 운동회를 한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대단히 참 미안하고 그렇습시다마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추석 다음날 운동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로 개최하는 학교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보다 더 이러한 사정을 알아서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국교사의 노령화 방지 대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 교사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장기 근속된 선생님이 타군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먼저번의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너무 노령화 돼서 너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단양의 경우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말씀 갑습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할하여 열 대여섯분 되는데 거의가 60세 이상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물색하려해도 꼭 어려운 그런 학교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이런 것이 잘 인사 수급 조절이 되었으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평이 좀 나쁘고 품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군내에서만 이동시키고, 장기근속자를 타군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군간 교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를 신규 교사로 더 메꿔주고, 이렇게 하려는 더 젊어지고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조금 상반관계가 되는데, 장기 근속자 우대, 고령자 우대라고 해서 지금 일선에서 우대 조치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자기의 담임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 선생인가, 할아버지 선생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선생이 걸렸을 적에는 학부모도 그렇고 그 담당 아동도 꼭 좋아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아가야지만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교조와 전교추 관계가 전교조의 후신같은 전교추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내용적으로 서명만 되어 있어서 어느때 어떻게 이것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들이 있고,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들의 활동을 아주 강화한다는 그런 풍설이 일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감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시군 교육청에 일반직이 인사담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담당 일반직이 계장급 급수라고 하면 당연히 계장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답변 하실 때에는 "보조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급수가 문제가 됩니다.

계장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계장으로서의 대우가 되어야 겠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원이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마는 일선에 교감이라든가 일반 선생님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시도에도 우리 충북에서 도입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타시도에도 도입을 할 텐데 타시도에는 어저께 서울에서 의장, 부의장 모였을 적에 제가 이것을 타시도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봤을적에 타시도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설학원의 인·허가 관계, 동업종에 거리 관계 또는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월1일부터 모든 학원 개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부교재가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부교재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업자와의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한해서는 그 대입 수학능력 평가에 의해서 대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보조적인 학습 부교재 같은 재료는 뭐가 있는지, 학교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것을 뒷받침 해주는 부교재가 나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2학년도 지금 3학년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은 종전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대학 입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2학년은 수학능력 평가제에 의해서 대학입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금년도 '92년도 대학시험을 보는 사람이, 거기도 많은 학생이 불합격이 돼서 또 재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수학능력 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 재수하는 학원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와 같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조정 발언이 있었고, 우리 전 위원들께서 오늘은 질문을 그치고 이 답변은 내일 듣는 방법으로 하자고 결의해주셔서 오늘은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1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제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 주요업무 추진 현황 : 별첨 2.

○ 각급학교 잔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 별첨 3.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9월 4일 (금요일) 10시 00분

의 사 일 정(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기타 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2. 정부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계획"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조정된 바대로 교육위

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이 기타 협의사항에 있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0시 01분)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답변을 다 듣고서 보충질문에 가서는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홍신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실태
와 문제점"입니다.

내용은 법정 정원수와 증치교사 배치기준,
효과, 문제점, 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법정 정원수와 현원문제는 전체 국민학교
312개 학교중 배치할 수 있는 학교는 131개
학교입니다.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내에 증치교사 수는 341명입니다.

현재 정원을 받은 것이 218명입니다.

그러면 법정 정원 341명의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6일자 교육법시행령 37
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국민학교 4, 5,
6학년에 4학급마다 한명씩 준다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정 정원 341명입니
다.

그다음에 현재 정원을 가지고 있는 218명
은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원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받
은 것이 218명으로서 현재 법정 정원에 미

달된 인원은 123명입니다.

그러면 이 218명을 본도에서 배치한 기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년이상 4학급서 7학급 사이에 1명씩
배치한 학교가 61교 61명, 그 다음에 8학급
에 24학교까지 2명을 배치한 사람이 106명
, 24학급이상 3명 배치해서 51명, 도합 218
명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의 첫째는 교육과정 운영에 질의 향상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
로 보고, 둘째는 학급 담임교사 개개인의
시간수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다는데 효과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두가지입니다.

작은 이동과 두번째는 기피 현상입니다.

먼저 작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 교과전담을 한다고 해서 작은 인사이
동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교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시작을 할때에 교사들의 능력과 희
망과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때는
다소 인사이동이 있었습시다마는 앞으로는
일반교사와 똑같이, 아직 교과전담 교사라
해서 자주 인사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대하는 측면과 하나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격려쪽,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명감을 고취하는 문제'는 학교장이나 주변 모든 선생님들이 학급을 담임하지 않고, 교과전담하는 선생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교과전담하는 교사들은 하나의 과정외에 일환으로써 자기가 특별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행정적으로 다소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는 포상, 또는 전문과정 연수, 해외 연수에 다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상을 우대한 것은 60명을 포상하는데 13명을 해서 21.7%로, 그 다음에 해외 연수는 36명 일반교사가 가고 이 전담교사는 7명이 가서 19.4%, 그 다음에 전문과정 연수는 5명이 일반이고 교과전담자가 3명 해서 60%, 이래서 우선 행정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전보시 가산점을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복식학교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복식학급 총 수는 203개 학급이고, 2복식이 191, 3복식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3복식 12개 학교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력결손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와 복식학급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학력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집학력고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고, 어느 측면에서는 다소 나은 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담임선생님들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수업을 합니다.

대개는 아이들이 집에 가도 할일도 없고 선생님도 그렇고 하니깐, 대개 하루종일 퇴근까지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

또 학습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중 측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작은 학교에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행정적으로는 최소한 12학급이 있는 3복식만은 해소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감소추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소규모 학교를 병폐합하는 방법, 또 고학년은 본교로 다니는 방법 등등을 강구해서 이 3복식만은 최소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33학급이었던 것이 현재 12학급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지위법상의 단체교섭 내용과 결과", 이것은 교총과 저희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내용은 첫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 개선, 두번째는 중등교원 숙직부담 면제, 세번째는 교원휴게실·강의실 설치 문제, 네번째는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차량

유지비 지원, 그러니까 업무용 교통비입니다, 다섯번째는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후 과원시에 공립으로 특채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 개선에서 아까도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과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중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등교원 숙직부담 문제는 차기 교총과 협의시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교원휴게실 문제입니다.

'여교원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것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급적 여건이 되면, 여선생님들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나, 이것은 학교형편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연장될 경우, 이때는 18학급이하 규모 학교에 휴게실을 완성한 후에 남, 여별 휴게실 및 강의실을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를 본 바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교장 업무용 교통비 지급문제는 '94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사립학교의 폐교·폐과시 과

원 교원들의 국·공립 특채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왔고, 국민학교 경우 운호 국민학교가 폐교됐을 때, 전원을 공립으로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중등도 계속 특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방송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T.V 보유 학급이 7천302개 학급으로서 99.8%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R 카메라 입니다, 386대가 되어서 학교당 비율로 보면 77.9%입니다.

그 다음에 VTR을 보유한 비율은 2천276학급에 설치가 되어서 89.9%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방송실 설치는 학교수 대비입니다, 175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35.4%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중·고를 통합한 프로테이지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첫째는 방송시간과 교과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교육방송을 하는 그 시간 교재 내용이 국민학교의 4학년의 어떤 단원을 다룰 때에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육방송이 대개는 일과후에야 됩니다.

다섯시 이후에 방송이 많이 되고 해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불편하고.

두번째는 난시청 지역이, 뭐 난시청이라고 해도 전혀 안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볼 때는 난시청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은, 영동, 단양 이쪽 지역에 169개 교가 난시청 학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충북과학교육원에서 방송 전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치된 테이프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복사·재활용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 교육청에도 소프트웨어 센터가 있어서, 방송을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내 학교에서 필요시에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어려우면 지역별로 지역중심 학교에서 대개 학교단위로 전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다 써도 좋고, 또 여력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방송

시간과 교육과정 매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을 보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세번째는 "소규모학교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대책"입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의 개념입니다.

'어떤 학교를 소규모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6학급이하를 우선 소규모 학교로 봤습니다.

본도 국민학교 312개 학교중에 6학급이 138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5학급이 30, 4학급이 9, 3개 학급을 가진 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6학급이하가 우리 도내 국민학교 312학교중에 179개 학교로서 57%가 소규모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과전담제하고도 관련됩니다마는 이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에 의해서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 받는데 저희 본도는 이 179개 교는 혜택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지도라고 하는 특별시책을 강구, 소규모학교에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소규모학교, 특히 복식수업에 대한 특별 커리큘럼(Curriculum)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식학급이라고 해서 특별 커리큘럼

(Curriculum)은 없습니다.

일반 교육과정 운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교육과정 한시간을 보면, 노작하는 학년이 있으면, 한쪽에는 토의하는 것을 시킵니다.

'노작과 토의', 그러면 2학년 아이들이 노작을 하면, 3학년 아이들은 토의하는 학습을 동시에 실시를 해서 복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지도는 예를 들면 미술에 그림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면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다같이 크레파스화를 그리게 하고, 선생님이 여기도 지도하고 저기도 지도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합니다만, 어떻든 복식학급에 임하는 선생님의 고충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대책" 문제인데, 이 '문제점'으로서는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거지요, 6학급 이런데는 담임선생님 밖에 없고, 일반지도 없고, 양호교사도 없고 교과전담제 실시한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더 주는 법적근거도 없고 하는, 인력부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비는 교단경비와 학급당 경비로 나뉘져 있기 때문에 학급수가 적으니까 자연히 학교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소규모 학교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해결방법' 이것은 아까 복식학급 여기서 해결방안을 말씀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교단지원, 교단 선진화를 위한 대책과 그 추진도는?" 하고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첫째 저는 '교단 선진화'라고 하는 개념 정의입니다.

선진화라고 하려는 대단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현장의 개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을 전환 시키고자 저희들은 여러번 세미나도 개최했고, 그 세미나의 주제는 지식일변도, 강의일변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토의학습을 할 것을 수차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도 개발을 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학습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익혀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아직 그리 크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노작학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방법의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교육방송 문제 말씀을 드려서 교육방송 문제는 생략을 하고, 컴퓨터 보조학습 문제입니다.

CAI라고 해서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민학교는 180개교 57.1%가 활용을 하고, 중학교는 49개교 44.5%, 고등학교는 26개교 36.1%가 이 컴퓨터 CAI 학습을 하고 있어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잘 하려면 선생님들의 의식전환과 선생님들의 자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연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연수 내용은 중복이 되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세번째는 2000년대를 향한 저희들 교육에 방향입니다.

'현재 교실구조와 현재 수업방법으로써 과연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명년도에 충주시내에서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국민학교를 비롯해서 6개교가 소규모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 지정을 하고, 그 내용을 더 심화연구하고 온 도내 국민학교에 확산, 실천함으로써 2000년대에 우리 교실구조, 또 학습방법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교육현장에 더욱 이용을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보통 흔히 아시는 교육 컴퓨터 전산망 설치, 저희는 '컴퓨터 전산망 설치'하면 보통 일상업무 사무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교육자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명년도에 진천교육청을 교육정보센터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주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전화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선을 이용하고 학교와 연결을 해서 교육청 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킨 내용을 학교에서 키보드만 누르면 자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은 틀림없고, 성공이 되고 효과가 좋다, 또 예산도 그리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전 도내 지역 교육청으로도 확산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됨에 따라서 정신이 해이해 집니다, 이 정신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 정신교육 차원에서 두가지를 구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문화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증원문화, 충청문화에 대한 일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하나는, 충북 정신문화에 기둥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구상에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상이 되고 하려는 바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좋은 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의 의지로서 21세기를 향한 장기 본도 발전계획입니다.

이미 이것은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충북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참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충북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구상하에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님께서 "단양지역에 경력이 풍부하고 건전한 의식과 확고한 교

사상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좀 많이 보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조치에 따라서 교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국민학교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적인 교육청의 시책측면에서는 '단양지역에 교사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두번째는 '신규교사 배치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관리 규정에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단양·제천지역에서 교사가 6년간을 근무하면 그 선생님이 어느 지역을 희망하던지 희망지로 보내주겠다, 다만 희망지로 가서 10년동안 있도록 하겠다, 또 단양·제천에서 7년간 장기근무를 희망했다 하면 그 분이 7년후에 어디를 간다, 청주를 가든 충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8년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14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시책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국민학교 경우 단양지역에 어떻게 교사를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양지역에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에 발령된 총 수는 40명입니다.

40명의 교사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중에 경력교사가 33명이고, 신규는 교대 졸업생과 집에 사표내고 놀다가 시험을 봐서 온 다소 경력있는 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40명이 간중에 경력자가 33명이므로 82.5%고, 신규라고 하는 분은 7명이니까 9.7%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2학기에 배치 시에는, 특히 단양지역을 고려해서 두사람 밖에 안보냈습니다, 28명 배치하는데 교사 두사람을 단양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7%에 해당이 됩니다.

단양으로 배치한 두사람은 집이 어디인가 하면, 경북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때 중앙선을 타고 다니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해서 두교사를 단양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튿날 운동회하는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92년 금년에 추석 이튿날, 4일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이튿날 운동회를 개최하는 학교는 90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학교수에 28.6%가 추석 이튿날 합니다.

대개는 농촌지역 학교입니다.

다음에는 '91년도에는 어떤가 봤더니, '91년도에는 86개교로서 26.4%로 다소 증가는 했습시다마는 미미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옥천지역에 교사의 노령화 방지책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교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 안타까운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왜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옥천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전에 생활근거지를 두었거나, 옥천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두어서 타군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타시·군으로 가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두번째는 타도 진출 희망이

전원이 대전입니다.

대전시로 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즘 타도 진출은 동수 교류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진출자가 있어야 교류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오고자 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타도 진출은 막히고, 타시·군 지방자는 없으니까, 자연이 결원이 없게 되어 신규배치를 못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노령화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침체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도 엄색하고 웃도 잘 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좀 외적이나 정신적이나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자신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자기혁신하려고 하는, 자기 연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측면에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 못지 않게 활동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풍토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체육이나 이런 것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체능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3년차 계획으로 청주교육대학에서 연수를 장기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때 육천의 선생님들을 다수 참가하도록 해서, 좀 육천교육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문제와는 또 대조적으로 "장기근속자, 고령자를 우대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우대책은 수차 나가 있습니다.

그 우대책으로는 호칭을 '원로교사'라고 불러주고, 근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당직을 면제해 주고, 수업시간을 줄여준다, 수업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급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은 오전수업하고 단축수업하고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고학년을 말지 않고 저학년을 맡는 방법 등등해서 어떠한 업무경감을 시켜줘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을 좌석배치를 우대해 준다든지, 각종 회의 행사시에 그 선생님을 우대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우대책으로서는 월 3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인사상 우대로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명예퇴직을 예산관계로 해서 희망자 전원 명예퇴직 시키지 못하고 57%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시·군교육청에 일반직 인사담당자 개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수차 질문이 겹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감사를 추진중에 있고, 인력감사 후에는 그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일괄답변 듣기전에 초등교육국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들 지금 1문1답을 해주시죠.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아까 그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로는 임시위주 교육을 탈피하자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할거냐 이게 사실 과감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그

런 요인입니다.

입시위주 교육의 그 피해, 지식위주의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화를 걸지 못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라고 볼때 과감한 어떤 그 시책,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봤는데 광주교육청은 우리보다도 조금 규모가 작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에서는 '91년도 예산에 3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시범학급을 60개를 만들어서 한 학급에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특별히 아주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범학교를 또 4개 학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2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래서 시청각 기재를 시설하고 도서관 확충을 해서 완전한 시범학급과 학교를 만들어서 교단선진화를 견고 있다는 좋은 실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럴때 우리 충청북도에도 좀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해서 어떤 그 기폭제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 조치가 따르지 않는, 그냥 말로만의 개혁은 아무리 해봐야 백년하청 아니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좀 더 과감한 시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과감한 시책,

제가 중복이 자꾸되고 해서 생략을 하고 말씀을 안올렸습시다라는 수학능력평가를 해서 고입제도를 개선했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그 정상화를 통해서 전인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문제, 현재 입시위주 교육, 그 지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시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는 여기 언급을 안했습시다라는 저희도 시·군별로 초·중·고 해서 한, 두학교이상이고, 또 학급은 대개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시범학급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지정만하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과가 적다고 하는 참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93년도에는 연구학교에 지원금을 배로 책정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 침묵)

예, 다음은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전교조의 대선을 앞두고 최대의 활동
을 한다는 풍설에 대하여 전교조와 전교추
의 관계, 대선을 계기로 한 투쟁방향, 거
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간
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교조’라 하는 것은 ‘89년 참교육을 내
세워 가지고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
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불법성이 개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불법단체로 인정이 돼서 거기에서 퇴임이
된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천465명이고, 본
도는 2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추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교
조의 비공개된 현직 조합원, 또 여기에 동
조하는 현직교사들, 이분들을 ‘전교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전교추’; 거기에
형식적으로나마 바깥으로 노출된 사람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74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명운동에 가담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74명
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선을 계
기로 한 투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및 정치적 전환기를 자기들
의 투쟁 성과 거양의 적기로 판단해서 총력
투쟁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 하고, 9월
중 국회에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해서 대
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냐, 또는 국회
에 청원을 내서 복직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런 투쟁을,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서 현직교사의 서명 저지를 설득해 나간다,
그 다음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전교추에 참여를 억제해 나간다, 이런 두가
지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74명 서명
자증에서 철회 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44명
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
니다.

초·중·고 부교재에 관해서 학교 교육과
의 상관관계와 어떻게 학생들이 취급하나,
대입 수학능력평가제와 부교재의 관계는 어

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수업이라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1종도서, 2종도서, 그 다음에 인정도서,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은 교과담당 선생님이 협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도하는 것이 일반교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참고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적에 필요로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절 이 참고서나 이런 것은 학교에는 지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 참고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94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 영역으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검토를 해봤을 적에 이것은 기초학력을 양성 하지 않고서는 그 분야의 해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학능력테스트 평가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의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설학원 인·허가 관계하고, 동 업종의 거리와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지역에는 200m 거리가 되어 있고, 읍지역에는 100m로 거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타도하고 전부다 조사·분석해본 결과 앞으로 본도에서도 이것을 폐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문리계입니다, 문리계는 입시,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은 330㎡입니다, 즉 100평입니다.

100평이상에서 600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학원은 강의실 면적이 198㎡이상 1,320㎡이하로 되어 있고, 기술계는 전자학원, 라디오나 VTR이나 TV나 이런 것은 실습실이 49.5㎡이상, 기자재는 16.5㎡이상, 컴퓨터는 66㎡이상, 컴퓨터는 1인당 1대 꼴로 되어있습니다.

예능계는 미술학원은 실습실이 49.5㎡이상, 가정계는 66㎡이상, 사무계는 66㎡이상, 또 독서실은 열람실 연면적이 132㎡이상 660㎡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하신 각 계열별 시설기준은 종류가 무척 많아서 이것을 제가 답변 말씀 드리려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

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김광수 부의장 양해의사 표시)

그러면 각 계열별 시설기준의 모든 자세
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홍신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
다.

첫째가 단재교육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입니다.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현황
은 원장을 포함해서 전문직 18명입니다, 거
기에는 장학관 1명, 연구관 3명, 장학사 2
명, 연구사 12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서기관이 1명, 일반직이 6명,
그 다음에 기능직, 별정직 해서 25명, 계
5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연수실적, 즉 계획을 말
씀드리면 학생연수는 2천520명, 교원연수는
천200명, 그래서 총 3천805명을 연수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교원연수와 학생수
련을 병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
눠서 개조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 다음에는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된다, 그 다음에 전문

직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교원및 학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설이 좀 부족하
다,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실, 음악실, 어
학실, 컴퓨터실, 가사실, 실험실 등등 입니
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교원연수를 대학등 전
문기관에 이관하는 계획과 연수효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교원전문 연수기관인 시·도 교원연수원
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앞으로 이 학생
수련원과 교원연수원은 별도로 건립할 것을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에는 이 교양이나 교직분야에는 대
학 교수를 초빙을 해야하고, 현장문제 해결
은 현장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부설 교원연수원에서 현재도 교원대
학이나 충북대학에서 종목에 따라서 단재교
육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은 양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타대학의 유능한 교수 초빙
이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학생수련원과 교원연수원 분리 설치 계획은 아까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번째, "교육원 연수담당자 사기 양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우선 연수담당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저희들 인사규정에 입각해서 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연구수당을 월 6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문직 증원요청을 지금 교육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증원이 된다고 하면, 더 증원을 해서 업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현황과 주당 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전체가 천699명, 사립학교는 천48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번째, 주당 시수는 국·공립은 17.8시간, 사립학교는 20.3시간 이렇게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야간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려는 17.4시간, 그러니까 약 17시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7시간, 16시간이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립학교가 3, 4시간 정도가 조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본도에서도 금년도에 각 사립학교에 한분씩을 증원을 해서 39명을 증원해 올렸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수준에 가면 공립과 사립과의 균형은 유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공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89년도에 국립사대 출신들에 대한 직체를 막기 위해서 일시에 본도에도 530명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공립은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에 발생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체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하달하였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1학기 동안에는 본도에는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한 사안은 한건도 보고받은 일도 없고, 사안이 하나도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요 일전에 보도된, 텔레비전에 나온 그러한 사항은 즉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근거가 없는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학교에 누가, 이렇게 밝혀주십사 하는 것까지도 요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해서 체벌에 관해서는 어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초·중·고를 막론하고 여하한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문도 계속적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91년도 2월 13일부터 생활지도 계획, 그 다음에 교장 회의자료 '91년 4월 13일 교내 폭력근절, 교장 간담회 '91년 5월 10일 체벌엄금, 그 다음에 청주시 교장 회의 '91년 8월 27일 교육애를 통한 교육, 선도강화 중심의 학생지도, 이러한 공문을 시달했고,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92년도 들어와서는 2월 24일날 생활지도 계획을 하달했고, 또 6월 29일날은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또는 2학기를 대비한 그러한 생활지도로서 간부학생과 면담, 불만사항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해서 2차 생활지도 계획서를 발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한 사안이라도 발생되지 않고, 참말로 학생들을 사랑과 친절로서, 교육애로써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을 더 심층분석을 하고 해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뿌리를 뽑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컴퓨터 지도요원을 각 시·군교육청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컴퓨터 활용도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컴퓨터 지도요원 배치현황은 각 시·군교육청에 한분씩 파견교사라고 할까 증치교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분씩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보산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갑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컴퓨터 지도교사에 대한 인력을 증강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를 증강시켜서 기간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 정보산업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으리라고 이렇게 내다 봅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컴퓨터 활용도는 국민학교는 4학년은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5학년은 4시간, 그 다음에 6학년은 8시간입니다.

이것은 1년동안에 이렇게 지도하라고 그 교육과정 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 5, 6학년을 2시간, 4시간, 8시간 지도해 가지고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

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으로는.....

그 다음에 중학교는 1, 2학년은 기술이나 가정교과에서 1개단원 12시간으로 교육과정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운영되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농고나 공고도 역시 정보처리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보처리를 선택한 그러한 학교, 또는 직업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에 한해서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배당된 시간만 가지고서는 컴퓨터 교육이 충족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그 분야에 선견지명이 있는 학생이나 가정은 지금 가정에도 설치할 해준 그러한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청주시에 청운중학교는 불과 학생들 천명 가까운 그러한 학생들이 입니다마는 컴퓨터를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학생은 40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에 1의 이상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참 바람직한 그러한 좋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은 스스로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컴퓨터 학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생활지도에 대한 추진현황이 없는 이유와 그간의 생활지도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생활지도 상황의 업무는 보통 이것이 장학의 한 분야로서 평상업무로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업무로 보지 않고 해서 거기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생활지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도에서 '92학년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2월 24일날 시달했고, 또 6월 29일날 또 시달을 했습니다.

또 생활지도 업무추진 내용은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및 고등학교 학생주임회의를 3월 25일날, 3월 27일날 북부·중부·남부로 해서 각각 이렇게 실시를 했고, 또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및 고등

학교 교감 회의를 7월 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생활지도 계획 수립 추진 내용 확인 점검을 1학기 동안에 장학협의회에 고등학교를 4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10개교를 지역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건전한 가치관 정립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또 학교 자체교육에서도 학교장 훈화, 지역인사 초청 교육,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 야영 및 학생 수련, 극기훈련, 애절관 운영, 생활관 교육, 행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 고교생 가치관 정립 교육이라고 그래서 6월 25일서부터 3일간 28일까지 충주, 청주, 제천지역 고교생 2천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학생 수련을 통한 가치관 교육은 천440명, 학생회장 직선제 운영 및 회의진행법 지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는 110개 학교중에서 52개교가 교복을 착용해서 본도는 58.2%입니다.

고등학교는 72개 학교중 45개교가 교복을 착용해서 62.5%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교육 추진, 그 다음에 유해 교육환경과 불량배로부터 학생보호 및 학생 비행 예방지도, 간단 간단히 제록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학생 선도 학부모교실 개설 운영, 불량 만화 및 불량 비디오 수거 폐기, 범죄예방 교실 운영, 캠프 전개, 해외여행 억제 지도, 교통 사고 없애기 운동 적극추진, 교통안전 교육 담당자 임명으로 질서의식 생활화 교육, 등하교 지도, 교육과정 및 시간특설 지도, 생활지도 사례집 발간,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생수도 많고, 또 사회에서 보는 눈, 사회에서의 질서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성세대도 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에 대하여 운영의 애로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애로점은 무엇이며, 애능·체육·외국어 등 지도교사 결원으로 인한 실기능력 결손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만한 제도인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수차 보고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념은 말

숨을 생략하고, 중앙고 예술계열입니다.

예술계열에 있어서는 우선 전공별 교원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나 시설이나 교구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 초빙이 좀 곤란합니다.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우수학생 확보가 좀 곤란하다, 무용과는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재교육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앞으로 그 체육고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선수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봤을 적에 역시 체육분야에 대한 영재교육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원하는 교사를 초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러시아학과는 러시아학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으나, 그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해서 아마 어느정도 지금 각 대

학에서도 러시아학과를 신설하는 경향이 높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다국어 외국어에 대한 영재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원어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어학과가 가장 어렵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는 수차 말씀을 드려서 현재 우리도나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적에 성공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양호교사 배치는 '92년도 증원계획 24명이 차질없이 배치가능하며, 도내 100%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는",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 1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6명 해서 24명을 '92년도에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원관계로 인해서 국민학교 초등부만 18명을 증원 확보했고, 중등부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8월 30일 현재로는 공립학교 452개교중에서 186개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4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7년도까지 12학급 이상교에 배치를 완료하고 2001년까지는 100% 배치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 의정 김영세 : 임시회의때 미질문 내용이 있죠?

지금 질문사항 5항까지 왔습니다.

그러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정 김영세 : 그 밑으로는 박병해위원의 임시회 미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시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정 김영세 : 거기서부터는 잠깐 정회를 하고서, 정회후에 좀 지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속이 돼서 용변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 정회할테니까, 미질문분 답변 여기서부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정 김영세 : 예,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11시 25분)

○ 의정 김영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날씨 관계로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고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다음 답변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학능력고사 관계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3회에 걸쳐서 문제지를 각 학교에 보내서 실시한 고사결과를 통계적으로 알수 없는지요?" 배부된 문제지는 학교자체에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은 봤지만 통계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통계처리가 안돼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교사들 자신이 수학능력고사 문제 출제를 하는데 적응되었다고 보는지요?" 현재 그 개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마는 선생님들의 꾸준한 연수와 연구와

또 수학능력테스트에 대한 계속적인 수련이 있으므로써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리라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다만 과거에 실시했던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 또는 무답형, 또는 다답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학생들도 수학능력고사 출제경향과 그에 따른 학습관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한 학부모들도 이해가 되는지?" 현재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서, 또 실험평가를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결과,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이 수학능력테스트에 대한 방법이나 또는 요령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1항, 2항, 3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사의 통합교과적이고, 탈교과서적인 출제기술은 상당기간의 개인이나, 또는 집단연수와 스스로 이 출제기술 연마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관계로 차차 학습관, 학력관의 변화도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일치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강조 말씀드리고, 학부모의 의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연수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8월 25일 중 3학년, 8월 31일 실시했던, 고교 표집고사 결과분석의 방법은" 8월 25일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평가는 전체를 한게 아니고, 유충별 그러니까 농촌지역, 오지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학교에 2학급씩을 표집을 해서 문항별, 정답율, 평균점, 표준편차, 공인타당도 이런 것을 산출해서 앞으로의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 실시한 수학능력 고교 표집고사는 주립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문항별, 정답율, 개인별 평균점, 표준편차, 공인타당도를 산출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학입시에 평가의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박병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신명중학교 3명, 신흥고등학교 3명으로 과원에 대한 신분보장, 즉 그것이 '92년까지의 사립학교 과원교사 현황과 그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명중학교에 3명, 신흥고등학교 3명이 과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신분보장을 한다는 뜻에서 과원

을 현원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기 '95학년도부터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9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교육과정 결정이 도는 52%, 교육부 42%, 학교 6%의 이론적 근거와 그 대비책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저희들이 합부로 말씀을 드릴수 있는 단계는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96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은 공고도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합부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결정의 본권화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동 필수과목만 교육부에서 편제를 하고 기타는 시·도교육청, 또 학교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앞으로 기간도 있고, 또 정식으로 공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공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저희들 전문기능을 담당할 교원이나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준

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40만원을 지금 행정과에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를 학력경기대회로 바꿀수 없는지, 수학경시대회는 모르나 국어, 과학, 사회 등을 읽기, 쓰기, 만들기 등 경기대회로 전환할 필요는?", 그 다음에 세번째가 "영재발굴 취지인데, 교사들의 경쟁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기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적측면, 즉 웨이퍼 테스트를 통하는 것은 경시대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또는 기능이나 기술 그런 분야를 측정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을 경기 또는 경진대회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현재 본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시대회 종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학력경시대회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지필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대회와 예선대회로서 수학, 과학 경시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경시대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경진대회로서는 각종 체육 경기대회, 각종 예능발표대회, 농·공·상 계열의 각종 경기대회, 그 다음에 외국어 구화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웅변대회, 백일장, 또는 음악경진대회 등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필검사는 경시대회, 기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은 경기대회라고, 또는 경진대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답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영재발굴 취지인데, 교사들의 경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 폐단을 극소화하도록 해서 각종 경기·경진대회는 발표의 기회를 더욱 확대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었던 그 국·영·수·과학 거기에 대한 경시대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경시대회반을 앞으로는 일절 편성하지 않고, 보충수업시에 능력별 반 편성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도 선생님의 수당은 보충지도 지침에 따른 수당으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으로서 "환경교육의 현황은?", 첫째 교재, 그 다음에 교과, 시간, 내용,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 캠페인 등 실천경험 위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환경보존 교육의 효과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파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재는 국민학교는 '사람과 환경', 중학교는 '인간과 환경', 고등학교는 '생존과 환경' 등 환경처에서 발행되는 교재를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해서 그것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는 중심 지도교과인 과학, 국민학교는 자연입니다.

사회, 기술, 가정 교과 등에서 이 환경보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혼화시간, 교장선생님

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또 교과시간을 통해서 그 관련된 교과와 결부를 시켜서 실시 하고 있고,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토론이나, 협의나, 발표나, 현장견학, 애향단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활동으로서는 각종 발표회, 캠페인 참여, 가정과 사회 연계교육, 그러니까 부모교육, 교육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의식 제고, 또 환경문제의 원인 이해, 우리나라 환경오염 문제, 이러한 등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보충수업 운영의 정상화" 해서 신문, 잡지, 명작 등을 읽고 발표, 토론, 비판 등의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보충수업 실시 지침에 따라 희망 학생, 희망 교과만 실시한다, 신문, 잡지, 명작 이런 것은 정상적인 수업시간에서도 그 수업을 다루는 교사의 수업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문제고, 그 정과시간에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수업 시간에 지리라든가, 또는 역사라든가, 또는 국어시간에 국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사설을 읽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토론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한마디로 수

업 방법의 전환에 일종이라고 봐서 다같이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에 대한 지침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희망 학생에 한해서, 희망 교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또 능력별 편성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희망했을 적에, 전교생이 국어, 영어, 수학만 희망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국어, 영어,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각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에 의해서 그 과목에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선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책정을, 배당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과학도 들어가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경제도 들어가고, 이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거 관련 학생에 대한 대책 강구, 시한부 종말론 학생 참여 억제지도 대책" 현재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휴거관련 분야에 접촉하고 있는 학생은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일선학교를 통해서 조

사한 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석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이 나기 때문에 결석생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훈화나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인근 학교간에 정보교환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에 본도 학생들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단양군내 초·중등 학교의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중등분야에 대한 것만 약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등에 있어서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단양군내 오지의 교육열을 높이고, 안정된 교육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 제 6조 제3항, 11조 2항 여기를 붙 것 같으면 6조 3항은 승진임용자인 교장, 교감이 벽지 학교, 즉 단산중고, 영춘중학교, 한수중학

교에 4년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배수 범위내에서 승진발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는 단양지역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6년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초등교육국과 마찬가지로 6년 근무시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청주에서 10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대 조치를 했습니다, 제한은 8년으로 되어 있는 데요.

7년이상을 근무할 적에는 청주에서 12년을 근무할 수 있고, 또 8년이상을 근무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14년을 청주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적용된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중학교는 30명이 이미 발령이 나 있습니다, 18%에 해당이 됩니다.

단양중학교에 14명, 단성중학교에 4명, 매포중학교에 3명, 단산중학교에 4명, 영춘중학교에 5명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20명으로서 21%, 단양공고에 14명, 단양고등학교에 8명, 이렇게 그 적용을 받아가지고서 희망해서 발령을 낸 선생님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고, 둘째 항목에 대해서 우선 이 답변말씀을 올리기 전에 좀 단양에 중·고등학교 해서 8개 학교인데 금

년 9월 1일자로 8명 승진중에서 다섯분이 단양군으로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8명중에 다섯분이 단양으로 갔다." 하면 우선 '너무 단양을 멸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으실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내에서 1년반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이 두분이 계시고, 2년을 근무하신 교장선생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1년반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좀 근무토록 하려고 여러가지 조사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1년반 근무를 하신 선생님이, 즉 증원군에 신니중학교로 발령을 받으신 이상희 선생님은 노모 한분이 계시는데, 아주 병환이 극히 심해서 도저히 그 분을 더이상 영춘에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0세이상된 노모에 대한 병간호도 하고, 또 효자 노릇도 한번 돌아갈실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저희들이 1년반이지만 발령을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중학교에 계시는 김현규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건강이 아주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조금 집가까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두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효과와 또 본인의 건강과 이것을 참작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분에 대해서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개가 단양군내에서는 2년 이상을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2년정도면 자기 고향 가까이로 모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섯분이 이동이 됐지만, 그러나 고령자들도 또 현재 그 다섯분 후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가 50대 전후 젊은층으로서 다섯분 전부가 다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단양군내에 가서 또 학교운영에 헌신적으로 땀 그러한 선생님들만 차출해서 단양에 발령을 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보시면 1학기만, 금년도만 지나시면 다섯분이 오신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교조및 교수위 활동양상에 대해서 단양군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해임된 사람이 적성국교

에서 해임된 사람이 최정숙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윤계화 현 전교조 도지부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중학교에 김수열, 단양군지회장입니다, 이 해임자 22명중에서 3명이 단양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회 사무실은 단양읍 도전리 시장상가 1동 61호에 있습니다, 전화는 0444에 423국에 1970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추는 어때냐, 지금 서명자는 53명이고, 각서 제출자는 36명입니다.

미제출자, 현재까지도 미제출한 선생님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가 4교, 중학교가 3교, 고등학교가 2교 해서 9개교에 17명이 분포돼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등교육국에 소관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장충호위원.

○ 장충호 위원 : 지금 나국창님이 말씀하신 두사람, 한분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한분은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고, "전교조 관계 내용을 아시냐" 하는 것을 지금 나국창님이 겹으로 뭐 몇 명이다, 우선 그 몇 명이라는 숫자도 정확하냐, 안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74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중에 43명이 지금 철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숫자가 정확하냐, 안하느냐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명 철회를 했다 해도 안심을 해선 안된다 이거예요.

철회를 하면 정신마저도 전부가 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마치 태양이 아주 뜨겁게 비칠때에는 조금 응달에 피했다가, 구름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타나는, 이런 식의 철회지 그게 근본적으로 철회가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적에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방심하지 마시고,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교육장, 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지만, 현실이

우리들이 앞서서 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해 나가는 그런 부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 숫자도 사실상은 지금 장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전에서 조사해서 받은 숫자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교추위', 현직 교사에 대해서는 제 의지를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도내에서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또 교육 동지애로서 가급적이면 품안에 안고 해서, 희생자를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별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그 교추위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11개 지역교육청의 보고, 또 80개 고등학교의 보고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무관심 상태에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 분 보충질문

.....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시대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경시대회는 경기대회나 경진대회와 달라서 지식을 테스트한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능이라든가 이런걸 테스트한다기 보다 지식만 테스트한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과연 국어와 영어를 떼이겨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느냐, 국어적인 차원, 혹은 영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재적인 차원에서 경시대회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은 이해가 갑니다.

영재하면 보통사람보다 좀 다른 일종의 비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아주 공부를 못하고 I.Q가 낮은 아이도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도 역시 보통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 그런 학생을 찾아낸다, 영재를 찾아낸다 라는 의미에서 지식만 편중해서 한다, 할때 수학이나 과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국어, 영어가 될까, 국어는 웅변대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하기’ 국어의 목적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어를 과연 떼이되 테스트를 해서 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가, 국어는 웅변대회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지요, 혹은 짓기대회 잘해서 거기서 영재가 나와야지 떼이되 테스트에서 과연 국어과목에 영재가 나올 수 있는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화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이 영어에 영재지요, 어떻게 시험 몇 번 봐가지고서 그걸 영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재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수학이나 과학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어나 영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일선교사들한테 담당하시는 직접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고 의견을 들은 결과 저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지방교육자치정신을 정말 내실화 하신다면 현장을 수렴하셔서 ‘교사들의 의견이 정말 어떤가’ 이걸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민주행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첫번째 보충질문이 되겠고, 두번째 질문은 보충수업 관계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보충수업이 오히려 시간을 배가시켜 가지고 한다.”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강력히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즉 학생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자유선택에서 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공염불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청 지침,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지역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력이 전혀 마비가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장단 회의에선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하는 건가,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업이 된건가,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가, 물론 일일이 모든 걸 학생과 교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건 힘들다마는 이 보충수업 같은 참으로 첨예한 이런 문제는 좀 정밀하게 이런 지방자치 내실화의 정신에 의해서 학생과 교사와 혹은 그 부형의 의견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아마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그렇게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학교에선 되고, 어떤 학교에선 안되는 경향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의 행

정력이 마비되는 상태다." 하는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자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가정이 부유한 학생은 학원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돈이 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부 확일적으로 해서 돈을 오히려 배씩 걷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부리가 되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건은 보충수업비에 25%가 관리비로 나간다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과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수차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건 제가 우선 경시대회 문제와 경기대회 문제, "국어, 영어는 경기대회에 해당되지 경시대회에서 영재를 발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봤을 적에는, 즉 경시대회 국·영·수에 대한 경시대회는 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하나의 페이지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 구화대회, 또는 웅변대회,

또는 미술 그리기대회, 발표대회, 나의 자랑 발표대회, 이런 등등을 다각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국어면 국어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웅변대회에 가서 1등한 사람이 국어에 대해서 수재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기와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분야에 독특한 인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채택하고, 저 방법도 채택하는 것이지, 꼭 웅변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국어에 1등이다, 이렇게 평가는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이것은 도구과목입니다.

모든 교과목의 도구로써 기초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도 그렇고, 대학에 4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기초과목이라 하기 때문에 그 기초과목을 중시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성장시켜서,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세계 인구가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노벨문학상이 나오면 한 사람때문에

우주 40억이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필검사는 명명하기를 그냥 경시대회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과 또는 지적측면 양쪽면을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경진대회, 기능대회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올렸습시다만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충지도를 하지말아라, 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보충수업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편,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편, 이렇게 양론이 대두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이미 허락한 사항을 저희들 도만이 '하지마시오', '하시오' 이렇게는 지금 단안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보충자율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모든 것을 집합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청주시내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내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엇그저께 회의를 개최해서 3학년은 지금까지 두시간, 1,2학년은 한시간씩 하던 것을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지금 9월 1일서부터 잡부금, 찬조금 일절 징수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양성시킨다고 하는 것, 또 저 밑에 처져있는 학생들을 보충지도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수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3개년의 교육과정을 능히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시간씩을 더 연장을 해서 한걸로 지금 보도에 나와있습니다.

또 거기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1,2,3학년을 공히 두시간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시교육청에다가 자세히 진상을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자하니까, 참 기본정신은 역시 입시위주 교육입니다.

두가지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경시대회도 국어나 영어의 지식을 테스트 해서 좀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해서, 참 '이름을 날리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런 기본정신이 입시위주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본정신은 그것이고 지금 보충수업 관계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 국어를 잘해가지고 시험점수를 많이 났다, 이 사람이 훌륭한 시인이 된다, 앞으로 점수를 중학교때 많이따야 나중에 가서 노벨상을 탈수 있다, 또는 소설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소설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노벨작가, 이런 사람을 과연 꼭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 되서 그러는 것이고,

보충수업에 관해서도 그 지침이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하지말라"가 아닙니다, "하지말라, 하라"가 아니라 과연 학생들에게 정말 자유 선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따져 보라는 얘기지요, "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죠,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보충수업 아니라 보다 더한 것도 주민이 원한다면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주민이 원하고, 교사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걸

하는거냐, 아니면 25%를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걸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교육청에서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문제는 앞으로 찬조금, 징수사항 규정에 입각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보충지도를 시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경리부분을 감사할 적에는 저절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수에 의해서 보충지도비가 징수액이 각각 개인별로 전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하는 교과를 실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경리분야를 조사해 보면 저절로 나타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로써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압니다마는, 또 일선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희망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전부 희망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어찌 희망 안받은 학생을 했느냐, 그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서류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확인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더 이상 질문해야 다른 답변이 안나올텐데.....

○ 의정 김영세 : 예, 다른위원.....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컴퓨터 지도에 관한 문제, 어저께 도내에서는 이 컴퓨터 기능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상도 많이 주고, 이렇게 연내에 한 두번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별로도 컴퓨터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러면 뭔가 제도적인 대회를, 예를 들면 '주산이 7급서부터 몇 단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학교마다 기능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건가, 이런걸 말씀을 드려봤고, 또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는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성 교육이나, 학력제고, 체육이나, 기능 이 세가지가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생활지도에 인간성 교육이 지금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학자나 학부모나 누구나 다 중요시 하게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상 각 학교를 이렇게 보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 아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

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범 학생 표창을 했다는지, 연수교육을 통해서 했다는지, 예방지도를 했다는지, 사례집을 통해서 애들한테 계몽을 했다는지, 다 간접적인 어떤 지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지도에 직접적인 교내나 교외 생활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들한테 그 요령까지 설명을 해줘도 교장이 가서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하는 이유의 첫째 하나중 큰것이 그 지방에 자기가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 중에는 보충지도를 한다, 자율학습을 한다고, 밤늦게까지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만 한 두분있고 교장이나 교감은 한번도 들여다보지도 안하는데 그런 교장은 있으나마나지 뭐 하는거냐, 극단적으로 이러한 평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 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력제고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직접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데 주력을 두어서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며

는 올 여름방학에도 저희들끼리 본드를 마시다가 한 방에서 한 너댓명씩, 아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다 죽는건데, 그런데도 몇 군데 나와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 하나 데리고서 그저 몇 일을 돌아 다니고 별짓 다했는데, 그 학부모들은 자기가 자기 집 자식을 잘못 뭐가지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는 안하고 교장들이 그 동안에 뭐 했길래 우리애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것 참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마는, 학교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하려면 생활지도 안되고는 절대로 이게 실력 향상, 보충지도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박병해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 보충질문 하셨는데,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예선대회를 하고, 도예선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에 대한 컴퓨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열성에 따라서 또 그 학교, 즉 말씀드리면 상업계고등학교의 정보과를 담당하는 학생들은 정보처리요원 2급 기능사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고등학교의 정보처리과에 학생들은 실기만 패스하면 정보처리

요원 2급 기능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혼련을 하고, 또 공부해서 2급 기능사가 대개 도내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속출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문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인간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또 학교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각 교장사택이 없는 그러한 학교에는 지금 관리파트 분야에서 교장사택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사택에서, 그 소재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아마 사택에 거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생활지도 잘하라고 지침을 내보내고, 또 확인을 해서 1년에 학교 몇 번 방문한다고 해서 일이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교육관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애정이 없이는 참신한 그러한 교육은 이루어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수회도 개최하고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와 또 인간교육 분야, 인간관계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른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광수위원.

○ 부의장 김광수 :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그 생활지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등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기 보다는, 하나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들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 자율화라고 해가지고서 그 학생들에게 또는 학교단위로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요 근자에 와서 생활지도상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 학생은 무엇인가 자기 학교 특성에 맞게 유니폼을 입히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요즘에 와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에 "중학교는 60%정도, 고등학교는 50%정도가 지금 현재 도내에 교복을 통일해서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로 볼적에는 그냥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방면이라든가, 학생의 품성이라든가, 교육적인 가치로 봐서 이게 자율적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추세

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적에는 이 교육당국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데는 더 권장해서 보다 더 빨리, 교복으로 전부 통일할 수 있게 할 용의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가 다 자기 학교에 특성에 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는 교모도, 학교의 모자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자까지 쓰고 있는 학교는 혹시 없는지, 이것을 좀 교육당국의 방향을 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교장사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교장은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택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택을 전부 짓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를 "군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적에 그 군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리감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택은 있고 해도, 청주에서 통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 생활지도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학생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역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또는 그 방학때는 이런 청소년 선도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또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공부를 착실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부모 눈을 피하고, 선생님 눈을 피하고 해서 자기네끼리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셔서,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외생활지도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감사합니다.

교복에 관해서는 저희들 분청이나,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복을 착용하도록 적극

적으로 지금 권장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이라고 하는 것, 또 일종의 제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교복이라고 안하고 제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교육행정마냥, '어느 달까지 교복을 다 입혀라' 이렇게를 못하고 권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적으로 이 제복이라는 것이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학교에 전통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심각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과에서나 지도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교장선생님 모임, 또는 교육자 간담회시마다 생활지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그러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새로운 방향에 입각한 생활지도, 방향을 모색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가지 홍신회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립과 사립의 교원수 천899명, 그것은 학급당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그러면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중, 본인이 듣기에 부실한 답변이 되었다는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충수업 문제이고, 사립학교 교원증원에 관한 문제를 진술할 적에 부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충수업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본문제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충북 교육이 인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충북 교육 목표에 제1항이예요.

그런데 과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시책을 얼마만큼 세웠느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일선에서 과연 사회나 학부모나 사회여론이 우리 충북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교육시책을 얼마 세웠느냐,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하는 학교활동의 내용하고 우리 교육목표하고는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

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꾸 중등교육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소신을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겁니다.

중지를 모아서, 또는 의견을 수렴할 줄 알고, 학부모가 요구하는게 뭐고, 학생들이 원하는게 뭐고, 일선학교 선생님이 원하는게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곧 교육시책으로 반영이 돼야 민주적 교육방법이지,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 얘기한게 보충수업 방법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 "자율화를 주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맡겼다.", 보충수업 실시여부에 대한 것은 물론 각 학교에 책임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보충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을 적에는 당연히 교육청은 감독책임이 있지, 어찌하여 책임이 없고 방편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지만 지난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파행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다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충북교육 행정에 책임자인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파행적인 문제가 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파행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청주시내 교장선생님들이 전체 모여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 놓아서 보충수업을 강행하면, 이게 민주화이고, 이게 자율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보충수업은 학생의 욕구와 학부모의 의견이 뭐냐, 또 선생님들의 의견이 뭐냐, 이것을 수렴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방침을 세우고, 또 학교간에 균형을 이루려 한다면 그 다음에 교장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겨꾸로 댔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장회의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각 학교에다가 밀어 넣었고, 또 전부 각 학교에 학생들의 희망서를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실시했다, 그 희망서가 공정하게 됐다고 장담합니까?

그 희망서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장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것이 공정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방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이 그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생활지도 문제만 하더라도 생활지도의 적극적 방법이 왜 채택이 안되느냐 이것을 좀 감안을 하고 교육적인 견해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학교가 보충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나가서 생활지도 할 시간이 없고, 학생들도 학교에 붙잡혀 있는데 무슨 생활지도냐 이렇게 돼요.

또 심지어는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부모나 일부 의견이 뭐라고 그러느냐, 학생들을 자율화시켜서 일찍내보내면 문제성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좀 붙잡아줘야 학생문제가 해결이 된다,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 자기에게 자기 능력을 부여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앞날을 가늠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부여했을 적에 참다운 교육방법이지, 그렇게 붙잡아 놓고 개복살이 채우듯이 붙잡아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자율적인 신장력이며, 이것이 참다운 생활지도 방법이며, 이것이 교육적인 방법이나, 내 되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자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은 우리로써는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를 짚어 드리고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수학능력평가라는 그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학교의 대비책이 아니라 일선학교에 보충수

업은 그와는 정반대적인 입시위주의 방법으로 문제지 갖다 답 가르쳐 주는 교육이고, 또는 정과교과서 갖다가 그냥 다뤄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수학능력평가의 방법하고 보충 수업의 실상이 괴리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사회여론이 그렇고 사회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 그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또 수위 주민의 대표라는 교육위원들의 견해도 그런 의견을 안들은 바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또 그런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의 질문이 있으면, 그건 일방적으로 수학능력평가의 의의만 강조하지 거기에서 오는 괴리현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서 한 답변이 있었느냐, 이것을 내 되묻고 싶은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립학교 증원을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그 증원이 공립학교와의 차이점을 내렸는데 내가 중등교육국장님 발언을 듣고서 바로 교직과에 가서 지금 내가 통계조사를 해왔어요.

통계조사를 해온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들어 보세요.

24학급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39명이고,

공립학교는 45명입니다, 24학급 기준을 했을 적에, 그러면 6명이 차이가 나고, 30학급 기준이 되었을 때는 사립학교는 57명이고, 공립학교 65명입니다.

34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립학교는 64명이고, 공립학교는 73명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인원차가 얼마나 하면 11.2%가 차이가 나요, 11.2%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평균시수가 1시간반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그리고 야간학교가 있는 교원수까지 여기다 갖다 넣었는데, 사립학교에 야간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2개 학교뿐입니다.

일신여고에 또 하나있어서 3개 학교가 야간부가 있는데, 그 야간부에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주간부로 전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만 사립학교에 그 인원이 평균치에 들어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건데 야간학급에 선생 수까지도 평균치에 넣어가지고 그 평균치를 줄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다고 할것 같으면 공·사립에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은 아마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더 짚어 드리겠는데,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희망했습니까?

아마도 임의적인 배정에 의해서 간 사람들이지, 사립학교를 희망에 의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러면 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서 사립학교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면지, 그 자체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까?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업료 징수방식에 의해서 징수해서 부족분은 인건비만이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덜 냅니까, 교육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차등을 두고 세금을 냅니까, 국민으로서 공정한 세금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납세자의 자녀를 희망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강압에 의해서 배정된 그 학교에다가 이러한 불균등한 교육시책을 강요했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건 마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도 나름대로 강구가 돼야하는데, 물론 교육부 평계를 달는지도 모르지만서도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비는 소위 교부금으로 해서 일괄총괄 예산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봉계숫자까지도 줄여서 답변하고 그 봉계숫자가 틀린 이유가 뭐냐, 이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충수업을 제가 답변말씀 드렸을 적에 현재의 보충수업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허락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라, 하지마라"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드린 사항이라고 저는 현재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학년도 고교입시에 수학능력테스트를 도입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차차로 자연적으로 보충지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어질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 먼저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 시킨다, 여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전에도 수학능력테스트를 도입한 것은 보충지도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또 입시위주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보충지도에 대해서는 참말로 이 고등학교의 수학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학생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학력을 올

려주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도 희망 교과에 한해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수차 거기에 대한 내용에 지시를 했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는 또 일선대로 애로가 있고 해서, 이번 교육부에서도 단호하게 찬조금이나, 또는 기타 잡부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온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 의장 김영세 : 가만있어요, 거기서 그 문제 다시 짚고 갑시다.

감독책임을 안진단 말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말을 안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짚었는데,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교장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소위 희망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게 꼭 공정한었느냐, 그것을 파악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것을 딱 두마디로 하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9월 1일, 2학기에 대한 보충지도는 엇그저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연 각 학교마다 보충지도에 관계되는 학생 희망에 의해서, 희망 교과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건가, 거기에 따르는 징수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도의 방침으로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학교만은 학원을 개방했기 때문에 보충지도를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리고 홍신회위원님께서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의 직원 수하고, 그 다음에 주당시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교직원 수는 학급당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당시수는 우리가 엄밀히 말씀 드리면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학과마다 시수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교과는 20시간을 초과하는 교과도 있고, 어느 교과는 불과 주당 10시간 미만 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현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

도에 국립사대 출신들 적체를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 도에도 530명을 일시에 발령을 낸 관계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 현상을 가져왔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 주당시수는 그런 과목마다 공·사립이 다르지마는 이것을 전체 시간을 선생님들 수로 나뉘었을 적에 이러한 주당시수의 차이가 나왔다.

그래서 공립하고 사립학교에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당 한 사람이 3시간내지 4시간 정도에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부가 있는 그러한 학교는, 또 계산을 해보려는 17.3인가 4시간이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사학과 공립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도 사립학교의 시설문제, 내부시설, 외곽시설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마저도 부족액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립학교에 우선 1명씩, 한 학교에 1명씩 39개 사립학교에 39명을 배정한 것도 증원조치를 해준 것도

서서히 연차적으로 공·사립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 한 것 우리가 더 지켜 볼겁니다.

특히 우리 교육본질에 속하는 수학능력평가 방법, 보충수업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회의가 있을적마다 발언을 하였고, 또 검토를 해보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검토해보라는 건의가 구속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는 반응이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교육적인 소신에 의해서, 교육적인 양심에 의해서 해결할 방법은 좀 더 과감히 개혁을 해주셔야지, 지금 불과 8년 앞에 다음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안이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되겠는가 한번 교육자다운 이러한 양심에 맡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풍위원 위원석에서)

○ 권혁풍 위원 :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하는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경시대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영재 발굴을 위한 경시대회냐, 아니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경시대회냐, 어느 편이냐 볼 때 저는 후자 같습니다. 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이 즉 하신 말씀의 기본에 깔린 것이 입시경쟁입니다.

에디슨이 어려서 어떻게 해서 계란이 깨어져가지고 닭이 되는가를 누가 가르쳐줬서 한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호기심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 저게 계란이 깨져서 닭이 되는가, 자기 몸속에 계란을 품어가면서 까지도 그 것을 했을 때, 이게 보충수업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시대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애입니다만 에디슨도 학교에서 1등은 커녕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드리게 되면 학교 무용론, 교육 무용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고, 제가 이런 일이 있음에 애를 드는 것은 경시대회건 보충수업이건 학생이 원하느냐 안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에디슨이 그 계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호기심에 가득차 있는 에디슨을 갔다가, 지금처럼 갖다 잡아놓고서 경시대회를

한다든가,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켰다든가, 보충수업을 시켰다고 볼 때 에디슨이 과연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노벨상에 어떻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명문대를 나와야 노벨상을 탈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이고, 참 경시대회도 필요한건 해야죠, 학생이 원하는건 해야 됩니다.

학생이 호기심이 가득차서 "이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도 싫어하고 학생도 싫어하는 것을 과연 누구를 위한 경시대회며, 누구를 위한 보충수업입니까, 경시대회 효과가 물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 효과가 더 크냐, 잡음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의 열등감이라든가, 위화감 같은 부작용이 더 크냐, 이걸 저울질을 할줄 알아야지요, 어떤게 더 크냐 그 효과가 더 크냐, 부작용이 더 크냐 이걸 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본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가지 과학문명 기기들 첨단기기라든가, 정보기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참 과학문명이

과연 이런 보충수업 같은걸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학생들에 창의력,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거냐, 길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뒤떨어진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일부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경쟁의식, 일류대학을 가고자 하는 경쟁의식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교육자도 거기에 부채질을 한다든가, 혹은 같이 춤을 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교육위원이라든가, 여기 교육청 단위에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국어하고 영어, 여기까지 다시 경시대회를 재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2. 기타 안건 처리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기타안건 처리 순서입니다.

협의할 내용이나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그러면 본인이 먼저 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 간담회 때에도 거론되었습니 다마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증액이 되어도 미흡한 교육재정이 우리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목적세로 전환되면 130억원이 감액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합의된 입장 표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우리 교육위원 모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모두 찬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의문 내용은 김사수위원님이 낭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박수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사수위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지요.

(김사수위원 사회대로 나옴) ○ 김사수 위원 : 김사수위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의장 김영세 : 모두 찬성의 뜻으로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 결의문은 우리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지방교육계정 에 관한 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한 우리 모든 교육위원들의 의견으로 널리 표명코자 합니 다.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가 개원된지 한돌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1년동안 배우고, 경 험하고, 터득한 충북교육에 대하여 앞으로 도 더욱 내실있는 뒷받침과 발전적인 조언 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 짐하며,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가,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제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결의문 : 별첨 4.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 1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2. 9. 2. - 9. 4. (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 2. (수) 11:00 14:30	※ 개원 1주년 기념식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9. 2. - 9. 4. (3일간)
9. 3. (토)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9. 4. (금) 10:3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기타 안건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1992. 9.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주요업무추진현황

충청북도교육청

목 차

(초 등 교 육 국 소 관) ----- 100

1. '92. 전반기 장학협의
2. 교육전문직 연찬회
3.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연찬회
4.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
5. 여름방학중 중정문화 순회 답사
6. 스승의 날 교원 표창
7. 교원 재교육
8. '92 유·국 교사 공개전형
9. 교원 명예퇴직

(중 등 교 육 국 소 관) ----- 105

1. 교수·학습 방향 모색을 위한 연찬회
2. 장학협의 추진
3. '93 고교 입시제도 개선
4.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
5. 학기중·학원수강 허용
6. 고등학교 제2외국어 특별교실 운영

7. 고교생 수련
8. 검정고시 업무
9. 중등교원 연수
10. 컴퓨터 지원
11. 고교 교육체제 개혁 추진
12. 기능경기 대회
13. 실고 내부시설비 지원
14. 충청북도학생회관 개관
15. 청소년단체 가입 활동 상황
1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17. 제2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개최
18.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19. 양호교사 확보
20. 학교급식
21. 환경정화
22. 양호검직교사 및 학교 보건담당자 연수

(관 리 국 소 관) ----- 121

1.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2. 학교신설
3. 소규모학교 통·폐합
4. 중·고 병설
5. '93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배정
6. '9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 편성
7. 학교 부지 매입
8. 일반시설사업
9.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소 관) ----- 128

1.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2. 교육행정감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 130

1. 지방기능직공무원 등급 조정
2. 교육자치법규 정비
3. 소송수행
4.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총무과 소관) ----- 134

1. 지방공무원 공채

초 등 교 육 국 소 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 '92. 전반기 장학 협의	○ 대 상 : 11개 지역교육청 - 관련학교 : 국 36 개교, 중 32 개교 ○ 시 기 : '92. 4. 22 - 5. 29. ○ 협의반 편성 : 6개반 - 반장 : 초·중등 교육국 각과 과장 - 반원 : 3-4명 (장학관 및 장학사 각과 1명) ○ 주 안 점 : 자주적·창의적 교육활동 추진사항 - 교수·학습방법 전환 - 교육여건 개선 ○ 기대효과 : -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 학교경영의 민주화 기여 - 현장 교사들의 사기 진작	
2. 교육전문직 연찬회	○ 일 시 : '92. 2. 28(금) 10:00 - 15:00 ○ 장 소 : 본청 강당 ○ 대 상 : 초·중등 교육전문직 207명 ○ 주 제 : 수업 방법전환을 위한 장학활동 - 토의 학습 정착을 위한 장학활동 방안 ○ 기대효과 : -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장학력 제고 - 교육전문직의 역할기대와 사명감 제고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3.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연찬회	○ 일 시 : '92. 4. 28 - 5. 11. ○ 장 소 : 청주, 충주, 증평, 영동 ○ 대 상 : 도내 유·국·중·고교(원)장 594명 ○ 방 법 : 4개 지역분산 개최, 세미나 형식 ○ 주 제 : 충북교육발전 과제와 추진방향 - 인화중심의 민주 행정 운영 - 학생들의 학력 정착 - 지속적인 교육 개혁 ○ 기대효과 - 학교(원)장의 역할기대와 사명감 고취 - 교육행정 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력 제고	
4.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	○ 기 간 : '92. 3. 1 - ○ 대상학년 : 국민학교 3 - 6학년 ○ 대상교과 : 체육, 음악, 미술, 자연, 실과 ○ 운영방법 및 인원 - 시범학교 1교(괴산동인) : 3명 - 순회지도 및 학교내 전담운영 : 212명 ○ 기대효과 - 학생 : 기능교과 학습의 질 향상 - 교사 : 수업부담의 경감 및 사기 앙양	
5. 여름방학중 중점 문화 순회 답사	○ 기 간 : '92. 7. 20 - 7. 22 (2박3일) ○ 대상 및 인원 : 도내 국민학교 어린이회 임원중 희망하는 어린이 283 명 ○ 방 법 : 3개지역 (북부, 중부, 남부) 순회 답사 코스를 순환 실시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6. 스승의 날 교원 표창	○ 결과처리 : - 답사 감상문쓰기: 우수학생 교육감표창 - 모범대원 교육감 표창 ○ 기대효과 : - 애항심 및 애국애족의 정신 고취 - 호연지기 및 민주시민 자질 함양 ○ 제1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포상 - 일 시: '92. 5. 15 - 대 상 : 모범교원 및 경로효친 교원 - 인 원 :							
	구 분	문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교육감 표 창	계
	초 등	1			1	24	36	62
	중 등		1	1	1	27	44	74
	계	1	1	1	2	51	80	136
	○ 연공 표창 - 일 시 : '92. 5. 15 - 대 상 : - 장 관 : 교육계근속 초등36년, 중등35년이상 - 교육감 : 교육계근속 30년이상 - 인 원							
	구 분	장관 표창	교육감표창	계				
	초 등	163	129	292				
	중 등	19	129	148				
	계	182	258	440				

사 업 명	주진실적	비 고																																																																																																								
7. 교원 재교육	○ 유치원 및 국교사 각종연수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유 치 원</th><th colspan="2">국 민 학 교</th><th colspan="2">계</th></tr> <tr> <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r> <tr> <td>특 별 연 수</td><td>1</td><td>1</td><td>5</td><td>5</td><td>6</td><td>6</td></tr> <tr> <td>자 격 연 수</td><td>66</td><td>66</td><td>152</td><td>103</td><td>218</td><td>169</td></tr> <tr> <td>- 교 장</td><td></td><td></td><td>33</td><td>20</td><td>33</td><td>20</td></tr> <tr> <td>-교(원)감</td><td>5</td><td>5</td><td>36</td><td></td><td>41</td><td>5</td></tr> <tr> <td>-1급 정교사</td><td>60</td><td>60</td><td>80</td><td>80</td><td>140</td><td>140</td></tr> <tr> <td>-2급 정교사</td><td>1</td><td>1</td><td>3</td><td>3</td><td>4</td><td>4</td></tr> <tr> <td>일 반 연 수</td><td>25</td><td>15</td><td>1670</td><td>1603</td><td>1695</td><td>1618</td></tr> <tr> <td>신규교사임용 전 교육</td><td>35</td><td>35</td><td>77</td><td>77</td><td>112</td><td>112</td></tr> <tr> <td>기 타 연 수</td><td>456</td><td>317</td><td>728</td><td>303</td><td>1184</td><td>620</td></tr> <tr> <td>해 외 연 수</td><td>2</td><td>2</td><td>52</td><td>45</td><td>54</td><td>47</td></tr> <tr> <td>-시찰연수</td><td>2</td><td>2</td><td>40</td><td>33</td><td>42</td><td>35</td></tr> <tr> <td>-어학연수</td><td></td><td></td><td>12</td><td>12</td><td>12</td><td>12</td></tr> <tr> <td>계 (비율%)</td><td>585 (76)</td><td>436 (75)</td><td>2684 (45)</td><td>2136 (80)</td><td>3269</td><td>2572 (79)</td></tr> </table>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특 별 연 수	1	1	5	5	6	6	자 격 연 수	66	66	152	103	218	169	- 교 장			33	20	33	20	-교(원)감	5	5	36		41	5	-1급 정교사	60	60	80	80	140	140	-2급 정교사	1	1	3	3	4	4	일 반 연 수	25	15	1670	1603	1695	1618	신규교사임용 전 교육	35	35	77	77	112	112	기 타 연 수	456	317	728	303	1184	620	해 외 연 수	2	2	52	45	54	47	-시찰연수	2	2	40	33	42	35	-어학연수			12	12	12	12	계 (비율%)	585 (76)	436 (75)	2684 (45)	2136 (80)	3269	2572 (79)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특 별 연 수	1	1	5	5	6	6																																																																																																				
자 격 연 수	66	66	152	103	218	169																																																																																																				
- 교 장			33	20	33	20																																																																																																				
-교(원)감	5	5	36		41	5																																																																																																				
-1급 정교사	60	60	80	80	140	140																																																																																																				
-2급 정교사	1	1	3	3	4	4																																																																																																				
일 반 연 수	25	15	1670	1603	1695	1618																																																																																																				
신규교사임용 전 교육	35	35	77	77	112	112																																																																																																				
기 타 연 수	456	317	728	303	1184	620																																																																																																				
해 외 연 수	2	2	52	45	54	47																																																																																																				
-시찰연수	2	2	40	33	42	35																																																																																																				
-어학연수			12	12	12	12																																																																																																				
계 (비율%)	585 (76)	436 (75)	2684 (45)	2136 (80)	3269	2572 (79)																																																																																																				
8. '92. 유,국교사 공개전형	○ '92. 유,국교사 공개전형 결과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유 치 원</th><th colspan="3">국 민 학 교</th></tr> <tr> <th>1부</th><th>2부</th><th>계</th><th>1부</th><th>2부</th><th>계</th></tr> <tr> <td>공개채용인원</td><td>3</td><td>32</td><td>35</td><td>65</td><td>12</td><td>77</td></tr> <tr> <td>6월말임용자</td><td colspan="3">33</td><td colspan="3">43</td></tr> <tr> <td>임용대기자수</td><td colspan="3">2</td><td colspan="3">34</td></tr> </table> *.임용대기자는 하반기 전원 임용예정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1부	2부	계	1부	2부	계	공개채용인원	3	32	35	65	12	77	6월말임용자	33			43			임용대기자수	2			34																																																																									
구 분	유 치 원			국 민 학 교																																																																																																						
	1부	2부	계	1부	2부	계																																																																																																				
공개채용인원	3	32	35	65	12	77																																																																																																				
6월말임용자	33			43																																																																																																						
임용대기자수	2			34																																																																																																						
9. 교원 명예퇴직	○ 초등교원 명예퇴직 현황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신청자</th><th>결정자</th><th>수당지급액</th></tr> <tr> <td>2월말</td><td>17</td><td>13</td><td>367,727</td></tr> <tr> <td>8월말</td><td>11</td><td>3</td><td>84,816</td></tr> <tr> <td>계 (비율%)</td><td>28</td><td>16 (57)</td><td>452,543</td></tr> </table>	구 분	신청자	결정자	수당지급액	2월말	17	13	367,727	8월말	11	3	84,816	계 (비율%)	28	16 (57)	452,543																																																																																									
구 분	신청자	결정자	수당지급액																																																																																																							
2월말	17	13	367,727																																																																																																							
8월말	11	3	84,816																																																																																																							
계 (비율%)	28	16 (57)	452,543																																																																																																							

중 등 교 육 국 소 관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 교수·학습 방향 모색을 위한 연찬회	○ 연찬회 목적 - 교수·학습 방향 전환을 통한 기초 학력 제고 ○ 연찬회 추진 내용 - 일 시 : '92. 6. 19 (금) 09:30 ~ 15:20 -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 참석자 : · 중 학 교 3년 담임 196명 · 고등학교 2년 담임 184명 · 도내 전문직 51명 계 431명 - 주제발표자 : 한국교원대 김정원, 우종욱교수 ○ 기대효과 - '93 고교 입시 개선 방향의 이해 확산 - '94 대입 수학능력시험 대비 -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2. 장학협의 추진	○ 목 적 -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원 사기 진작 - 학교 운영 쇄신 및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 본도 교육시책의 구현 촉진 ○ '92 전반기 장학협의 추진 내용 - 기 간 : '92. 3. 26 ~ '92. 6. 30 - 실시학교 : · 합동장학 23교 · 확인장학 17교 - 협의중점 : · 합동장학 - 임상적 수업장학 중심 · 확인장학 - 교육계획 추진상황 중심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3. '93 고교 입시 제도개선	○ '92 전반기 정학협의 결과 분석 배부 - 배부시기 : '92. 8. 3 - 배 부 처 : 본청각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도내 국립중·고 ○ 기대효과 -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 학교 경영의 민주화 기여 - 현장 교사들의 사기 진작 - 학교 건의사항 수렴 처리 ○ 목 적 - 문제 해결력, 사고력 중심의 고등정신 능력 평가 - 중학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 정상화 기여 ○ 개선내용 - 연합선발고사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 개선 - 평가영역 : 언어능력, 수리·탐구능력, 외국어(영어) 능력 평가 - 출제방향 : 가급적 통합 교과적이고, 탐고과 서적 소재 중심으로 5지 선다형 중심의 객관식이며 다답형 또는 무답형 가미 - 작문고사 : 자료제시형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4.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	○ 기대효과 - 사고력, 탐구력, 비판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 능력 신장 -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기여 ○ 목 적 - 영재교육 추진 -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미비점 보완 ○ 추진계획 및 실적					
	연도	학교명	설치학과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인원	비 고
	89	과학고		2	30	전국현황 11개교
	90	중앙고	미술 음악/무용	3	50	예술고대체
	91	충북체고 (신)	체육과	2	40	금천고체육 과 흡수
	92	정주 외국어고	6개 외국어	6	40	중앙고 다 국어 흡수
		중산 외국어고	5개 외국어	5	40	신설 공립외국 어고는충 북만설치
5. 학기중 학원 수강허용	○ 기대효과 - 특수재능 학생의 수월성 교육 추진 -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 허용 내용 - 시기 : '92. 9. 1 부터 - 대상 : 중학교 학생 - 사유 : · 고입선발고사의 개선 ·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다양한 특활 추진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6. 고등학교 제2 외국어 특별 교실 운영 7. 고교생 수련	· 개인별 취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목적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 - 다양한 외국어 교육으로 다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대처 ○ 운영내용 - 기간 : '92. 3월 ~ 12월 - 참여학교 및 학생수 : 정주, 충주, 제천시 일반계고교 15개교 335명 - 참여자격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수강 외국어 :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 기대효과 -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인재 양성 -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 국제사회 이해증진 ○ 일반학생 수련 - 기간 : '92. 4. 7 ~ 6. 19 (3박4일 6회) - 대상 : 54개 고교 (매회 240명), 1,440명 - 장소 : 단재교육원 - 기대효과 : 협동생활을 통한 협동, 봉사, 질서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 조국순례대행진 - 기간 : '92. 6. 12 -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및 간부학생 200명 - 장소 : 진천전적지 및 길상사, 동락전적지 및 교육관, 충주 충렬사, 조령전적지, 순병희 선생생가 - 기대효과 : 선열들의 호국 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함양 ○ 공군사관학교 견학 - 기간 : '92. 4. 4 ~ 6. 13 (매주 토요일) - 대상 : 고교 2학년 70개교, 4,000명 -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고취 ○ 국립묘지 참배 - 기간 : '92. 6. 17 ~ 6. 22(5개교씩 4회) - 대상 : 학생회 간부 및 국가유공자 자녀 800명 - 장소 : 대전국립묘지 및 현충사 - 기대효과 : 호국의지를 기르고 올바른 학생상 정립 ○ 전방시찰 - 기간 : '92. 6. 17 ~ 6. 24 (3회) - 대상 : 간부학생 및 희망자, 120명 - 장소 : 제1,3땅굴 - 기대효과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지 고양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8. 검정고시 업무	○ 군부대 일일 견학 - 기간 : '92. 4. 14 ~ 16 - 대상 : 증평지역 고교 2년 1,000명 - 장소 : 육군 제5019부대 - 기대효과 :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 ○ 고교생 가치관 정립교육 - 기간 : '92. 6. 29 청주지역 '92. 6. 30 충주지역 '92. 7. 1 제천지역 - 대상 : 도내 고교생 2,067명 - 장소 : 청주농고, 충주고, 제천농고 - 기대효과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제1회 고입·고졸검정고시 - 공 고 : '92. 1. 31 서울·경향신문 게재 - 지원자 : 573명 (고입 156, 고졸 417) - 시험일 : '92. 4. 19(일) 09:00-17:20 - 시험장소 : 청주기계공고, 청주소녀원 - 합격자 : 166명 (고입 31, 고졸 135) (합격율 30%) ○ 제2회 고입·고졸검정고시 - 공 고 : '92. 5. 29 서울·경향신문 게재 - 지원자 : 532명 (고입 148, 고졸 384) - 시험일 : '92. 8. 7 (금) - 시험장소 : 청주여중, 청주소녀원 - 합격자 발표 : '92. 8. 31. 10:00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3. 실고 내부 시설비지원	○ 실고 내부시설비 지원 - 실업계고 28개교 318,000천원 · 농업계열 6교 47,700천원 · 공업계열 11교 190,800천원 · 상업계열 14교 79,500천원	사립 7개상고 31,800천원
14. 충북학생회관 개관	○ 충북학생회관 개관 - 개관일자: 92. 3. 20 - 회관시설 · 부지 : 3,240 m² · 건평 : 4,724 m² (지상 5층 , 지하 1층 , 강당 1동) - 주요사업 : 청소년을 위한 시설제공 및 행사 개최 (전시실 운영, 음악감상실 운영, 건전 영화상영 및 연주, 독서실 운영 등)	
15.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상황	○ 5개 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 적십자) 55,643명 - 단체별, 학교별 조직	
1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 독학 교양과정 인정시험 (1단계) - 일 시 : 1992. 4. 19 - 응 시 자 : 127명 - 합격인원 : 93명 ○ 독학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2단계) - 일 시 : 1992. 7. 5 - 응 시 자 : 50명 - 합 격 자 : 35명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17. 제21회 충북 소년체육대회	○ 제2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개최 - 개최일시 : 1992. 5. 8 - 5. 9 (2일간) - 장 소 : 청주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 경기종목 : 27개 종목							
	국 남	국 여	중 남	중 여				
	18종목	12종목	27종목	17종목				
	- 참가현황 : 11개 지역교육청별 3,505명 - 대회결과							
	등위 급별	1 위	2 위	3 위				
	국민학교부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중학교부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음성교육청				
	중 합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청원교육청				
18. 제2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	○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 기 간 : 1992. 6. 13 - 6. 16 (4일간) - 장 소 : 5개 시·도본산개최 (대구, 광주, 경기, 전주, 서울) - 참가종목 : 26개 종목							
	국 남	국 여	중 남	중 여				
	13종목	11종목	26종목	14종목				
	- 참가인원 : 659명							
	구분	국		중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인원	126	109	278	146	404	255	659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9. 양호교사 확보	- 참가결과 . 메달 획득 현황							
	급 별	국		중		계		총 계
	구 분	남	여	남	여	남	여	
	금		1	9	1	1	10	11
	은	1	3	9	4	4	13	17
	동	3	5	13	3	8	16	24
	계	13		39		52		52
	. 대회 신기록 수립현황							
	종 목	역 도		수 영		계		
	수	6		2		8		
	○ 양호교사 확보 배치							
	교 별	'92 이 전		'92. 확 보		계		
	국	125		17		142		
	중	20				20		
	고	25				25		
	특수	7		1		8		
	계	177		18		195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고		
20. 학교급식	○ 학교급식 확대 실시 - 급식학교 현황			
	유 형	'92 이전	'92 지정	계
	벽 지	24		24
	농 촌	30	13	43
	도 시	6	1	7
	특 수	7		7
	계	67	14	81
	- 급식학교 예산 . 운영비 : 1,436,088 천원 . 시설설비비 : 470,000 천원 - '92 중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 학교수 : 160교 . 학생수 : 406명 . 지원일수 : 117회 . 지원액 : 59,030 천원			
	○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 유해업소수 : 54 - 정화조치 요구 건수 : 54 - 이전 폐쇄 업소수 : 5 - 미조치 업소수 : 49 - 정화계획 : 1995. 12. 31 이전 폐쇄 조치			
	21. 환경정화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22. 양호검직교사 및 학교 보건 담당자 연수	○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지정 운영 - 횟 수 : 8회 - 참여대상 : 국.중.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 참여인원 : 408,129명 - 행사내용 . 학교주변 청소 및 비교육적 광고물 제거 .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정화캠페인 ○ '92 양호검직교사 및 학교보건 담당자 연수 - 기 간 : '92. 7. 28 - '92. 8. 7 (10일간) - 장 소 : 청주전문대학 - 이 수 자 : 49명 (초등 23, 중등15, 교육청 11)	

'92년도 상반기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 학 기 술 과

사 업 명	주 전 실 적	비 고
가능경기대회	- o '92 지방가능경기대회 - 일 시 : 4.17 - 4.23 - 장 소 : 정주기계공고, 정주직업훈련원 - 경기종목 : 33 - 참가인원 : 305명 - 입상현황 : 금21, 은22, 동16 계 59 - o 제4회 중북 수학/과학 경시대회 - 일 시 : '92.5.23 - 6.4(16일간) - 장 소 : 정주여자중학교 - 참가인원 : 491명(중298, 고193) - 입 상 자 : 94명(중47, 고47) - o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 - 일 시 : '92.7.22 - 7.24(3일간) - 장 소 : 서울대학교 - 참가인원 : 18명(중9, 고9) - 입 상 자 : 중 7명(등상 1, 장려상 6) 고 5명(등상 1, 장려상 4) - o 컴퓨터 경진대회 - 일 시 : '92. 7. 21 - 장 소 : 중주상고 - 참가인원 : 118명(조33, 중33, 고50, 교사2) - 입상현황 : 29명	

'92년도 상반기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학기술과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실고생장학금	○ 상고 실무능력 평가회 - 일 시 : '92. 7. 21 - 장 소 : 중주상고 - 종 목 : 5개 종목 - 참가인원 : 402명 - 입상현황 : 195명 ○ 영농 학생 전진대회 - 일 시 : '92.7.24 - 7.25 - 장 소 : 청주농고 - 참석대상 : 203명(영농학생 162, 졸업생 6, 교사 35) - 입상현황 : 15명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실고생</th> <th>공고생</th> <th>영 농</th> <th>새마을</th> <th>계</th> <th>수혜비율</th> </tr> <tr> <td>지급인원</td> <td>2,688</td> <td>566</td> <td>491</td> <td>301</td> <td>4,046</td> <td rowspan="2">전체 29,112명 중 14 %</td> </tr> <tr> <td>지 급 액</td> <td>268,800</td> <td>76,008</td> <td>120,905</td> <td>30,100</td> <td>495,813</td> </tr> </table>	구 분	실고생	공고생	영 농	새마을	계	수혜비율	지급인원	2,688	566	491	301	4,046	전체 29,112명 중 14 %	지 급 액	268,800	76,008	120,905	30,100	495,813
구 분	실고생	공고생	영 농	새마을	계	수혜비율															
지급인원	2,688	566	491	301	4,046	전체 29,112명 중 14 %															
지 급 액	268,800	76,008	120,905	30,100	495,813																
실고 실점 실습비	○ 실고 실점실습비 지원 - 농업계열 : 4개교 28,896천원(1인당 9,100원) - 공업계열 : 12개교 224,718천원(1인당 19,780원) - 계 : 16개교 253,614천원																				

관 리 국 소 관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1.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 정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공립) - 위 치 : 정주시 사정동 227번지 (중앙고 부지내) - 학급 및 학생수 : 11학급 (1학년 6학급, 2학년 5학급) 357명 - 급당인원 : 40명 - 설치학과 : 6학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에스파니아어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 개교년월일 : '92. 3. 1. - 기대효과 : 외국어 우수학생을 조기발굴 영재 교육 실시 ○ 중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사립) - 위 치 : 중주시 호임동 산 22-3번지 - 학급 및 학생수 : 11학급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3학급) 468명 - 급당인원 : 40명 - 설치학과 : 5학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 개교년월일 : '92. 3. 1. - 기대효과 : 외국어 우수학생을 조기발굴 영재 교육 실시	- 1학년 학생수 166명 - 2,3학년 인문계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2. 학교 신설	○ 공립학교 신설				
	시군별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위 치
	청 주	신남국교	40	1,950	청주시 신남동 택지개발지구내
		율랑국교	37	1,774	청주시 율랑동 1034번지
		가경국교	29	1,348	청주시 가경동 752번지
		가 경 중	10	488	청주시 가경동 13-1번지
	중 주	충주 중앙국	28	1,443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제 천	제천 중앙국	30	1,481	제천시 정전동 652번지
	계	국 5교, 중 1교	174	8,484	
	- 개교년월일 : '92. 3. 1. - 기대효과 : 과대학교 분리,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해소로 교육여건 개선				
	○ 사립특수학교 신설				
	- 학 교 명 : 제천청암학교 - 설 립 자 : 사회복지법인 금강학원이사장 신상숙 - 장 애 별 : 정신박약 - 위 치 : 제천군 금성면 성내리 산 48-4 - 학급 및 학생수 : 유치부 2학급 20명 초등부 6학급 75명 -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사회적응 능력 배양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 고								
3. 소규모학교 통·폐합	○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 본교 폐지 : 충주 북성국민학교 - 본교장폐지 : 청주 북일국민학교 정애원 본교장외 20교 - 본교장격하 : 충주 수룡국민학교외 12교 - 통·폐합년월일 : '92.3.1 (21교), '92.8.1 (1교) - 통·폐합 효과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의 증대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4. 중·고 병설	○ 목도중학교 위치 이전 ('92. 3. 1) - 학급 및 학생수 : 7학급 315명 - 이 전 전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47번지 - 이 전 후 :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 (목도교) - 목도고등학교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 - 효 과 - 학교의 소규모화 및 운영의 영세화를 해소하여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도모									
5. 93학년도 고등 학교 학급배정	○ 93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배정 (1학년) - 배정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배 정</th><th>금회배정</th><th>증(△)감</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474</td><td>486</td><td>12</td><td></td></tr> </tbody> </table>	기 배 정	금회배정	증(△)감	비 고	474	486	12		
기 배 정	금회배정	증(△)감	비 고							
474	486	12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 학급증설 부강공고 기계과 1, 제 원 고 전자과 2, 옥천공고 기계과 1, 진천농고 통신과 2, 광혜원고 전자과 1, 증평공고 전산과 1, 금원공고 기계과 1, 계 9학급 - 학급감축 정 주 고 보통과 1, 세 광 고 보통과 1, 운 호 고 보통과 1, 계 3학급 - 학교신설 현도상업고등학교 6학급 - 학급당 인원 <table> <tr> <td>공업계열학과</td> <td>50명(95개 학과)</td> </tr> <tr> <td>인문고 및 실고</td> <td>48명</td> </tr> <tr> <td>충북체육고</td> <td>40명</td> </tr> <tr> <td>청주외국어고</td> <td>40명</td> </tr> <tr> <td>증산외국어고</td> <td>40명</td> </tr> <tr> <td>충북과학고</td> <td>30명</td> </tr> <tr> <td>보은농고(자영농과)</td> <td>40명</td> </tr> </table>	공업계열학과	50명(95개 학과)	인문고 및 실고	48명	충북체육고	40명	청주외국어고	40명	증산외국어고	40명	충북과학고	30명	보은농고(자영농과)	40명	
공업계열학과	50명(95개 학과)															
인문고 및 실고	48명															
충북체육고	40명															
청주외국어고	40명															
증산외국어고	40명															
충북과학고	30명															
보은농고(자영농과)	40명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6. '9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	○ '9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당 초 예 산 : 339,980,915천원 - 제1회추경예산 : 30,201,094천원 { 인 건 비 2,339,883천원 교육행정비 및 사업비 1,646,498천원 학 교 비 3,344,493천원 시 설 비 22,808,321천원 예비비 및 기타 61,899천원	'92.6.20 도의회의결
7. 학교 부지 매입	○ 청주기계공고 이전부지매입 - 총 면 적 : 56필지 90.610m ² (27,410평) - 매입완료 : 51필지 73.106m ² (22,114평) - 주 진 중 : 5필지 17.504m ² (5,295평) - 예 산 액 : 15,049,628천원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물 량	사업진도(실,동,개소)			예산집행 현황(천원)		
		공사중	준공	미착수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8. 일반시설사업							
○ 학교이전 및 신설(교)	2	1		1	2,940,008	2,018,008	69
○ 청사시설(동)	12	6	2	4	1,607,568	1,542,229	96
○ 부족교실증축 (실)	204.5	119.5	52	33	7,032,876	5,541,821	79
○ 실습실증축 (m ²)	7.445	6.707	738		3,062,485	3,062,485	100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물 령	사업진도(실,동,개소)			예산집행 현황 (천원)		
		공사중	준공	미착수	예 신 액	집 행 액	비율
○ 책걸상대체 (조)	10.094	1.529	675	7,890	195,892	52,198	27
○ 강당등 권장 시설 (동)	14	5	8	1	2,239,008	2,203,408	98
○ 대수선 (개소)	53	16	15	22	1,248,933	843,905	68
○ 기타시설	199	62	20	117	7,296,704	3,830,657	52
계					25,623,474	19,094,711	75
9.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교원휴게실 및 강의실 (실)	20	9	8	3	293,100	255,300	87
○ 교실난방개선 (실)	1,955.5		9	1,946.5	784,600	3,600	0.5
○ 교무실확충 (실)	5	5			157,900	157,900	100
○ 노후교실개축 (실)	166	122	29	15	5,283,300	4,851,719	92
○ 화장실 개량 확충 (동)	43.7	29.2	8.5	6	1,420,480	1,226,530	86
○ 이중창설치 (실)	914.5	141	199.5	574	1,920,030	730,680	38
○ 사택신.개축 (동)	42	20	11	11	1,181,300	863,246	73
○ 부속시설신.개축 (동)	13	8	3	2	146,500	116,570	80
○ 노후교실중수 (실)	680.5	224	340.5	116	3,530,220	2,668,656	76
○ 시설부대비					312,118	151,535	49
계					15,029,548	11,025,736	73
합 계					40,653,022	30,120,447	74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소 관

사 업 명	주 천 실 적	비 고																					
1.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기 간 : '92. 1. 7 ~ 1. 16 - 대상기관 : 11개 지역교육청 - 내 용 · '92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색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 · 당면과제협의 및 건의 요망사항 수렴 · 유관기관장과의 교육상담 - 현장지도사항 : 41 건 - 건의요망사항 : 72 건																						
2. 교육행정감사 · 종합감사 · 기강감사	○ 종합감사 - 감사계획 및 실시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연 중 계 획</th><th>상반기 실시</th></tr> </thead> <tbody> <tr> <td>지역교육청</td><td>6</td><td>2</td></tr> <tr> <td>직속기관</td><td>3</td><td>2</td></tr> <tr> <td>고등학교</td><td>24</td><td>15</td></tr> <tr> <td>특수학교</td><td>2</td><td></td></tr> <tr> <td>법 인</td><td>5</td><td>2</td></tr> <tr> <td>계</td><td>40</td><td>21</td></tr> </tbody> </table> - 처분결과 · 신분상조치 : 6 건 (14명) · 행정상조치 : 62 건 (220명) · 재정상조치 : 20 건 14,115천원 ○ 기강감사 - 실시기관 : 138 기관 - 조치결과 · 신분상조치 : 12 명 · 행정상조치 : 46 건(152 명) · 재정상조치 : 2 건 1,829 천원	구 분	연 중 계 획	상반기 실시	지역교육청	6	2	직속기관	3	2	고등학교	24	15	특수학교	2		법 인	5	2	계	40	21	
구 분	연 중 계 획	상반기 실시																					
지역교육청	6	2																					
직속기관	3	2																					
고등학교	24	15																					
특수학교	2																						
법 인	5	2																					
계	40	21																					

행정 관리 담당 관 소 관

사 업 명	추진 실적	비고																																		
1. 기능직공무원 등급조정	○ 지방기능직공무원 등급 조정 - 목적 : 장기근속한 지방기능직공무원의 근무 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토록함. - 조정현황 · 현행 기능직 10등급 → 9등급으로 상향조정 · 조정정원 572명 (30.47%) · 조정내용 <table border="1"> <tr> <th>등급별</th><th colspan="5">기 능 직</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구분</th><th>합 계</th><th>7 등급</th><th>8 등급</th><th>9 등급</th><th>10 등급</th></tr> <tr> <td>현 정 원</td><td>1,905</td><td>27</td><td>1</td><td>-</td><td>1,877</td><td></td></tr> <tr> <td>조 정 정 원</td><td>1,905</td><td>27</td><td>1</td><td>572</td><td>1,305</td><td></td></tr> <tr> <td>증 △ 감</td><td>0</td><td>0</td><td>0</td><td>572</td><td>△ 572</td><td></td></tr> </table> - 기대효과 · 고용직 경력을 포함한 장기근속자 우대로 불만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으로 생활인정에 기여 · 전문성 및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직렬의 수혜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가능 (승진기회 부여) · 정원관리의 합리성 도모	등급별	기 능 직					비고	구분	합 계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현 정 원	1,905	27	1	-	1,877		조 정 정 원	1,905	27	1	572	1,305		증 △ 감	0	0	0	572	△ 572		
등급별	기 능 직					비고																														
구분	합 계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현 정 원	1,905	27	1	-	1,877																															
조 정 정 원	1,905	27	1	572	1,305																															
증 △ 감	0	0	0	572	△ 572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2. 교육자치법규 정비	○ 조 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외 7건 제정·개정 ○ 규 칙 -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 규칙외 9건 개정 ○ 훈 령 -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외 2건 제정 및 폐지	
3. 소송수행	○ 행정소송 - 국립사대졸업자우선임용청구상고사건 원고 (정은숙외 5명) / 현 대법원 계류중 ○ 민사소송 - 충주중학교학생쇼크사망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이옥자외 1명) / 원고측 소취하 (종결) - 보은이식국고고용직연탄가스중독사손해배상 청구사건 원고 (이재근외 5명) / 원고 청구각하 (1심판결) - 충주공고학생간폭행치사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신승배외 3명) / 현 청주지방법원 (1심) 계류중	청구금액 113,714천원

사 업 명	주 진 실 적	비 고
4. 교육 행정업무 전산 회추진	○ 전산업무개발 추진 현황 - 급여관리 : 본청, 산하 63기관 월급여 및 연말정산 처리 - 시험관리 : '92지방공무원임용시험 (행정, 보건) 943명 - 고입·고졸검정고시 (2회 1,105명) - 재산관리 : 국유재산관리 (489건) ○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단재교육원 연수생 관리 (교원자격연수외 3종 18개과정) - 과학교육원 연수생 관리 (교원자격연수외 1종 7개과정) ○ 전산기재 도입 설치 - 기 기 명 :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포함) - 수 량 : 14대 - 금 액 : 18,742천원 - 설치부서 : 2실 10과	

총 무 과 소 관

사 업 명	주 진 싣 적	비 고
1. 지방공무원 공채	○ 교육행정 및 보건직공무원 공개채용 - 시험일자 : '92. 4. 12. - 채용인원 · 행정직 9급 100명 (장애인 2명 포함) · 보건직 9급 36명 (여자) - 응시인원 · 행정직 651명 (장애인 7명) · 보건직 127명	남27,여:73

(별첨 3)

각급학교 창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관 리 국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1. 배 경

- 가. 현행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지침"이 자발적 찬조금품을 학교장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정당화 인식 팽배
- 나. 일부 학교에서 비자발적 찬조금품을 자진 협찬 형식으로 모금하여 계속적인 물의 야기
- 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 정부정책의 불만으로 비화
- 라. 공청회 및 여론수집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부당 찬조금 징수 근절을 요구

2.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지침 개정

- 가. 각급학교와 각급학교 육성회에서는 찬조금품 직접관리를 전면 금지
- 나. 찬조자 명의를 일체 공개치 아니하는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대하여는 각 급교육청에 접수하여 지정학교에 전달
- 다. 부당 찬조금품 징수방지 대책
 - 각급교육청에 "부당 찬조금 징수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
 - 각급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 및 감사 강화
 - 위반자 강력 문책
 - 직·간접적 관련자 : 중징계
 - 감 독 자 : 교감 중징계, 교장 해임

3. 개선방안에 따른 학교예산 지원

- 가. 육성회비의 현실화로 학교예산 확충
- 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액과 예비비로 학교 지원

4. 지침시행일 : '92. 9. 1.

I.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지침 개정

1. 각급학교와 각급학교 육성회에서는 찬조금품의 직접관리를 전면 금지
가. 자발적, 비자발적 찬조여부를 불문하고 각급학교와 각급학교 육성회에서 각종 금품을 직접 찬조받거나
나.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전면 금지
2. 각급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 창구" 개설 운영
가. 접수 창구 개설
 - 도교육청 : 행정과
 - 지역교육청 : 관리과나. 접수대상 찬조금품
 - 지역사회인사, 유관기관, 기업체, 동창회원, 학부모등이 특정 또는 불특정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찬조자 명의를 일체 공개치 아니하는 조건하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각급교육청의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통하여 찬조하는 금품다. 접수금지 대상 찬조금
 - 모금, 할당, 직·간접적인 강요, 권유, 유도에 의한 찬조
 - 특정 학생의 편애를 기대하는 찬조
 - 찬조자 명의의 현시를 요구하는 찬조
 - 2명이상의 찬조자가 공동으로 찬조하거나 수명의 찬조자를 그 중 1명이 대표하여 하는 찬조
 - 각종 선거·선출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찬조
 - 기타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은 찬조라. 찬조금품의 접수
 - 찬조금품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 창구"에 접수
 - 찬조금품 접수신청자는 찬조금품을 각급교육청의 관할 행정구역 구분에 불구하고 접수하기 가장 편리한 교육청을 임의 선정하여 접수 가능

마. 찬조금품의 접수 관리

- 교육청별로 찬조금품 접수대장을 비치 활용
- 접수창구 관리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찬조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찬조일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찬조자 명의의 공개나 찬조금품의 접수영수증 또는 확인서등의 발급은 어떤 경우등 금지
- 찬조금품과는 달리 도에서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해 특정기업 또는 지역유지등 독지가로부터 유치받은 정상적인 기부금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교육감이 관리

바. 찬조금품의 보관·관리

- 현금, 유가증권 : 당해 교육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집중 관리
- 현 물 : 당해 교육청의 물품출납원이 잠정 보관

3. 접수된 찬조금품의 사용

가. 찬조희망 대상기관에 찬조금품 전달

- 찬조자가 찬조희망 기관을 명시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장에게 찬조자 명의를 익명으로 하여 접수된 찬조금품을 전달
- 찬조자가 찬조희망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찬조목적에 따라 직접 집행

나. 전수받은 찬조금품의 보관·관리

- 학교육성회 설치교 : 학교육성에 편입하여 집행
- 학교육성회 미설치교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집행

다. 찬조금품 집행

- 찬조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한 경우 지정목적에 전액 사용
- 찬조자가 사용목적을 지정치 않은 경우 학교장의 자율결정에 따라 집행

4. 부당 찬조금품 징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가. "부당 찬조금품 징수 고발센터" 상설 운영

○ 고발센터 개설

- 도교육청 : 기획감사담당관실
- 지역교육청 : 관 리 과

○ 서류, 구술, 전화, 우편, 가명, 익명성 고발 모두 접수 처리

나. 지도·감독 및 감사의 강화

- 장학지도시마다 현지 지도 강화
- 각급교육청의 산하기관 암행감찰 강화
- 각종 여론수집에 의한 지도·감독 강화

다. 위반시 조치

- 부당 찬조금품을 징수·모금하였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전액 반환
- 신분상의 조치
 - 직·간접관련자 : 중징계
 - 감 독 자 : 교감은 중징계, 교장은 해임
- 대규모 고질적 부당 찬조금품 징수 관련자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

II. 각급학교내 각종 회비와 잡부금품 징수 금지

1. 학교내 각종 학부모 모임 회비나 잡부금품 징수도 전면 금지

가. 각종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어떠한 명분의 회비징수도 전면 금지

나. 학생들로부터 청소용품, 급식용품, 환경미화 용품등의 잡부금품 징수도 전면 금지

2. 교육감이 따로 지정하는 일부 특정경비는 관리 허용

가. 학생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청소년단체의 활동비 징수를 학교가 대행하는 경우

(예) 보이·걸스카웃, 아람단, 누리단 회비등

나. 폐품 수집시의 폐품

다. 학교급식을 위한 학생부담 급식비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모금을 장려하는 비용(위문금, 성금)

마.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 부담비용을 학교가 징수 대행하는 경우

(어린이 신문구독대, 수학여행비, 졸업생 앨범비등)

3. 학교 필요예산 확보

가. 각종 학부모 모임 활동비와 잡부금품으로 충당하던 경비 육성회비 현실화

나. 육성회 현실화가 곤란한 수요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재원과 예비비 재원으로 충당

Ⅲ. 육성회비의 완전 자율화

1. 육성회비 징수액의 자율적 결정권과 육성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

2. 고등학교 학생회비를 육성회에 통합하여 운영

3. 육성회비의 현실화 조치

o 자율학습 경비, 보충수업 경비, 학생회비, 체육후원회비, 학부모 모임 활동경비, 잡부금품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재정수요 반영

4. 각급학교 육성회 규약 개정

Ⅳ. 지침 시행일 : '92. 9. 1.

결 의 문

민주화의 일환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의 발전을 기약하면서 교육위원회가 발족된지 일주년이 되었다.

그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 확보가 급선무임을 절감 하면서도 경제발전등 제반 사회여건을 감안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현실 적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비의 재원을 이루고 있는 휘발유·경유·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내국세 총액의 11.8% 해당금액을 교부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인 바, 그 금액은 '93년도에만도 약 3,015억원으로 추정 될 뿐만아니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형편은 세출을 최소화 해도 7,439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 하는 바 설상가상으로 목적세가 신설된다 하면 그 부족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열악한 초·중등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은 고사하고 그 기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도로·항만·고속철도·신공항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이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일은 21세기를 대비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확충 등 당면한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확신한다.

2천년대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뒤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면 국가는 낙후된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우수교원의 확보등 시급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충청북도 교육위원 일동은 지방교육을 위협하는 목적세 신설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 충청북도 교육위원 일동은 '92년으로 종결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의 시행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 충청북도 교육위원 일동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1992. 9. 4.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일 동